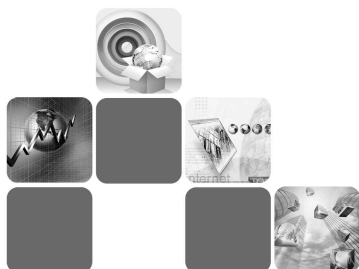


월간 ICT 산업 동향





Contents

I. 수출 동향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D-TV | ⑥ 컴퓨터 및 주변기기 |
| ⑦ SW | |

II. 트레이드 GPS 28

1. EU - 태양광모듈 29
2. 이차전지 34
3. Ex-Briefing 41

III. 부록 44

1. ICT 생산 통계 45
2. 2022년 1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46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53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59
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60





I

수출 동향



I 수출 동향¹⁾

1 개요

□ '22.1월 ICT 수출은 196.5억 달러(20.7%↑), 수입은 123.2억 달러(14.4%↑) 기록

- (수출)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수출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20.7% 증가한 196.5억 달러를 기록하며 1월 기준 역대 최고 수출 규모를 달성

※ 1월 기준 역대 상위 ICT 산업 수출(억 달러) : (1위 '22년) 196.5, (2위 '18년) 176.9, (3위 '21년) 162.8

- 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D-TV,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늘어난 반면 휴대폰은 감소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미국·일본·EU·베트남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

표 1-1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 구 분 (억 달러, %)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휴대폰 | D-TV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전 체 |
|------------------|--------------|-------------|--------------|-------------|---------------|--------------|
| 전세계 | 108.9 (24.1) | 23.5 (13.3) | 10.4 (△12.9) | 0.8 (0.8) | 15.3 (54.3) | 196.5 (20.7) |
| 중국(홍콩) | 62.8 (24.3) | 9.9 (20.4) | 7.0 (54.8) | 0.1 (143.6) | 5.8 (52.4) | 92.0 (24.3) |
| 미국 | 6.0 (△15.6) | 0.1 (△32.4) | 0.9 (△69.7) | 0.0 (31.3) | 4.6 (91.4) | 20.6 (8.6) |
| 일본 | 1.0 (4.4) | 0.1 (27.5) | 0.1 (△30.9) | 0.0 (369.6) | 0.4 (△6.2) | 3.4 (1.5) |
| EU | 2.2 (9.4) | 0.3 (21.5) | 0.2 (△64.2) | 0.2 (38.8) | 2.4 (83.6) | 10.5 (16.1) |
| 베트남 | 13.9 (29.5) | 12.1 (6.7) | 1.1 (△61.3) | 0.1 (△31.6) | 0.4 (182.9) | 33.2 (12.4) |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 대비 14.4% 늘어난 123.2억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 지속
 - 휴대폰(5.5억 달러, △48.9%)은 감소했으나 반도체(57.7억 달러, 26.5%↑), 컴퓨터 및 주변기기(19.2억 달러, 20.7%↑), 디스플레이(4.3억 달러, 65.0%↑) 등 주요 품목 수입이 증가
- (무역수지) 중국(홍콩 포함, 45.4억 달러), 베트남(22.4억 달러), 미국(14.5억 달러), EU(5.3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하며 총 73.3억 달러 흑자를 기록

표 1-2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 구 분 (억 달러, %) | ICT | | | 전체 산업 | | |
|------------------|--------|--------|--------|--------|--------|--------|
| | '21.11 | 12 | '22.1 | '21.11 | 12 | '22.1 |
| 수출 | 214.9 | 221.4 | 196.5 | 603.5 | 607.3 | 553.2 |
| 증감률 | (30.0) | (23.3) | (20.7) | (31.9) | (18.3) | (15.2) |
| 수입 | 127.7 | 132.4 | 123.2 | 573.5 | 611.8 | 602.1 |
| 증감률 | (23.1) | (24.3) | (14.4) | (43.6) | (37.1) | (35.5) |
| 수지 | 87.2 | 89.0 | 73.3 | 30.0 | -4.5 | -48.9 |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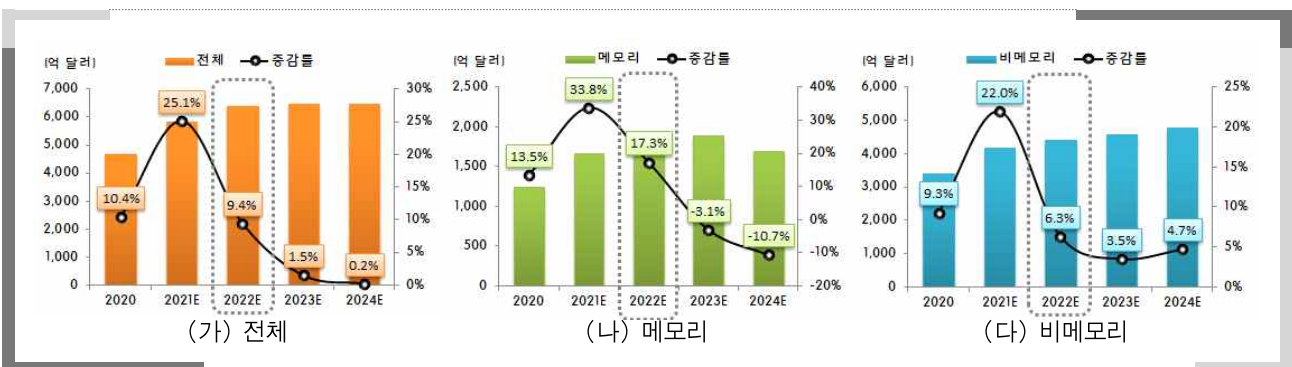
2 반도체

1) 수출 환경

□ '22년 반도체 시장은 전방 산업에서의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서 3년 연속 성장할 전망

- (시장 전망) 전방 수요 증가와 더불어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22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5,914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Gartner, '21.12월)
- '22년 반도체 시장은 비대면 및 신규 수요 확대 등에 따른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10%대에 가까운 성장률로 '20년 이후 3년 연속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메모리 반도체 : 1,955억 달러, 17.3%↑) 상반기 공급 증가량이 수요 증가량을 상회하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나 DDR5 전환에 따른 D램 및 데이터 센터 투자 등 서버용 제품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두 자릿수의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
- (비메모리 반도체 : 4,431억 달러, 6.3%↑) 하반기 공급 부족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및 자율주행·전기차 등 차량용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그림 1-1 전체 및 품목별 반도체 시장 전망



자료 : Gartner, 20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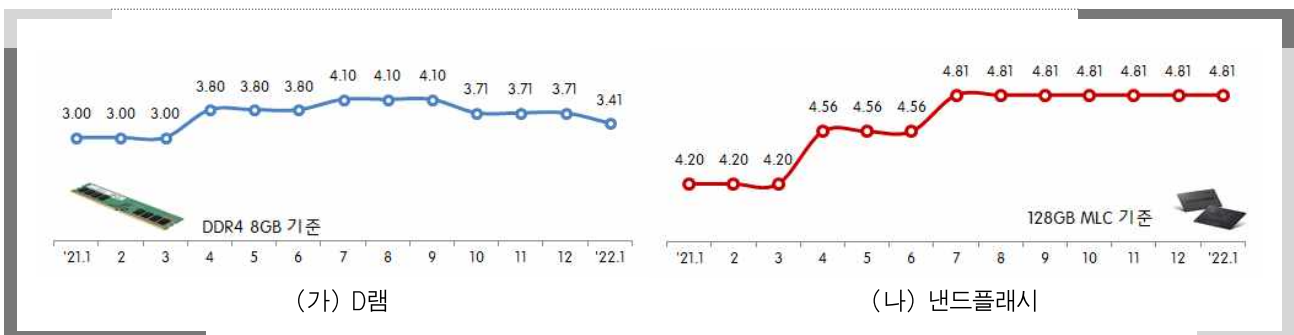
□ '22.1월 메모리 가격은 하락 및 보합세를 기록했으나 향후 상승세로 반등이 기대

- (고정거래가격) 낸드플래시는 보합세를 지속한 반면 D램은 수요 업체의 충분한 재고 확보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 다만 일부 기업의 공급 중단 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전망
- (D램) PC용 제품인 DDR4 8GB의 '22.1월 고정거래 가격은 3.41달러로, 전월 대비 8.09% 하락. 다만 고정거래가격의 선행지표인 현물 가격이 '22.2월 약 4달러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D램 약세 국면이 예상보다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 ※ '22.2.11일 기준 D램 현물가격은 3.849달러로 3개월간 상승세를 지속

- (낸드플래시) 메모리카드 및 USB 등에 활용되는 MLC 128GB의 고정거래가격은 4.81달러로 '21.7월 5.48% 인상된 후 7개월 연속 보합세를 지속
- 다만 '22.2분기 가격은 당초 낸드플래시 공급 증가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공장 가동 중단이 변수로 발생하면서 5~10%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참고)** 웨스턴디지털은 키옥시아와 공동 운영하는 반도체 생산 라인 가동을 '22.2.9일 중단
 - 웨스턴디지털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 투입돼 미에현 요카이치시와 이와테현 기타카미시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 제조 공정의 전반부에서 원재료 오염에 따라 제품 불량 발생으로 분석
 - 따라서 공정 수율을 정상화하려면 제품 생산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 생산을 중단한 웨스턴디지털과 키옥시아의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글로벌 낸드플래시 분기 생산량의 약 8%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그림 1-2 |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 추이



자료 : Dramexchange, 고정거래가격, 2022.1.

□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M&A 증가 속, 국가 간 견제 움직임도 확대

- 인텔이 '22.2.15일 이스라엘 반도체 회사 '타워 세미컨덕터2)'를 54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
 - 인텔은 당초 타워 세미컨덕터를 6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으나 협상 등을 통해 54억 달러에 최종 인수하기로 결정. 특히 이번 인수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 등 생산 제품군을 다양화할 전망
 - ※ 인텔의 생산시설은 주로 22nm~7nm 공정까지 첨단 미세 공정에 집중돼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차량용 반도체 및 산업용 반도체 생산에는 부적합했으나 1000nm에서 22nm까지 생산 가능한 시설을 갖춘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로 다양한 생산 라인업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 이번 인수 절차는 타워 세미컨덕터의 기존 주주 동의와 각국 관련 당국의 승인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최장 1년 내 절차가 마무리되며 승인 절차 완료 이후 양사 통합이 진행될 예정

2) 타워 세미컨덕터는 자동차와 의료용 기기, 산업용 장비와 일반 소비자용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와 회로를 공급하는 회사로 이스라엘과 미국 캘리포니아·텍사스,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CMOS 센서와 아날로그 신호 처리용 반도체 등을 생산

- 한편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각국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무산되는 등 최근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M&A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
 - 소프트뱅크가 반도체설계 지적재산권 기업인 ARM을 주요 그래픽칩 기업인 엔비디아에 660억 달러에 매각하려 했던 대규모 M&A가 각국 규제당국의 반대로 결국 무산('22.2.7일)
 - 엔비디아가 전 세계 모바일용 시스템온칩(Soc) 설계 지적재산권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ARM을 인수할 경우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국·영국·EU 등 관련 당국이 모두 반대
 - 반도체를 둘러싼 각국의 패권 경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M&A에 따른 기술 및 생산능력 유출 우려로 경쟁 당국의 승인 결정이 신중해졌으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승인 반대 사례도 확대
 - 다만 지난해 반도체 시장 호황에 따른 호실적을 달성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충분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M&A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

표 1-3 | 최근 반도체 업계 M&A 성공 및 실패 사례

| 인수 기업 | 피인수 기업 | 규모 | 단계 | 특징 | 인수 기업 | 피인수 기업 | 특징 |
|------------|-------------------|-----------------|-----------------------|---------------------------------|------------|-----------|--|
| SK 하이닉스 | 인텔 낸드사업부 | 90억 달러 | 규제 당국 승인, 1차 대금 지급 | • 낸드 생산 능력 확대와 기업용 SSD 역량 강화 | 엔비디아 | ARM | •글로벌 AP등 반도체 설계자산 확보 |
| | 키파운드리 | 5,758억 원 | 국가별 당국 승인절차 | •8인치 파운드리 생산 능력 확대 | | | •미국 영국·EU 등 주요국 불허 요구, 주요 기업 부정적인 의견 |
| AMD | 자일링스 | 500억 달러 | 완료 | •FPGA 역량 확대 | 웨스턴 디지털 | 키옥시아 | •낸드 시장경쟁력 확보 |
| ADI | 맥심 인터그레이 티드 | 200억 달러 | 완료 | •차량용 반도체 제품군 확보 | | | •중국 당국 반대 |
| 르네사스 | 셀레노 | 3억 1,500만 달러 | 완료 | •통신 반도체 역량 확대 | 퀄컴 | NXP | •차량용 반도체 사업 추가 확보 |
| | 다이얼로그 | 60억 달러 | 완료 | •전력반도체 역량 확대 | | | •중국 인수 마감 시한 까지 불허 결정 |

(가) 성공 사례

(나) 실패 사례

자료 : 전자신문 재인용, 2022.2.

2) 수출 동향

□ 메모리 및 시스템 동반 성장으로 '22.1월 반도체 수출은 9개월 간 100억 달러대 지속

- **(품목별)** 비대면 환경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모두 선전하며 '22.1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1% 증가한 108.9억 달러로 9개월 연속 100억 달러대를 유지했으며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 (메모리 반도체 : 64.8억 달러, 21.9% ↑)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컴퓨터, 모바일 및 서버 등 반도체 수요 증가로 메모리 MCP, D램 등을 중심으로 선전하며 17개월 연속 호조세를 지속
 - (시스템 반도체 : 38.7억 달러, 33.0% ↑) 파운드리·패키징 등 전반적인 수요 증가로 '21.5월 이후 9개월 연속 30억 달러대를 기록하는 동시에 역대 3번째 높은 실적을 달성
- ※ 시스템 반도체 역대 상위 수출(억 달러) : (1위 '21.11월) 39.0, (2위 '21.12월) 38.9, (3위 '22.1월) 38.7

- **(지역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국내 업체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 등 주요 지역 수출이 증가
 - 중국(홍콩 포함, 62.8억 달러, 24.3%↑)은 시스템 반도체(41.6%↑)와 D램, 메모리 MCP 등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19.7%↑)가 동반 성장하면서 17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베트남(13.9억 달러, 29.5%↑)은 시스템 반도체(△10.7%) 부진에도 불구하고 D램, 메모리 MCP 등 메모리 반도체(120.0%↑)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3번째 높은 실적을 기록

표 1-4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 '21.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2.1 |
|----------|----------------|----------------|----------------|----------------|-----------------|-----------------|-----------------|-----------------|-----------------|-----------------|-----------------|-----------------|-----------------|
| 반도체 | 87.8 (20.4) | 84.4 (12.5) | 95.7 (7.9) | 94.0 (29.4) | 101.1 (23.9) | 112.3 (34.3) | 110.3 (38.6) | 117.6 (41.8) | 122.3 (27.4) | 112.3 (28.4) | 120.9 (39.5) | 128.4 (34.5) | 108.9 (24.1) |
| 메모리 | 53.2 (24.9) | 52.2 (12.6) | 61.2 (8.2) | 59.3 (18.9) | 65.7 (13.6) | 75.4 (30.7) | 71.4 (43.8) | 76.4 (50.6) | 79.5 (28.6) | 69.5 (28.1) | 76.4 (47.3) | 84.1 (40.3) | 64.8 (21.9) |
| D램 | 23.8 (19.8) | 22.7 (5.6) | 26.9 (1.3) | 28.7 (5.1) | 29.0 (2.2) | 33.7 (14.3) | 35.2 (39.8) | 37.6 (55.1) | 37.8 (28.7) | 35.6 (41.1) | 37.1 (56.1) | 41.3 (64.6) | 32.0 (34.3) |
| 낸드 | 4.9 (△13.5) | 4.6 (△7.4) | 4.4 (△9.7) | 4.9 (△7.7) | 5.9 (22.9) | 6.0 (24.0) | 4.9 (0.5) | 5.7 (12.5) | 6.6 (13.0) | 6.3 (25.5) | 6.2 (24.0) | 6.4 (△5.8) | 5.2 (6.8) |
| 메모리 MCP | 20.7 (59.5) | 21.4 (41.7) | 25.4 (26.0) | 22.0 (52.2) | 27.3 (28.9) | 32.1 (68.5) | 27.1 (72.2) | 28.2 (58.9) | 30.3 (34.3) | 23.5 (19.8) | 30.2 (57.6) | 31.3 (31.3) | 24.1 (16.4) |
| 메모리 MCOs | 3.6 (△9.1) | 3.3 (△28.9) | 4.3 (△10.9) | 3.6 (28.4) | 3.4 (△1.7) | 3.5 (△17.6) | 4.0 (8.4) | 4.7 (32.9) | 4.7 (19.4) | 3.9 (△7.3) | 2.8 (△26.9) | 4.9 (21.9) | 3.4 (△6.4) |
| 시스템 반도체 | 29.1 (15.9) | 27.0 (13.2) | 29.0 (9.3) | 29.3 (59.0) | 30.2 (55.7) | 31.3 (46.5) | 33.4 (35.8) | 35.6 (31.2) | 37.5 (31.7) | 37.3 (32.3) | 39.0 (31.1) | 38.9 (30.1) | 38.7 (33.0) |
| 개별 소자 | 1.5 (30.2) | 1.4 (10.5) | 1.5 (12.7) | 1.5 (34.7) | 1.4 (29.4) | 1.5 (22.0) | 1.6 (13.7) | 1.5 (19.5) | 1.5 (2.4) | 1.5 (4.1) | 1.5 (△3.0) | 1.5 (△1.3) | 1.4 (△4.0) |
| 광전 소자 | 2.8 (△12.5) | 2.6 (△0.7) | 2.7 (△9.1) | 2.6 (24.4) | 2.5 (13.2) | 2.7 (23.8) | 2.5 (△11.9) | 2.6 (△2.4) | 2.4 (△19.5) | 2.5 (3.9) | 2.4 (4.8) | 2.5 (△14.7) | 2.4 (△13.4) |

자료 : IITP, KTSPI

그림 1-3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5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 2020년 연간 | | | | 2021년 연간 | | | | 2022년 1월 | | | |
|----|----------|-------|-------|------|----------|-------|------|------|----------|------|-------|------|
| 순위 | 국가 | 금액 | 증감률 | 비중 | 국가 | 금액 | 증감률 | 비중 | 국가 | 금액 | 증감률 | 비중 |
| 1 | 중국 | 399.1 | 6.9 | 39.8 | 중국 | 502.5 | 25.9 | 39.0 | 중국 | 46.1 | 35.2 | 42.4 |
| 2 | 홍콩 | 207.4 | -7.0 | 20.7 | 홍콩 | 265.9 | 28.2 | 20.7 | 홍콩 | 16.7 | 1.7 | 15.3 |
| 3 | 베트남 | 115.1 | 7.0 | 11.5 | 베트남 | 140.3 | 21.9 | 10.9 | 베트남 | 13.9 | 29.5 | 12.8 |
| 4 | 미국 | 80.7 | 25.8 | 8.1 | 대만 | 107.0 | 67.9 | 8.3 | 대만 | 9.1 | 25.2 | 8.3 |
| 5 | 대만 | 63.7 | 43.2 | 6.4 | 미국 | 95.2 | 18.0 | 7.4 | 미국 | 6.0 | -15.6 | 5.5 |
| 6 | 필리핀 | 29.0 | 1.1 | 2.9 | 싱가포르 | 38.3 | 48.5 | 3.0 | 싱가포르 | 4.2 | 98.8 | 3.8 |
| 7 | 싱가포르 | 25.8 | 11.4 | 2.6 | 필리핀 | 38.0 | 31.0 | 2.9 | 필리핀 | 3.6 | 52.6 | 3.3 |
| 8 | 말레이시아 | 13.5 | 3.3 | 1.3 | 말레이시아 | 16.5 | 22.7 | 1.3 | 인도 | 1.8 | 42.6 | 1.7 |
| 9 | 일본 | 10.8 | -16.9 | 1.1 | 일본 | 13.9 | 28.9 | 1.1 | 말레이시아 | 1.4 | 9.2 | 1.2 |
| 10 | 인도 | 10.7 | -26.8 | 1.1 | 인도 | 12.6 | 18.0 | 1.0 | 일본 | 1.0 | 4.4 | 0.9 |

자료 : IITP, KTSPI

3 디스플레이 패널

1) 수출 환경

□ OLED TV 시장의 본격 개화 등으로 글로벌 OLED 패널 시장은 성장세가 뚜렷

- (시장 전망) 삼성디스플레이의 시장 참여로 대형 OLED 패널 시장은 성장 가속 기대
 - (대형 패널) '22년 TV용 LCD 패널 시장(2억 5,400만 대, △2%)은 글로벌 업체들의 가격 하락 대응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패널 생산량 축소 조절 등으로 반락할 전망(한국경제, 2.13일, 원소스 OMDIA)
 - ※ TV용 LCD 패널 가격은 '21.3분기부터 빚어진 공급 과잉으로 '22.1월 전년 대비 20~44% 급감
 - 반면 TV용 OLED 패널 시장(1,000만 대, 25%↑)은 전방 산업의 판매 호조, QD-OLED 양산을 시작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시장 합류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중소형 패널) 노트북, 태블릿PC 등 IT기기의 OLED 패널 채용 확대, 폴더블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중소형 생태계가 점차 빠르게 전환(LCD→OLED)됨에 따라 올해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은 긍정적 흐름을 보일 전망
- (4분기 실적) LCD 판가 하락, OLED 판매 호조 등으로 국내 양사의 실적은 희비 교차
 - (삼성디스플레이) 중소형 사업은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 견조, 신규 판매처 확대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대형 부문에서 TV용 QD-OLED 패널 양산 시작에 따른 초기 비용 발생, LCD 가격 하락 등으로 매출액(9.06조 원, △9%), 영업이익(1.32조 원, △24.6%) 모두 적자 기록
 - ※ 다만 '21년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31.7조 원, 3.7%↑)과 영업이익(4.5조 원, 99.1%↑)이 모두 증가
 - (LG디스플레이) TV용 OLED 패널의 대형화, 중소형 OLED 사업 강화, IT기기를 중심으로 한 LCD 구조 혁신 등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액(8.8조 원, 18%↑)을 달성하며 영업이익(4,764억 원, 29.7%↑)도 성장 기록

그림 1-4 | 글로벌 OLED 패널 시장 전망 및 TV용 LCD 패널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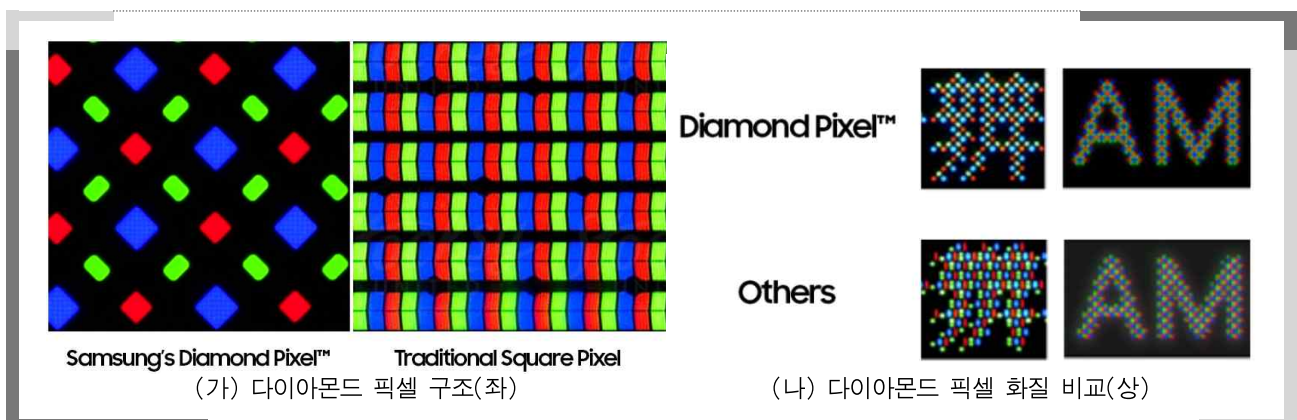


자료 : 파이낸셜뉴스, 2022.1.(원소스 DSCC) / OMDIA, 2022.1.

□ 국내 업체는 LCD 생산을 본격 축소하면서 OLED 패널 시장 지배력 강화에 만전

- 글로벌 업체들은 LCD 패널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축소·중단 전략을 전개
 - (국내 업체) LCD 패널 철수시기를 '22.2분기로 앞당긴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TV용 LCD 패널 생산을 400만 대(△44.4%)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 이는 패널 상위 업체 중 가장 큰 폭인 것으로 관측되며 이어 LG디스플레이도 12.6% 축소한 1,800만 대 생산에 그칠 것으로 추산
 - (중국 업체) BOE는 '22년 전년 대비 1.3% 감소한 6,000만 대의 TV용 LCD 패널을 생산을 목표로 제시하며 허베이성 우한 10.5세대 공장 신설 계획도 잠정 중단. 차이나스타도 8.5세대, 10.5세대 LCD 생산 라인 증설 일정을 보류
- 국내 업체들은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OLED 패널 기술 개선 및 보안 강화 등에 집중
 - (삼성디스플레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OLED 핵심 기술 '다이아몬드 픽셀', '에코스퀘어 OLED' 등을 직접 소개하기 위해 유튜브, 웨이보에 영상 형태로 게시
 - ※ '다이아몬드 픽셀'은 인간 망막이 R·G·B 중 녹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 착안해 녹색 소자 수를 2배로 늘리고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화소를 배열한 픽셀 구조, '에코스퀘어 OLED(Eco²OLED)'는 OLED의 핵심 소재인 편광판 대신 외광 반사를 막아주는 패널 적층 구조를 개발해 빛 투과율 33% 향상, 패널 소비전력 최대 25% 절약이 가능. 삼성디스플레이가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무편광 저전력 기술
 - 이러한 OLED 패널 관련 원천 기술을 스스로 적극 공개·홍보한 근간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고유 기술 지적재산권(IP) 보호 강화, 中 경쟁 업체의 기술 도용 방지 등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풀이
 - (LG디스플레이) 기존 OLED 대비 화면 밝기를 30% 개선한 'OLED.EX' 패널을 본격 양산해 '22.2분기 부터 OLED TV 패널 전 시리즈에 적용할 예정. 대형 OLED 패널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
 - ※ 한편 최근 애플 관계자와 차기 출시되는 아이폰, 아이패드용 패널 공급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애플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형 OLED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

그림 1-5 | 다이아몬드 픽셀 특징



자료 : 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2) 수출 동향

□ '22.1월 디스플레이 수출은 OLED 패널을 주축으로 13.3% 증가한 23.5억 달러 형성

- (품목별) OLED·부분품 수출 호조, LCD 패널 반등 영향으로 17개월 연속 우상향
 - (LCD 패널 : 5.4억 달러, 1.7%↑) 국내 업체의 LCD 패널 생산 감축, LCD 패널 가격 하락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프리미엄 TV 판매 호조 등으로 반등, 4개월 연속 5억 달러 대 유지
 - (OLED 패널 : 14.0억 달러, 14.4%↑) 스마트폰·TV용 OLED 패널 채용 증가, IT기기·전장용·VR 기기로의 판매처 확대 등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우호적인 수출 환경이 지속
 - (부분품 : 4.1억 달러, 28.1%↑)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인 편광판(2.6억 달러, 15.9%↑) 수출 호조 등으로 '08.11월(4.9억 달러, △12.7%) 이후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며 4억 달러대를 돌파해 눈길
- (지역별) 주요 교역국 수출은 OLED 패널과 부분품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 지속
 - 베트남(12.1억 달러, 6.7%↑)은 LCD 패널(0.8억 달러, △23.8%)과 부분품(0.5억 달러, △4.0%)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스마트폰용 등 OLED 패널(10.8억 달러, 10.7%↑) 수요 증가로 반등
 - 중국(홍콩 포함, 9.9억 달러, 20.4%↑)은 LCD 패널(4.1억 달러, 9.3%↑) 반등, OLED(2.8억 달러, 16.7%↑)·부분품(3.1억 달러, 44.1%↑)의 호조세로 크게 성장하며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실적 기록
 - 멕시코(0.3억 달러, 83.7%↑)는 LCD 패널(0.1억 달러, 54.6%↑)의 수요 견조, OLED 패널(0.1억 달러, 1,369.4%↑)의 가파른 성장세, 부분품(0.1억 달러, 44.5%↑)의 성장 전환 등으로 6개월 연속 상승 곡선

표 1-6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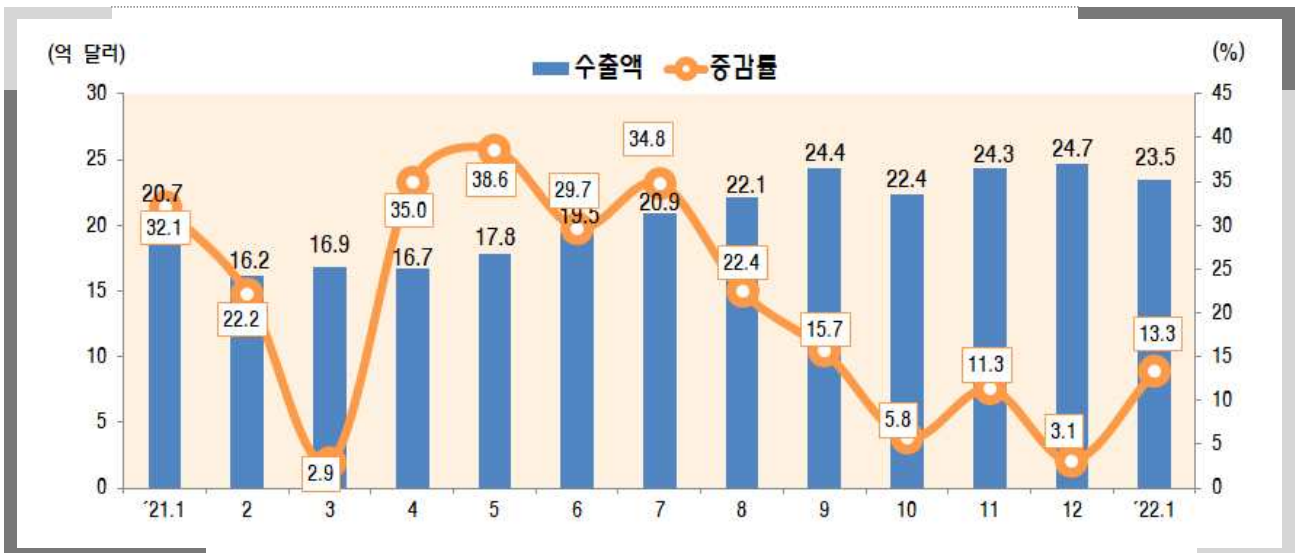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 '21.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2.1 |
|------|----------------|----------------|---------------|----------------|----------------|----------------|----------------|----------------|----------------|---------------|----------------|---------------|----------------|
| 패널 | 20.7 (32.1) | 16.2 (22.2) | 16.9 (2.9) | 16.7 (35.0) | 17.8 (38.6) | 19.5 (29.7) | 20.9 (34.8) | 22.1 (22.4) | 24.4 (15.7) | 22.4 (5.8) | 24.3 (11.3) | 24.7 (3.1) | 23.5 (13.3) |
| LCD | 5.3 (10.5) | 4.5 (4.6) | 4.9 (△8.5) | 5.0 (12.9) | 4.8 (7.0) | 4.7 (△2.9) | 5.2 (△5.4) | 4.8 (△7.1) | 4.9 (△11.3) | 5.1 (△3.7) | 5.5 (2.3) | 5.6 (△8.3) | 5.4 (1.7) |
| OLED | 12.2 (52.1) | 8.4 (32.9) | 8.4 (8.5) | 8.4 (57.5) | 9.7 (64.1) | 11.2 (61.2) | 12.2 (89.6) | 14.0 (47.3) | 16.2 (33.1) | 13.9 (8.7) | 15.3 (14.0) | 15.3 (6.2) | 14.0 (14.4) |
| 부분품 | 3.2 (12.3) | 3.3 (25.7) | 3.6 (8.7) | 3.3 (25.8) | 3.3 (34.6) | 3.6 (11.1) | 3.6 (△1.4) | 3.3 (△2.2) | 3.3 (△2.9) | 3.3 (10.0) | 3.5 (15.7) | 3.7 (10.6) | 4.1 (28.1) |

자료 : IITP, KTSPI



그림 1-6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7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 2020년 연간 | | | | 2021년 연간 | | | | 2022년 1월 | | | |
|----|----------|-------|-------|------|----------|-------|-------|------|----------|------|-------|------|
| 순위 | 국가 | 금액 | 증감률 | 비중 | 국가 | 금액 | 증감률 | 비중 | 국가 | 금액 | 증감률 | 비중 |
| 1 | 베트남 | 101.2 | 21.7 | 48.9 | 베트남 | 125.3 | 23.8 | 50.8 | 베트남 | 12.1 | 6.7 | 51.7 |
| 2 | 중국 | 88.5 | -18.8 | 42.7 | 중국 | 102.1 | 15.4 | 41.4 | 중국 | 9.2 | 17.2 | 39.4 |
| 3 | 홍콩 | 3.9 | -18.8 | 1.9 | 홍콩 | 5.1 | 31.9 | 2.1 | 홍콩 | 0.7 | 85.3 | 3.0 |
| 4 | 미국 | 2.2 | -3.4 | 1.1 | 멕시코 | 2.6 | 26.7 | 1.0 | 멕시코 | 0.3 | 83.7 | 1.2 |
| 5 | 멕시코 | 2.0 | -37.5 | 1.0 | 미국 | 2.2 | 0.6 | 0.9 | 인도 | 0.2 | 156.8 | 0.9 |
| 6 | 일본 | 1.3 | -47.4 | 0.6 | 인도 | 1.1 | 50.4 | 0.5 | 미국 | 0.1 | -32.4 | 0.5 |
| 7 | 인도 | 0.7 | -12.4 | 0.4 | 일본 | 1.0 | -22.7 | 0.4 | 일본 | 0.1 | 27.5 | 0.5 |
| 8 | 폴란드 | 0.7 | -67.0 | 0.4 | 헝가리 | 0.8 | 42.1 | 0.3 | 헝가리 | 0.1 | 40.4 | 0.4 |
| 9 | 대만 | 0.7 | -24.6 | 0.3 | 대만 | 0.6 | -7.8 | 0.3 | 대만 | 0.1 | -2.9 | 0.2 |
| 10 | 헝가리 | 0.6 | 3.5 | 0.3 | 폴란드 | 0.6 | -15.6 | 0.2 | 말레이시아 | 0.1 | 182.1 | 0.2 |

자료 : IITP, KTSPI

4 휴대폰

1) 수출 환경

□ '21년 스마트폰 시장은 회복세로 반등한 가운데 선두 업체 간 경쟁은 심화되는 양상

- (전체) '21.4분기 스마트폰 시장은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연간으로는 4.5%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17년 이후 4년 만에 성장세로 전환(SA, '22.1월)
 - 코로나19 확산 등 '20년 시장 위축에 대한 기저효과로 상반기 빠른 회복세와 더불어 폴더블 폰·5G폰 등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21년 출하량은 13억 5,840만 대로 전년 대비 4.5% 증가
 - ※ '21년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710만 대로 전년 대비 264.3%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년부터 연평균 69.9% 증가하며 '25년에는 2,76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IDC, '22.2월)
 - 다만 '21.4분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3억 6,490만 대를 기록하는 등 하반기 부분품(반도체 등) 공급 지연에 따른 스마트폰 생산이 제한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19년 수준(14억 1,260만 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
 - 지역별로는 중동/아프리카가 연간 두 자릿수의 성장세로 전체 시장 성장을 견인했으며 동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등도 회복. 다만 4분기에는 중동/아프리카·북미를 제외한 서유럽·아시아·태평양·중남미 등 지역의 증감률이 정체 및 감소
 - ※ '21년 지역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감률(전년 대비, SA) : (중동/아프리카) 15.3%↑, (서유럽) 5.9%↑, (북미) 5.3%↑, (아시아/태평양) 3.1%↑, (중남미) 2.6%↑, (동유럽) △1.6%
 - '22년에는 부품 품귀 현상, 제품 가격 인상, 코로나19 불확실성 등이 상반기까지 지속되나, 하반기 이 같은 상황이 점차 안정되면서 연간 출하량은 3~5% 증가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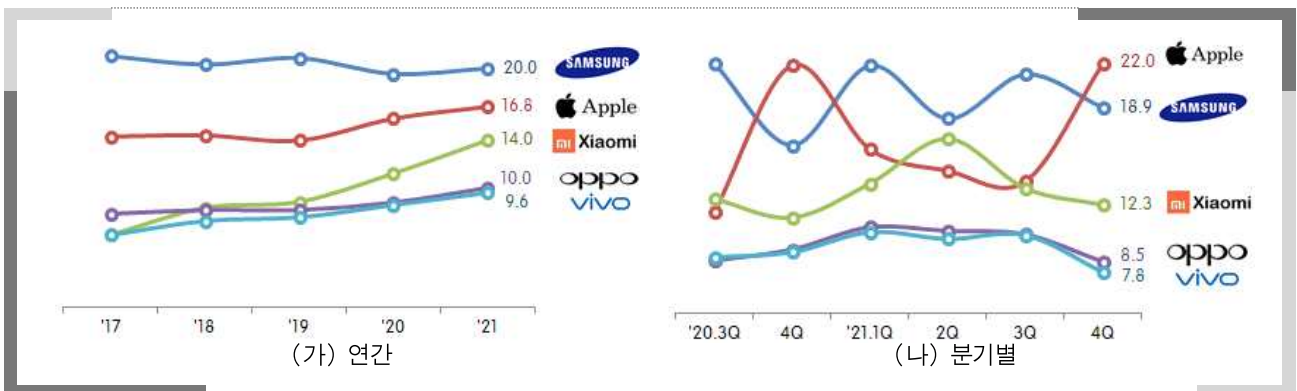
그림 1-7 | 연간 및 분기별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자료 : SA, 2022.1.

- (업체별) '21년에는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선전에 힘입어 1위를 수성했으나 4분기에는 애플에 선두를 자리를 내주는 등 상위 업체 간 격차는 축소되는 양상(SA, '22.1월)
 - (삼성전자) 연간 기준 시장 점유율 20.0%를 기록하며 1위를 수성했으나 '21.4분기 애플에 선두를 내주면서 2위로 하락. 다만 '갤럭시Z 플립3'·'갤럭시Z 폴드3' 등 혁신적인 모델의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6,900만 대의 출하량으로 상위 업체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달성
 - (애플) '21.4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으나 신제품 '아이폰 13시리즈'가 중국 등에서 선전하면서 시장 점유율 22.0%로 1위에 등극했으며 연간 2억 2,840만 대를 출하하며 시장 점유율 16.8%로 2위 자리를 유지
 - (샤오미) 3위를 달성한 샤오미는 연간 출하량 1억 9,030만 대로 전년 대비 30.6% 증가하며 상위 업체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달성. 특히 화웨이·LG전자 등의 스마트폰 사업 종료로 가장 큰 수혜를 입으면서 점유율 14.0%로 선두 업체를 빠르게 추격

그림 1-8 연간 및 분기별 상위 업체 스마트폰 점유율 추이



자료 : SA, 2022.1.

□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 애플 '아이폰SE 3' 등 출시로 상반기 대전이 개막

- 삼성전자는 '22.2.10일 온라인으로 '삼성 갤럭시 언팩 2022' 행사를 개최하고 혁신적인 카메라 성능, S펜 등의 기능을 갖춘 '갤럭시S22 시리즈' 3종을 공개
 -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S22 시리즈'는 '갤럭시S22'(6.1형)·'갤럭시S22+'(6.6형)·'갤럭시S22 울트라'(6.8형) 등 세 가지 모델로 '22.2.25일 글로벌 시장에 공식 출시하면서 선점효과를 도모. 특히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S22 울트라'는 과거 '갤럭시노트' 시리즈에 탑재되던 S펜을 내장해 주목
 - ※ '갤럭시S22 시리즈'는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 플러스 강화유리'·'아머 알루미늄' 등을 채용해 내구성을 강화했으며 디스플레이에 '비전 부스터' 기술을 적용하며 선명한 화질을 지원. 또한 확대된 이미지센서와 AI 기술로 야간에도 선명한 이미지를 찍는 '나이트그래피' 등 카메라 기능이 강화
 - 한편 당초 '갤럭시S22' 시리즈의 출고가가 원자재 가격 인상, 환율 상승,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전작 대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동결 또는 소폭 인하돼 가격적인 이점을 확보

- ※ 전작인 ‘갤럭시S21 시리즈’의 가격은 최저(갤럭시S21) 99만 9,900원~최고(갤럭시S21 울트라) 159만 9,400원
- ‘갤럭시S22 시리즈’의 ’22년 판매량은 2,700~2,900만 대 수준으로 전작인 ‘갤럭시S21’ 시리즈의 ’21년 판매량을 11%~15%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이투자증권, ’22.2월)
- 한편 애플이 ’22.3.8일 예정된 온라인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중저가 제품인 ‘아이폰SE’의 신 모델을 공개하며 상반기 5G 스마트폰 경쟁은 본격화될 전망
- 신제품 ‘아이폰SE 3’는 ’20.4월 출시된 전작 ‘아이폰SE 2’와 비슷한 디자인, 출고가 약 50만 원대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G 지원 및 프로세서와 카메라 성능이 개선될 전망

표 1-8 | 삼성전자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주요 사양

| 모델명 | 갤럭시S22 | 갤럭시S22+ | 갤럭시S22 울트라 |
|-------|---|---|--|
| 제품 사진 |  |  |  |
| 디스플레이 | 6.1인치, 1080x2340, 422ppi | 6.6인치, 1080x2340, 390ppi | 6.8인치, 1440x3080, 500ppi |
| AP | 삼성 엑시노스 2200 /퀄컴 스냅드래곤 8 Gen1 | | |
| 카메라 | 후면: 트리플 50MP(광각) + 10MP(망원) + 12MP(초광각) 전면: 10MP, AF | | 후면: 쿼드 108MP(광각) + 12MP(초광각) + 10MP(10배 줌 망원) + 10MP(3배 줌 망원) 전면 : 40MP, AF |
| 출고가 | 99만 9,900원 | 119만 9,000원 | 256GB : 145만 2,000원 512GB : 155만 1,000원 |
| 기타 | 방수·방진 IP68 지원 | | 방수·방진 IP68 지원, S펜 내장 |

자료 : 삼성전자, 언론 자료 재인용

□ 삼성전자, 공급망 위험 등을 고려해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 라인 일부를 구미로 이전

- 삼성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22.2월 스마트폰 생산 라인 일부를 국내 구미공장으로 이전하기로 결정
- 삼성전자는 낮은 원가와 해외 현지 수요 대응 전략 등의 이유로 자사 생산 물량의 과반을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해 생산해 왔으나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 ’21.하반기 베트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이 발생
 - ※ 삼성전자는 연간 스마트폰 생산량 약 3억 대 중 약 6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이 외에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서 생산 라인을 운영
- 이에 삼성전자는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 중간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사 생산 라인 일부를 국내 구미공장으로 이전했으며 특히 ’22.2.25일 출시되는 신제품 ‘갤럭시S22 시리즈’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비한 행보로 분석
 - ※ 다만 이번 이전이 스마트폰 생산 물량 증가 또는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은 아니라고 강조

2) 수출 동향

□ 부분품 증가에도 완제품이 하락하면서 '22.1월 휴대폰 수출은 감소세로 전환

- (품목별) '22.1월 휴대폰 수출은 부분품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기 수요에 따른 완제품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2.9% 감소한 10.4억 달러를 기록
 - (휴대폰 완제품 : 1.3억 달러, $\Delta 67.1\%$) 주요 스마트폰 업체의 상반기 신제품 출시(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 '22.2.25일 출시 등)에 따른 대기 수요 등으로 수출은 두 자릿수의 감소세로 전환
 - (휴대폰 부분품³⁾ : 9.1억 달러, 12.6%↑) 카메라 모듈, RFIC, MLCC 등이 감소했으나 3D 센싱 모듈 등 고부가가치 부분품 수요 증가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7개월 연속 성장세 달성
 - ※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 : 중국(홍콩 포함, 6.9억 달러, 59.5%↑), 인도(0.03억 달러, $\Delta 21.9\%$), 베트남(1.1억 달러, $\Delta 61.4\%$)
- (지역별) 미국·베트남은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중국(홍콩 포함) 등은 증가세 지속
 - 중국(홍콩 포함, 7.0억 달러, 54.8%↑)은 완제품($\Delta 51.4\%$)이 하락했으나 카메라 모듈, 3D 센싱 모듈 등 부분품(59.5%↑)이 늘어나면서 16개월 연속 성장세를 지속
 - 베트남(1.1억 달러, $\Delta 61.3\%$)은 카메라 모듈, RFIC, MLCC 등 관련 부분품($\Delta 61.4\%$)과 완제품($\Delta 51.0\%$)이 동반 하락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미국(0.9억 달러, $\Delta 69.7\%$)은 부분품(105.0%)이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심화되는 시장 내 경쟁 속 상반기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 등으로 완제품($\Delta 81.4\%$)이 감소하며 '21.9월 이후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하락세를 지속

표 1-9 | 휴대폰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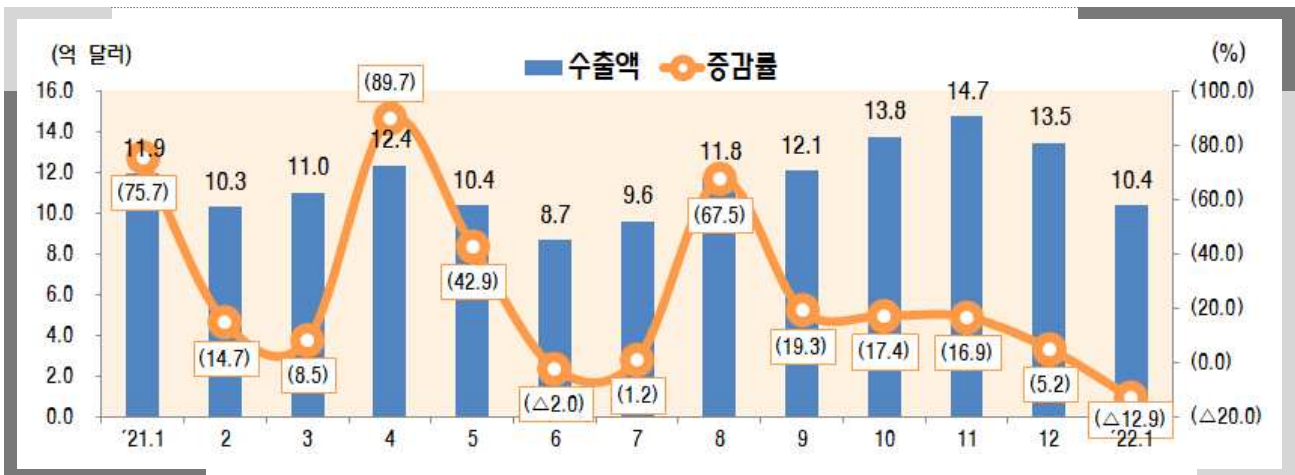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 '21.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2.1 |
|-----------|----------------|----------------|-------------------------|----------------|----------------|-------------------------|--------------|----------------|----------------|----------------|----------------|---------------|---------------------------|
| 휴대 단말기 | 11.9 (75.7) | 10.3 (14.7) | 11.0 (8.5) | 12.4 (89.7) | 10.4 (42.9) | 8.7 ($\Delta 2.0$) | 9.6 (1.2) | 11.8 (67.5) | 12.1 (19.3) | 13.8 (17.4) | 14.7 (16.9) | 13.5 (5.2) | 10.4 ($\Delta 12.9$) |
| 완제품 | 3.8 (87.4) | 4.3 (5.2) | 4.4 ($\Delta 9.6$) | 5.7 (89.4) | 4.1 (20.7) | 3.9 (5.5) | 3.9 (0.6) | 3.9 (99.2) | 3.3 (0.8) | 4.0 (8.9) | 4.3 (6.4) | 3.7 (18.4) | 1.3 ($\Delta 67.1$) |
| 부분품 | 8.1 (70.7) | 6.0 (22.9) | 6.6 (25.0) | 6.7 (90.0) | 6.2 (62.7) | 4.8 ($\Delta 7.3$) | 5.7 (1.6) | 7.9 (55.2) | 8.8 (28.1) | 9.7 (21.2) | 10.4 (21.8) | 9.8 (0.9) | 9.1 (12.6) |

자료 : IITP, KTSPI

3) HSK 코드 추가 및 조정으로 '22.1월 휴대폰 부분품 수출은 2.6억 달러가 추가 집계

그림 1-9 |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0 |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 2020년 연간 | | | | 2021년 연간 | | | | 2022년 1월 | | | |
|----|----------|------|-------|------|----------|------|-------|------|----------|-----|--------|------|
| 순위 | 국가 | 금액 | 증감률 | 비중 | 국가 | 금액 | 증감률 | 비중 | 국가 | 금액 | 증감률 | 비중 |
| 1 | 베트남 | 31.9 | 15.9 | 28.4 | 중국 | 49.6 | 70.4 | 35.4 | 중국 | 6.9 | 63.5 | 66.6 |
| 2 | 중국 | 29.1 | 7.0 | 25.9 | 베트남 | 29.4 | -7.9 | 21.0 | 베트남 | 1.1 | -61.3 | 10.6 |
| 3 | 미국 | 25.0 | -30.4 | 22.2 | 미국 | 24.5 | -2.0 | 17.5 | 미국 | 0.9 | -69.7 | 8.4 |
| 4 | 영국 | 3.9 | 218.5 | 3.5 | 영국 | 5.3 | 36.6 | 3.8 | 대만 | 0.4 | 1907.5 | 3.7 |
| 5 | 홍콩 | 3.8 | 8.8 | 3.3 | 독일 | 4.8 | 76.4 | 3.4 | 캐나다 | 0.2 | 41.9 | 2.3 |
| 6 | 독일 | 2.7 | -7.8 | 2.4 | 홍콩 | 3.8 | 0.1 | 2.7 | 일본 | 0.1 | -30.9 | 1.4 |
| 7 | 일본 | 2.0 | 18.2 | 1.8 | 인도 | 3.3 | 192.3 | 2.4 | 인도 | 0.1 | 2.7 | 1.3 |
| 8 | 캐나다 | 1.9 | -57.0 | 1.7 | 일본 | 2.2 | 9.1 | 1.6 | 홍콩 | 0.1 | -68.6 | 0.9 |
| 9 | 브라질 | 1.3 | 33.2 | 1.1 | 프랑스 | 2.0 | 149.6 | 1.4 | 싱가포르 | 0.1 | 329.5 | 0.8 |
| 10 | 인도 | 1.1 | 25.9 | 1.0 | 오스트리아 | 1.9 | 467.0 | 1.4 | UAE | 0.1 | -17.8 | 0.6 |

자료 : IITP, KTSPI

1) 수출 환경

□ 지난해 TV 시장은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OLED TV 시장은 홀로 상승 곡선을 유지

- (시장 규모) '21년 TV 시장은 하반기 수요 둔화 등으로 역성장(2억 1,354만 대, Δ 5.3%)
 - '20년(1.1%↑) 글로벌 TV 시장은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성장세를 보였으나 '21년은 하반기 백신 보급 확대 등으로 TV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하락세로 전환
 - ※ '21년 TV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193만 대가 감소했으며 '10년 이후 기준으로 가장 저조한 실적
 - 반면 OLED TV 시장(652.5만 대, 78.7%↑)은 전체 시장 흐름과 달리 고성장을 보이며 양호한 흐름을 지속. '22년에는 800만 대 수준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한국경제, 2.20일, 원소스 OMDIA)
 - (경쟁 현황) '21년 삼성전자(점유율 29.5%, 매출액 기준)는 프리미엄 QLED TV 판매 호조 등으로 1위를 수성. LG전자(18.5%)도 OLED TV 개화 등으로 역대 최대 점유율을 달성하며 2위를 기록
 - ※ 글로벌 TV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은 압도적 점유율(매출액 기준 48.0%, 출하량 기준 32.6%)을 지속하며 선두를 유지
 - 이어 소니(9.5%), TCL(8.0%), 하이센스(6.8%) 등은 한 자릿수대의 점유율로 각각 3, 4, 5위에 랭크
- (4분기 실적) 국내 업체는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선방에 성공하며 고성장 지속
 - (삼성전자) 연말 성수기 시즌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로 CE 부문 매출액(15.35조 원, 13%↑)이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 다만 물류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0.7조 원, Δ 15%)은 감소
 - (LG전자) OLED TV, 초대형 TV 판매 확대 등으로 HE 부문 매출액(4.99조 원, 16.4%↑)이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하며 5분기 연속 4조 원대의 매출을 지속. 다만 마찬가지로 물류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1,627억 원, Δ 15.3%)은 하락

그림 1-10 | 글로벌 TV 시장 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



자료 : OMDIA, 20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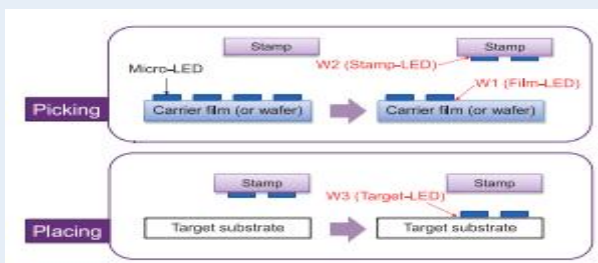
□ 국내 업체, 초 프리미엄 TV 시장 선점에 박차

○ 삼성·LG, 초 프리미엄 마이크로 LED TV 라인업 및 생산력 강화

- (삼성전자) '18년 146인치 마이크로 LED TV '더 월'을 출시해 초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동 사는 베트남 공장에 이어 '22년부터 멕시코('21년 말 완공), 슬로바키아('22.3월 말 완공 예정) 공장을 가동하여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
- 이후 생산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2.5월, CES 2022에서 선보였던 89인치 마이크로 LED TV를 먼저 본격 출시할 계획
 - ※ 현재 마이크로 LED TV 원가는 '18년('더 월') 대비 1/4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가격과 낮은 수율 등으로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LG전자) '22년 내 가정용 136인치 마이크로 LED TV 출시를 예고한 데 이어 상업용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LG 매그니트'에 NTF(대체불가토큰) 디지털 아트 플랫폼을 탑재해 눈길(2.16일)
 - ※ 美 세계적 디지털 아트 플랫폼 업체인 '블랙도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자사의 LED 사이니지에 디지털 아트 감상 플랫폼을 탑재 제공.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의 수요 확대를 도모

○ (참고) 대형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개발은 '26~'30년 사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마이크로 LED TV는 OLED TV 대비 번인 결함이 없고 밝기, 색상 등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향후 프리미엄 TV 시장을 주도해 나갈 차세대 제품으로 주목
 - ※ 마이크로 LED 칩 시장은 '22년 5,400만 달러 규모에서 매년 204%씩 증가해 '26년 45억 달러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TrendForce, '22.1월)
- 다만 초소형 LED를 기판 위에 촘촘히 배치해야 하는 구조로 복잡한 공정 기술, 높은 LED 칩 비용 등의 문제가 있어 아직까지 본격적인 대량 상용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향후 마이크로 LED TV 대량 생산을 위한 주요 기술인 전사 기술 고도화로 공정 비용 절감 등이 기대
 - ※ 현재 대형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는 주로 레이저 전사(Laser Transfer)와 픽애플레이스(Pick and Place) 전사 기술이 사용. 현재 전사 속도(UPH: Unit per Hour)는 레이저 전사 약 700만 개, 픽애플레이스는 약 1,200만 개 수준
 - ※ 트렌드포스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대량 상용화가 가능하려면 어떤 전사 방식이든 전사 속도가 최소 2,000만 개 이상의 효율과 99.999%의 수율에 도달해야 가능할 것으로 관측



(가) 픽애플레이스 전사 공정의 역학적 원리

| | Electrostatic adhesion | Laser-activated adhesion | Rate-dependent adhesion | Pressure sensitive adhesion |
|--------------------|------------------------|--------------------------|-------------------------|-----------------------------|
| Schematic | | | | |
| Transfer type | Flat | Flat | Flat | Roll |
| Transfer size | 2 inch | 4 inch or more | 3 inch | 4 inch or more |
| Stamp stiffness | High | Zero | Low | Medium |
| Transfer precision | 2 μm | 2 μm | 2 μm | 2 ~ 5 μm |
| Chip size | Micro-LED | Mini & Micro-LED | Micro-LED | Mini & Micro-LED |
| Stamp cost | High | Low | Medium | Low |
| Stamp durability | Repetitive | Disposable | Repetitive | Disposable |

(나) 전사 기술 간 특성 비교

자료 : 한국기계연구원, 2020. 재인용



2) 수출 동향

□ '22.1월 TV 수출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0.8억 달러로 집계

- (품목별) LCD TV, OLED TV 수출은 호조세를 유지한 반면, 부분품은 하락 양상 지속
 - (LCD TV : 0.04억 달러, 108.5%↑) LCD 패널 가격 하락에 따른 LCD TV 출하 증가 및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 미국(39.7%↑)으로의 수출 상승 등으로 3개월 연속 세 자릿수 성장
 - (OLED TV : 0.01억 달러, 13.5%↑) 러시아(1,994.7%↑)·인도(1,051.6%↑)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미국(△25.4%) 등이 반락하면서 OLED TV 수출은 성장세가 둔화
 - (부분품 : 0.7억 달러, △2.3%) 폴란드·인도네시아 등의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나 멕시코·베트남 등의 수출 감소로 전체 부분품 수출은 하락 지속
- (지역별) 국내 업체들의 생산 거점이 대부분 해외에 있어 주요 부분품 수출국을 중심으로 성장
 - 유럽 지역의 핵심 생산 거점인 폴란드(0.2억 달러, 30.7%↑)는 부분품 수출(0.2억 달러, 31.2%↑) 성장 등을 중심으로 2개월 연속 1위 수성
 - 북미 지역의 주요 생산 거점인 멕시코(0.2억 달러, △10.0%)는 LCD TV(155.0%↑), OLED TV(7.5%↑)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분품 수출 하락이 지속되면서 감소 전월(△4.9%) 대비 하락폭도 5.2%p 확대
 - 인도네시아(0.1억 달러, 88.1%↑)는 부분품 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3개월 만에 수출 상위국 3위를 다시 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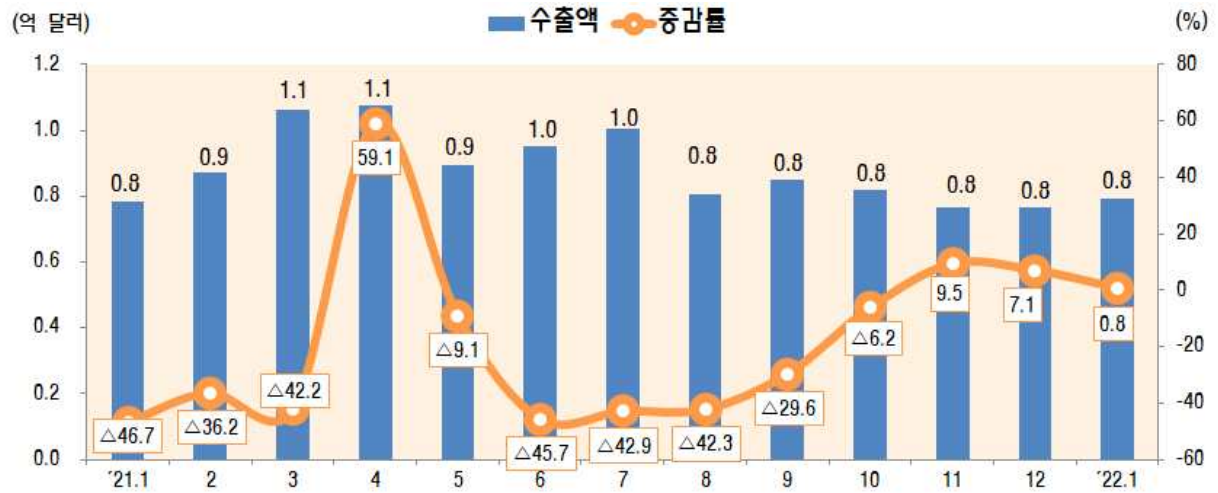
표 1-11 D-TV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 '21.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2.1 |
|---------|----------------|----------------|----------------|----------------|----------------|----------------|----------------|----------------|----------------|----------------|----------------|----------------|----------------|
| D-TV | 0.8 (△46.7) | 0.9 (△36.2) | 1.1 (△42.2) | 1.1 (59.1) | 0.9 (△9.1) | 1.0 (△45.7) | 1.0 (△42.9) | 0.8 (△42.3) | 0.8 (△29.6) | 0.8 (△6.2) | 0.8 (9.5) | 0.8 (7.1) | 0.8 (0.8) |
| LCD TV | 0.0 (△93.3) | 0.0 (△93.0) | 0.0 (△93.4) | 0.0 (△88.0) | 0.0 (△89.5) | 0.0 (△86.7) | 0.0 (△85.6) | 0.0 (△82.0) | 0.0 (52.4) | 0.0 (16.4) | 0.0 (213.2) | 0.1 (456.2) | 0.0 (108.5) |
| OLED TV | 0.0 (△92.9) | 0.0 (△89.9) | 0.0 (△89.1) | 0.0 (△84.3) | 0.0 (△80.0) | 0.0 (△92.9) | 0.0 (△91.8) | 0.0 (△85.9) | 0.0 (△94.7) | 0.0 (△96.3) | 0.0 (△11.9) | 0.0 (189.8) | 0.0 (13.5) |
| 부분품 | 0.8 (△28.0) | 0.8 (△13.6) | 1.0 (△24.3) | 1.0 (196.3) | 0.9 (16.7) | 0.9 (△33.7) | 1.0 (△33.2) | 0.8 (△36.4) | 0.8 (△25.5) | 0.8 (8.2) | 0.7 (7.0) | 0.7 (△1.7) | 0.7 (△2.3) |

자료 : IITP, KTSPi

그림 1-11 D-TV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2 D-TV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 2020년 연간 | | | | 2021년 연간 | | | | 2022년 1월 | | | |
|----|----------|-----|-------|------|----------|-----|-------|------|----------|-----|-------|------|
| 순위 | 국가 | 금액 | 증감률 | 비중 | 국가 | 금액 | 증감률 | 비중 | 국가 | 금액 | 증감률 | 비중 |
| 1 | 멕시코 | 3.4 | -60.7 | 22.9 | 멕시코 | 4.0 | 18.7 | 37.7 | 폴란드 | 0.2 | 30.7 | 24.9 |
| 2 | 베트남 | 1.7 | -48.8 | 11.2 | 폴란드 | 1.9 | 33.1 | 17.4 | 멕시코 | 0.2 | -10.0 | 23.0 |
| 3 | 폴란드 | 1.4 | 26.0 | 9.5 | 베트남 | 1.0 | -37.0 | 9.8 | 인도네시아 | 0.1 | 88.1 | 9.3 |
| 4 | 브라질 | 1.0 | -56.5 | 7.1 | 브라질 | 0.6 | -41.1 | 5.8 | 베트남 | 0.1 | -31.6 | 7.3 |
| 5 | 이집트 | 0.7 | -53.4 | 4.6 | 인도네시아 | 0.6 | 21.3 | 5.2 | 브라질 | 0.1 | -26.4 | 7.1 |
| 6 | UAE | 0.6 | -17.9 | 4.4 | 미국 | 0.5 | 10.3 | 4.3 | 미국 | 0.0 | 31.3 | 5.9 |
| 7 | 일본 | 0.5 | -25.6 | 3.7 | 이집트 | 0.3 | -55.1 | 2.9 | 중국 | 0.0 | 109.1 | 4.1 |
| 8 | 인도 | 0.5 | -8.6 | 3.4 | 러시아연방 | 0.3 | -24.5 | 2.8 | 러시아연방 | 0.0 | -6.5 | 3.2 |
| 9 | 인도네시아 | 0.5 | 6.7 | 3.1 | 인도 | 0.3 | -50.4 | 2.4 | 홍콩 | 0.0 | 227.3 | 2.6 |
| 10 | 홍콩 | 0.4 | -31.2 | 3.0 | 중국 | 0.2 | -34.7 | 2.0 | 인도 | 0.0 | -33.8 | 1.7 |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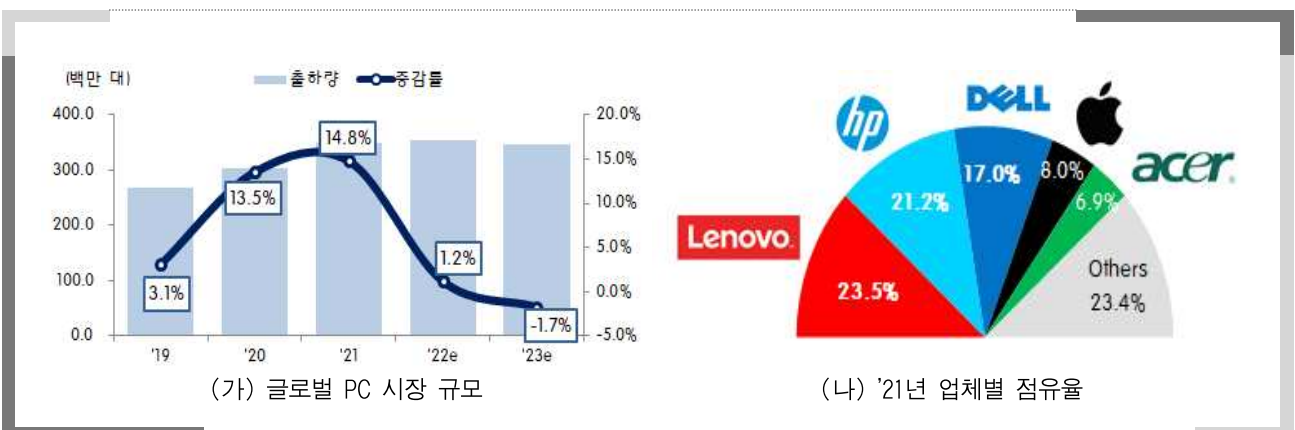
6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수출 환경

□ '21년 PC 시장, 코로나19發 비대면 수요 지속 등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 기록

- (시장 규모) '21년 PC 시장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3억 4,880만 대로 집계
 - '21.4분기 PC 시장은 물류 문제, 소비자용(교육 등) PC 수요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9,265만 대, 1.0%↑)되었으나 '21년 전체 시장은 재택근무·원격수업 등의 수요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12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 달성
 - ※ (참고) '21.1분기(56.6%↑), 2분기(13.4%↑)는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으나 하반기인 3분기(3.9%↑), 4분기(1.0%↑)는 한 자릿수 대로 큰 폭 둔화
- (경쟁 현황) 글로벌 PC 상위 제조업체들은 모두 전년 대비 오름세를 보이며 순위를 유지
 - Lenovo(8,194만 대, 14.1%↑)는 노트북 판매 호조 등으로 23.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3년 연속 1위를 수성. 2위와의 격차도 1.3%p('20년) → 2.3%p로 한층 더 벌려 눈길
 - HP(7,410만 대, 9.3%↑)는 상반기(26.9%↑)와 달리 하반기(△4.5%) 내림세에 접어들면서 다소 둔화된 성장세로 2위(21.2%)를 차지. 점유율도 전년 대비 1.1%p 감소한 것으로 관측
 - Dell(5,930만 대, 17.9%↑)은 게이밍·프리미엄 노트북 수요 증가 등으로 17.0% 점유율로 3위에 랭크 뒤를 이어 Apple(2,778만 대, 22.1%↑), Acer(2,391만 대, 14.0%↑)가 각각 4, 5위를 기록
 - 특히 Apple의 경우 '21.3분기(765만 대, 9.9%↑)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4분기도 760만 대(8.6%↑) 수준을 지속해 눈길

그림 1-12 | 글로벌 PC 시장 규모 및 '21년 업체별 점유율



자료 : IDC, 2022.1.

□ (태블릿PC) 지난해 4분기 수요 감소 등으로 '21년 시장 성장세는 큰 폭 둔화

- (시장 규모) '21.4분기 태블릿PC 출하량(4,600만 대, △11.9%)은 2분기 연속 하락 기록
 - 교육용 수요 先충족 등에 따른 태블릿PC 소비 감소와 더불어 부분품 공급난, 물류 문제 등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21.3분기(4,250만 대, △9.1%)에 이어 4분기 시장도 감소세
 - 이러한 하반기의 급격한 출하량 감소로 '21년 태블릿PC 시장(1억 6,880만 대, 3.2%↑) 성장률은 한 자릿수 상승에 그칠 전망(IDC, '22.1월)
- (경쟁 현황) 화웨이를 제외한 주요 업체들은 출하량이 증가, Amazon은 4위로 부상해 눈길
 - '21년 Apple(5,780만 대, 8.4%↑)은 자사의 M1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 5세대' 등의 판매 호조로 34.2%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수성
 - 이어 삼성전자(3,090만 대, 3.8%↑)는 18.3%로 2위를, Lenovo(1,770만 대, 19.2%↑)는 두 자릿수 대 성장으로 점유율 10%를 처음으로 넘어서며 3위에 랭크
 - Amazon(1,610만 대, 15.1%↑)은 태블릿PC 선두 업체 중 유일하게 출하량이 감소한 화웨이(Honor 사업 제외 기준, 970만 대, △32.1%, 점유율 5.7%)를 제치고 9.5%의 점유율로 4위에 등극
- (업체 동향) 中 스마트폰 업체들의 태블릿PC 시장 진출 등으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
 - '22.1.20일 중국의 화웨이 등에 이어 오포와 비보도 '22년 태블릿PC 시장 진입을 예고해 경쟁이 과열될 전망. 비보는 일반형과 폴더블형 제품을 라인업으로 구성해 올 상반기 내 출시 예정
 - 오포도 퀄컴 스냅드래곤 870 프로세서, 2K 해상도,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신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관측
 - 한편 선두권 업체인 삼성전자는 '22.2.10일 '갤럭시 언팩 2022' 행사에서 '갤럭시탭 S8' 태블릿 시리즈 3종을 공개해 주목. 11인치의 기본형, 12.4인치 OLED 패널의 플러스형, 14.6인치 OLED 패널의 울트라형 제품 라인업을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

그림 1-13 | 글로벌 태블릿PC 시장 규모 및 '21년 업체별 점유율



자료 : IDC, 2022.1.

□ (SSD) 디지털 전환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 증가 등으로 SSD 시장의 가파른 상승 지속 전망

- (시장 전망) '22년 SSD 시장은 높은 수요가 이어지면서 출하량(4.6억 대, 9.0%↑)과 매출액(446억 달러, 15.7%↑) 모두 성장세를 보일 전망(IDC, '21.12월)
 - (소비자용) 전방 산업인 PC, 노트북, 게임 콘솔기기 등의 시장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SSD의 출하량(3억 8,730만 대, 7.5%↑)과 매출액(203.2억 달러, 9.6%↑)은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
 - 한편 점차 소비자용 시장에서도 고용량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1년 128.1~256GB SSD가 38.4%의 점유율로 가장 높은 인기를 보였으나 '22년은 256.1~512GB SSD가 45.6%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 주류로 자리 잡을 것으로 관측
 - (기업용) 5G,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글로벌 IT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출하량(6,108만 대, 16.0%↑)과 매출액(238.7억 달러, 21.4%↑)이 큰 폭의 동반 성장 기대
 - 특히 올해는 PCIe 규격의 SSD(4,210만 대, 50.8%↑)가 기업용 SSD 출하량의 절반 이상인 68.9%를 차지(전년 대비 15.9%p↑)하며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 전망
 - ※ 기업용 SSD 시장 내 PCIe 규격 점유율 추이 : ('20년) 46.9%, ('21년) 53.0%, ('22년) 68.9%
- (업체 동향) SSD 수요 급증에 발맞춰 고성능·대용량 SSD 양산에 집중, 경쟁 과열 조짐
 - (SK하이닉스) 美 최대 SNS 기업인 '메타(구 페이스북)'와 NVMe 기반의 SSD 공급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 비교적 약세였던 기업용 SSD 시장에서의 입지를 본격 강화할 계획
 - '21.12월 176단 낸드플래시 개발 성공을 발표했던 동 사는 '22.1월 176단 낸드 기반의 SSD '플래티넘 P41'을 공개('22.1분기 양산 예정)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
 - (삼성전자) 경쟁 업체와 마찬가지로 '22.1분기 176단(7세대) 낸드 플래시 SSD 제품 양산을 예고해 SSD 시장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
 - (WD, 카옥시아) '22.2.11일 美 WD와 日 카옥시아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낸드플래시 공장의 가동 중단(원재료 오염 문제)이 확인되면서 양사가 주력하고 있는 PC 소비자용 SSD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

그림 1-14 소비자용 및 기업용 SSD 시장 전망



자료 : IDC, 2021.12.

2) 수출 동향

□ '22.1월 수출은 모니터와 SSD 등을 중심으로 한 주변기기 호조세로 11개월 연속 증가

- (품목별) '22.1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54.3% 증가한 15.3억 달러를 기록
 - (컴퓨터 : 1.0억 달러, $\Delta 40.0\%$) 노트북PC(0.1억 달러, $43.2\%\uparrow$), 중대형 컴퓨터(0.2억 달러, $170.4\%\uparrow$)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부품 수출액이 전월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4개월 만에 반락
 - (주변기기 : 14.4억 달러, $72.7\%\uparrow$) SSD(12.0억 달러, $71.7\%\uparrow$), 프린터(0.4억 달러, $15.5\%\uparrow$) 등의 오름세와 더불어 모니터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주변기기 수출은 성장세 지속
 - ※ '22.1월 모니터 수출(1.3억 달러, $191.7\%\uparrow$)은 '18.10월(1.1억 달러, $36.6\%\uparrow$) 이후 39개월 만에 1억 달러를 다시 넘어서며 주목
 - ※ '22.1월 모니터 수출 상위 3대 국가(억 달러) : (1위) 미국(0.4, $154.4\%\uparrow$), (2위) 베트남(0.2, $3,688.5\%\uparrow$), (3위) 폴란드(0.2, $1,426.7\%\uparrow$)
- (지역별) 일본·대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
 - 중국(홍콩 포함, 5.8억 달러, $52.4\%\uparrow$)은 컴퓨터 수출(0.5억 달러, $\Delta 63.1\%$)이 크게 줄었으나 SSD(5.1억 달러, $114.5\%\uparrow$)를 중심으로 한 주변기기 수출 호조로 11개월 연속 오름세
 - 미국(4.6억 달러, $91.4\%\uparrow$)은 컴퓨터 부품($143.1\%\uparrow$)의 반등, 프린터(0.1억 달러, $5.1\%\uparrow$)의 성장 전환, 모니터 수출(0.4억 달러, $154.4\%\uparrow$)의 세 자릿수 상승 등으로 고성장세를 지속

표 1-1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 '21.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2.1 |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9.9 (2.6) | 10.7 ($\Delta 5.7$) | 13.1 (6.7) | 11.2 (3.4) | 13.3 (9.8) | 14.9 (18.1) | 15.5 (28.2) | 16.9 (26.6) | 19.2 (49.1) | 14.8 (48.5) | 17.8 (70.8) | 16.5 (43.5) | 15.3 (54.3) |
| 컴퓨터 | 1.6 (23.3) | 1.5 (16.5) | 1.8 (21.5) | 1.6 (8.8) | 2.0 (14.2) | 1.9 (9.3) | 2.1 (4.5) | 1.8 (5.1) | 2.0 ($\Delta 0.3$) | 2.1 (16.6) | 2.2 (10.6) | 2.4 (12.8) | 1.0 ($\Delta 40.0$) |
| 부품 | 1.4 (25.9) | 1.3 (23.4) | 1.5 (36.3) | 1.3 (3.5) | 1.7 (13.9) | 1.6 (13.0) | 1.8 (10.5) | 1.5 (4.5) | 1.6 ($\Delta 5.8$) | 1.7 (16.3) | 1.8 (8.0) | 1.8 (9.3) | 0.6 ($\Delta 59.4$) |
| 주변기기 | 8.3 ($\Delta 0.7$) | 9.2 ($\Delta 8.5$) | 11.3 (4.7) | 9.5 (2.6) | 11.4 (9.1) | 13.0 (19.5) | 13.4 (32.9) | 15.1 (29.8) | 17.3 (58.0) | 12.8 (55.3) | 15.6 (85.0) | 14.2 (50.4) | 14.4 (72.7) |
| 보조기억 장치 | 7.0 (1.9) | 7.8 ($\Delta 6.1$) | 9.2 (7.6) | 7.5 ($\Delta 8.8$) | 9.7 (1.0) | 11.1 (14.4) | 11.2 (33.3) | 13.6 (33.0) | 15.3 (61.6) | 10.9 (59.8) | 13.9 (102.5) | 12.3 (54.2) | 12.1 (71.2) |
| 프린터 | 0.3 (19.6) | 0.3 (30.0) | 0.4 (27.0) | 0.4 (16.7) | 0.4 (79.6) | 0.4 (43.7) | 0.4 (22.6) | 0.3 ($\Delta 13.7$) | 0.3 ($\Delta 12.4$) | 0.3 ($\Delta 9.5$) | 0.3 ($\Delta 3.7$) | 0.4 (6.3) | 0.4 (15.5) |
| 모니터 | 0.4 ($\Delta 44.0$) | 0.5 ($\Delta 28.3$) | 0.6 ($\Delta 21.6$) | 0.5 (19.4) | 0.5 (91.1) | 0.6 (77.5) | 0.7 (75.4) | 0.6 (54.7) | 0.7 (68.7) | 0.7 (69.7) | 0.8 (63.2) | 0.9 (63.4) | 1.3 (191.7) |

자료 : IITP, KTSPi



그림 1-15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4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 2020년 연간 | | | | 2021년 연간 | | | | 2022년 1월 | | | |
|----|----------|------|-------|------|----------|------|-------|------|----------|-----|-------|------|
| 순위 | 국가 | 금액 | 증감률 | 비중 | 국가 | 금액 | 증감률 | 비중 | 국가 | 금액 | 증감률 | 비중 |
| 1 | 미국 | 45.3 | 95.8 | 32.6 | 미국 | 56.8 | 25.3 | 32.7 | 미국 | 4.6 | 91.4 | 30.0 |
| 2 | 중국 | 41.1 | 28.6 | 29.6 | 중국 | 44.8 | 8.8 | 25.8 | 중국 | 3.8 | 28.5 | 24.7 |
| 3 | 홍콩 | 12.5 | 77.9 | 9.0 | 홍콩 | 19.1 | 52.4 | 11.0 | 홍콩 | 2.0 | 134.3 | 13.2 |
| 4 | 일본 | 5.0 | 46.1 | 3.6 | 일본 | 5.6 | 11.5 | 3.2 | 네덜란드 | 0.8 | 204.1 | 5.5 |
| 5 | 멕시코 | 3.5 | 54.3 | 2.5 | 대만 | 4.9 | 52.1 | 2.8 | 싱가포르 | 0.5 | 149.0 | 3.0 |
| 6 | 대만 | 3.2 | 130.3 | 2.3 | 네덜란드 | 4.7 | 58.3 | 2.7 | 폴란드 | 0.4 | 367.5 | 2.6 |
| 7 | 네덜란드 | 3.0 | 47.2 | 2.1 | 멕시코 | 4.7 | 35.4 | 2.7 | 일본 | 0.4 | -6.2 | 2.5 |
| 8 | 독일 | 2.6 | 46.1 | 1.9 | 싱가포르 | 4.3 | 106.0 | 2.5 | 대만 | 0.4 | -20.0 | 2.4 |
| 9 | 체코 | 2.3 | 211.6 | 1.7 | 아일랜드 | 4.2 | 94.9 | 2.4 | 베트남 | 0.4 | 182.9 | 2.4 |
| 10 | 오스트리아 | 2.2 | 93.4 | 1.6 | 독일 | 2.8 | 7.3 | 1.6 | 독일 | 0.3 | 80.2 | 1.8 |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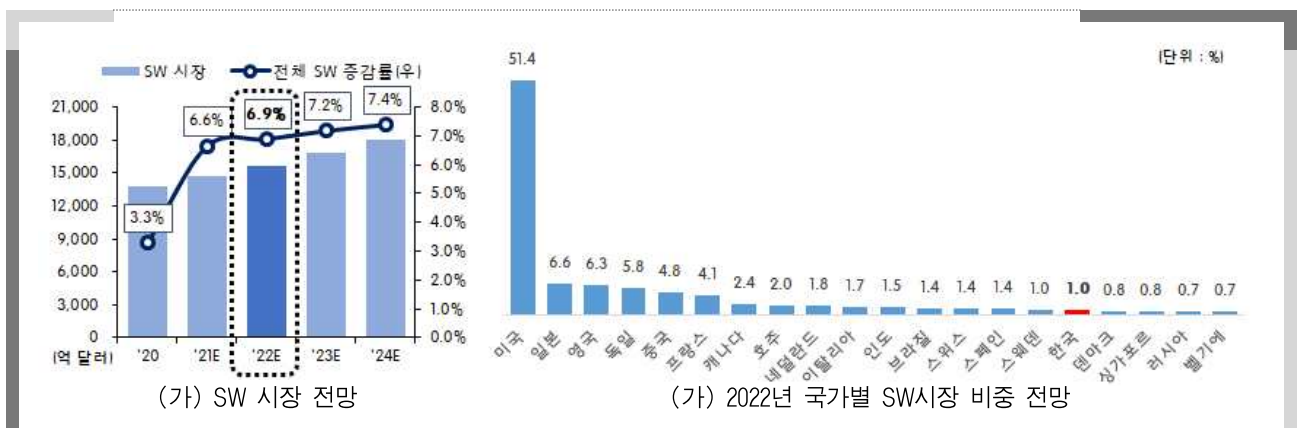
7 SW

1) 수출 환경

□ '22년 글로벌 SW 시장은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신흥국 등이 성장을 주도할 전망

- (시장 전망) '22년 글로벌 SW 시장 규모는 패키지SW와 IT서비스가 동반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6.9% 증가한 1조 5,697억 달러가 예상(IDC, '21.11월)
 -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혁신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도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IT서비스는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등하면서 3.6% 증가한 7,691억 달러가 예상되며, 패키지SW는 비대면 비즈니스 운영 필수 요소 및 클라우드 수요 증가 등으로 10.2% 증가한 8,006억 달러로 전체 시장을 견인할 전망
- (국가별) 상위 20개 모든 국가에서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신흥국의 성장세에 주목
 - 51.4%의 압도적인 비중으로 SW 시장 1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패키지SW 시장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시장 규모가 7,4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 중국(5위, 증감률 12.4%↑)·인도(12위, 10.9%↑)·브라질(12위, 7.7%↑)·러시아(19위, 9.7%↑) 등 신흥국은 7% 이상의 호조세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내 SW 시장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139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며 세계 시장 내 비중은 1.0%, 상위 20개 국가 중 16위에 랭크될 것으로 예상

그림 1-16 전 세계 SW 시장 전망 및 국가별 비중 전망







자료 : IDC Blackbook, 2021.11.



□ 국내 IT서비스 업체, 메타버스 접목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DX)에 박차

- 삼성SDS는 메타버스 행사 개최 및 클라우드 역량을 강화, LG CNS는 메타버스 공간인 'LG CNS 타운' 운영 등 B2B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 SK C&C는 메타버스 기반 인재 육성을 강화하는 등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방안을 추진

표 1-15 국내 IT서비스 업체 동향

| 업 체 |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며 관련 역량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1월 개발자 컨퍼런스 '테크토닉 2021' 행사를 개최했으며, '로블록스'를 기반으로 꾸민 메타버스 공간 '테크토닉 파크'에 이상욱 삼성SDS 전무가 아바타로 등장하는 등 메타버스를 통해 진행. 향후 혁신 기술과 개방·협력 전략을 통해 최적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제시 - '22.1월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부터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전환, 개발, 구축, 운영 등 클라우드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MSP(Managed Service Provider)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회사로의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 ※ '메타버스'·'디지털 트윈' 등 첨단 산업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클라우드가 필수적.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클라우드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는 양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버스 공간 오픈 및 이를 활용한 행사를 개최하며 활용도를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업무용 서비스를 출시하며 메타버스를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 CNS는 '21.8월 메타버스 공간인 'LG CNS 타운'을 오픈했으며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주제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신의 가상 아바타를 생성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웨비나⁴⁾를 개최 - 또한 '21.12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오비스와 기업 맞춤형 '메타버스 오피스'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이를 통해 메일 송수신, 사내 공지사항 열람, 일정 확인 등 업무 기능을 메타버스에서 구현 - 향후 금융·물류·제조 등 각종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별 고객 니즈에 맞는 메타버스 서비스 설계를 추진해 메타버스 공간을 일회성 이벤트 장소에서 직장인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업무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통합 디지털플랫폼 '멀티버스'를 기반으로 국내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신시장 공략에 진출. '21.3월에는 디지털 인재 채용 및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경연 앳 멀티버스'를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2월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와 멀티버스는 물론 멀티버스 기반의 각종 산업별 디지털 플랫폼·솔루션의 글로벌 SaaS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바 있으며 디지털 인재 채용 및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경연 앳 멀티버스'를 '21.3월 출시 ※ '경연 앳 멀티버스'는 SK㈜ C&C 테크 트레이닝 센터가 수년간 진행한 산업별 다양한 디지털 기술 트레이닝 및 사내 연택트 디지털 경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돼 참여자의 실무 수행 능력 및 현장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가상 교육환경을 제공 - 향후 직원 교육 외에 실제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넓혀갈 계획이며 메타버스 전문 팀을 구축하고 기술 및 신규 서비스 개발에도 박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 칼리버스 인수 후 현실감을 극대화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총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7월 VR 콘텐츠 및 메타버스 전문 벤처 기업 비전브이알(인수 후 '칼리버스'로 사명 변경)을 인수하며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 단순한 신규사업 진출 수준을 넘어 롯데 그룹사에서 미래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핵심 사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 - '22.1월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2022'에 참여해 온·오프라인 융합 메타버스를 공개했으며 향후 실사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을 융합하고, 경제 활동까지 연계된 HMD(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기반의 몰입감 높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한다는 계획 ※ 한편 롯데정보통신은 메타버스 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실사 촬영 기술, VR 합성 기술, 3D 실시간 렌더링 기술, 딥-인터랙티브(사용자가 VR영상 속 물체와 상호작용) 특허, 영상 압축 기술, 품질 최적화 뷰어 등 6가지 핵심 기술을 도입 |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4)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인터넷 웹상에서 행해지는 세미나를 의미



II

트레이드 GPS





II

트레이드 GPS⁵⁾

1

EU - 태양광 모듈

□ EU는 '50년 기후중립⁶⁾ 달성을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

- EU는 '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19.12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21.7월 'Fit for 55' 등 정책·전략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도모
 - (유럽 그린딜) '19.12월 EU 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패키지인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50년까지 EU 내 온실가스 순 배출 '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경제, 산업, 생산, 소비, 인프라, 수송, 식품, 건축, 세제,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로드맵을 제시
 - '50년 기후중립 달성 목표와 더불어 '30년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특히 에너지 부문은 EU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75%에 해당해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발표
 - 이에 맞춰 EU 회원국은 '23년부터 상향된 '30년 목표를 국가 에너지·기후계획에 반영하고 국가 별 환경에 따라 태양광·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총 28조 유로를 투자

표 2-1

유럽 그린딜의 주요 내용

| 분류 | 제품 |
|------|---|
| 온실가스 | • 2050년 기후중립 달성 및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 강화(Increasing the EU's climate ambition for 2030 and 2050) |
| 에너지 | • 청정에너지,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Supplying clean, affordable and secure energy) |
| 산업 | • 청정·순환경제로의 산업 전환(Mobilising industry for a clean and circular economy) |
| 건물 | •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의 건축 및 리모델링(Building and renovating in an energy and resource efficient way) |
| 교통 | •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체계 구축(Accelerating the shift to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
| 식품 | • 농장에서 식탁까지-공정하고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식품체계 구축(From 'Farm to Fork' : a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system) |
| 생태계 | •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Preserving and restoring ecosystems and biodiversity) |
| 오염 | • 유해물질과 오염 없는 환경 조성(A zero pollution ambition for a toxic-free environment)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소스 European Commission, 2020.6., 재인용

5)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6)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은 온실가스 순 배출이 '0'이 되는 상태로 이산화탄소 순 배출이 '0'인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과 유사한 개념이나, 이산화탄소 외에 다른 모든 온실가스에서도 순 배출이 '0'이 돼야 함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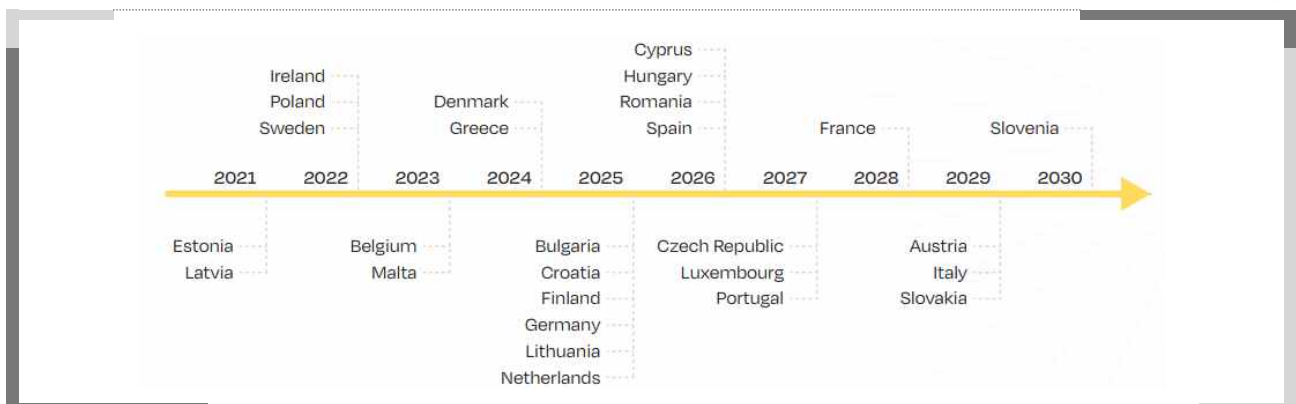
- 이후 '20.1월 그린딜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인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이 공개됐으며, '20.3월에는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발표하며 기후중립 목표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후속 정책을 잇달아 발표
- (Fit for 55) '21.7.14일에는 그린딜의 중간 목표 달성을 위해 '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감축한다는 목표와 구체적 실현 방안 등을 담은 'Fit for 55' 패키지 초안을 발표
- 'Fit for 55'는 EU의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기존의 제도 및 정책을 수정해 발표됐으며 탄소가격 책정, 탄소국경조정 도입, 에너지 세제 개정, 도로수송 부문 개편,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등 시장 논리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
 - ※ EU의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종전 1990년 대비 40%였으나, '유럽 기후법'에 따라 최소 55%로 상향조정
-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요구되면서 재생에너지 지침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32%에서 40%로 상향조정
 - ※ Solar Power Europe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 40%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EU 태양광 발전 규모는 '30년 총 870GW로, 연간 50GW의 추가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22.1월)
- 한편 EU가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 회복 계획을 본격화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표 2-2 'Fit for 55'의 주요 내용

| 분류 | 제품 |
|------------------|---|
|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제도 정비 | 탄소국경조정 규정(신규법 제정), EU-ETS 지침(기존법 개정), 사회적 기후기금 도입(신규 제도 제안), 노력분담 규정(기존법 개정), 승용차 및 소형운반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규정(기존법 개정) |
| 에너지부문 목표 수정 | 재생에너지 지침(기존법 개정) , 에너지효율 지침(기존법 개정) |
| 연료 관련 제도 정비 | ReFuelEU Aviation 규정(신규법 제정), ReFuelEU Maritime 규정(신규법 제정), 대체연료 기반시설 규정(기존법 개정(대체)), 에너지 세제 지침(기존법 개정) |
| 탄소 순환수원 관련 제도 정비 | 토지·산림·농업 규정(기존법 개정)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소스 European Commission, 2021.7., 재인용

그림 2-1 EU 회원국별 태양광 발전 비중 목표 달성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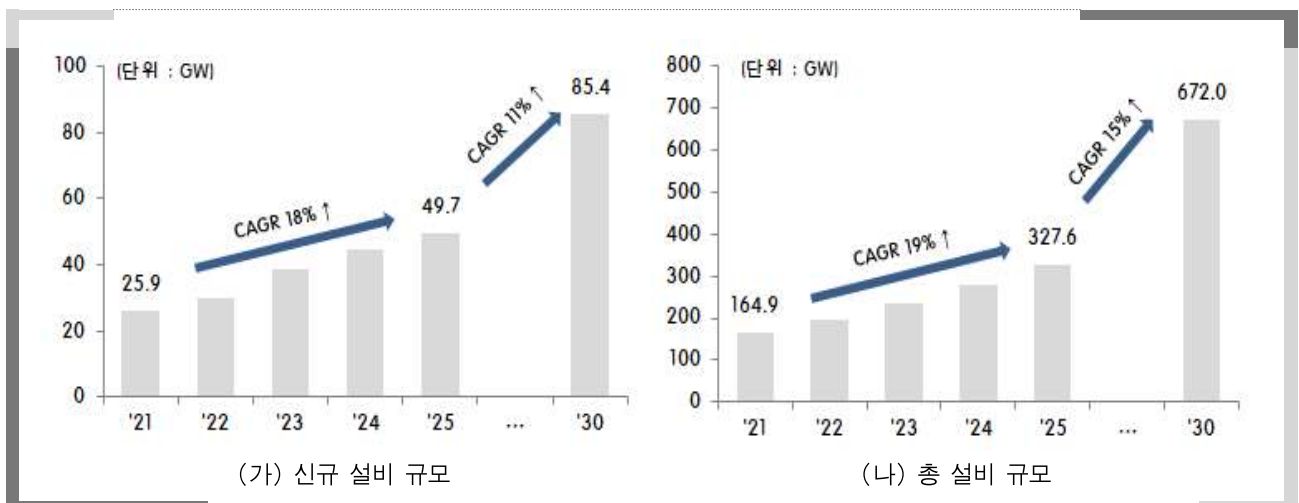


자료 : Solar Power Europe, 2022.1.

□ EU 태양광 모듈 시장은 친환경 정책 기조 속 태양광 발전 설비 증가로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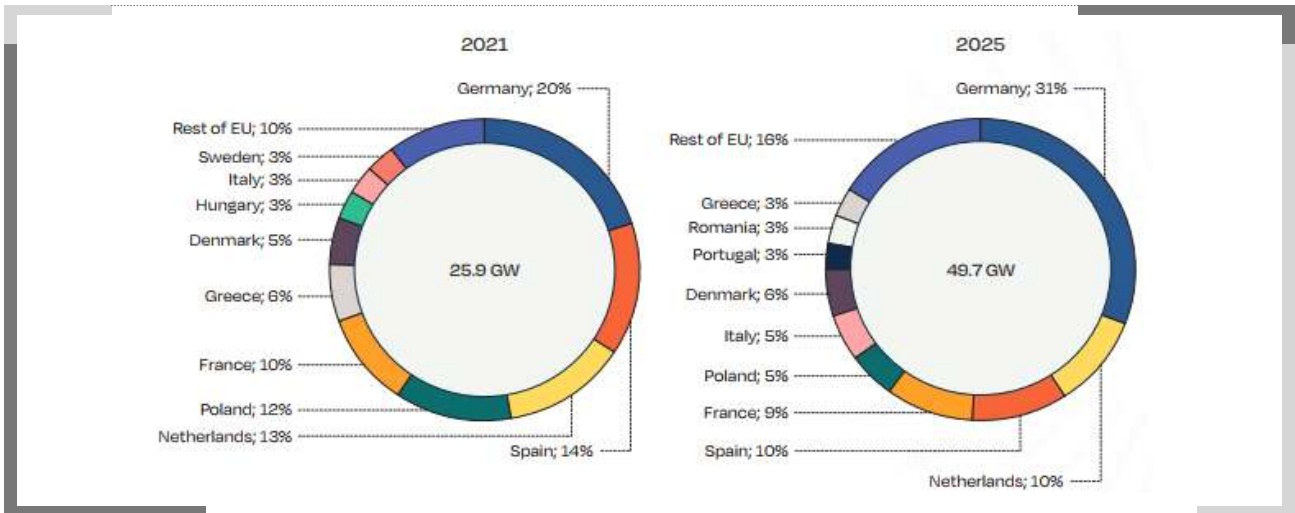
- EU는 그린딜·탄소중립 정책 등 친환경 정책 기조 아래 태양광·해상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 규모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Solar Power Europe, '22.1월)
 - 지속된 코로나19 여파와 더불어 제품 공급 부족,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 등 불리한 시장 조건에도 불구하고, '21년 EU 신규 태양광 발전 용량은 25.9GW로 전년(19.3GW) 대비 34% 증가해 종전 최고 기록('11년 21.4GW)을 경신했으며, 누적 발전 용량은 164.9GW로 전년 대비 19% 증가
 - 향후 독일·폴란드 등에서의 대규모 프로젝트 급증 및 터키·폴란드·네덜란드 등에서의 상업용·주거용 태양광 발전 성장 등에 따라 '22~'25년 연간 30GW 이상의 신규 발전 용량이 증가해 총 162.7GW가 추가 증설되며 '25년 누적 용량은 327.6GW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EU 내 신규 태양광 발전 규모(전년 대비, Solar Power Europe, '22.1월) : ('21년) 25.9GW, 34% ↑ → ('22년) 30.0GW, 16% ↑ → ('23년) 38.5GW, 28% ↑ → ('24년) 44.6GW, 16% ↑ → ('25년) 49.7GW, 11% ↑
 - 이후 태양광 발전 규모가 늘어나면서 누적 용량은 '25년 이후 연평균 15%씩 성장해 '30년 672.0GW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30년 한 해에만 85.4GW의 용량이 신규로 추가될 전망
 - ※ 상향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40%) 달성을 위한 EU내 태양광 발전 규모는 '30년 총 870GW로 예상(Solar Power Europe, '22.1월)되면서 연간 증설 용량은 추후 확대될 가능성도 기대
 - 국가별로는 독일이 '21년 5.3GW 용량을 추가했으며 '22~'25년까지 47.7GW를 증설하면서 EU 내 태양광 발전 강국의 입지를 확대할 전망. 이어 스페인(3.8GW), 네덜란드(3.3GW), 폴란드(3.2GW), 프랑스(2.5GW) 등 상위국은 '25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 EU 상위국별 신규 태양광 발전 규모('22~'25년, CAGR, Solar Power Europe, '22.1월) : (독일) 47.7GW, 16% ↑, (스페인) 18.9GW, 20% ↑, (네덜란드) 17.1GW, 23% ↑, (프랑스) 15.1GW, 21% ↑, (폴란드) 9.7GW, 24% ↑

그림 2-2 EU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 추이



자료 : 유럽태양에너지협회(Solar Power Europe), 2022.1.

그림 2-3 EU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상위 10개국 점유율 추이



자료 : Solar Power Europe, 20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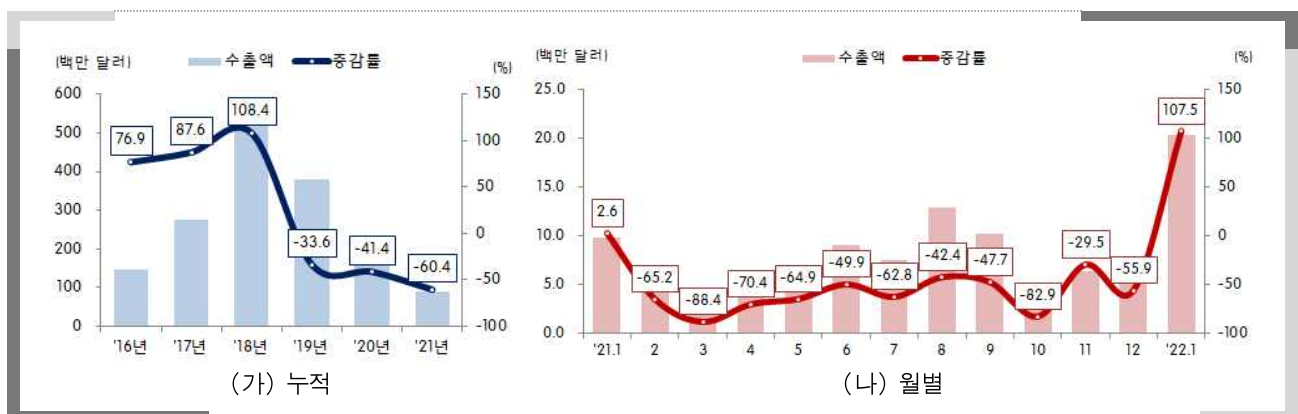
□ EU 태양광 발전 수요 증가로 국내 태양광 모듈 업체는 기술력 등으로 현지 시장을 공략

- '21.7월 발표된 EU의 탄소 배출 감축 계획 목표 확대에 따라 국내 태양광 모듈 업체는 신제품 출시 및 유럽 태양광 사업 수주 등으로 현지 공략을 강화
 - (한화큐셀) '21.12월 미국 인버터 제조업체 엔페이즈 에너지와 합작한 '큐피크 듀오(Q.PEAK DUO) ML-G9+/AC' 태양광 모듈을 판매하며 유럽 시장에 진출했으며 '22.2월 신제품 '큐피크 듀오 G10(Q.PEAK DUO G10)'도 출시하는 등 고출력 제품을 앞세워 현지 시장점유율을 확대
 - ※ 해당 발전소는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통해 향후 30년간 약 55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며 저탄소 모듈을 사용해 건설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도 크게 감축시킬 것으로 예상
 - 또한 '21.12월 프랑스 토탈에너지스가 건설한 태양광 발전소에 55MW 규모의 저탄소 인증 태양광 모듈을 공급. 한화큐셀이 '21년 프랑스 시장에 판매한 모듈 중 저탄소 인증 제품 비중은 약 70%에 육박하며 '22.2분기에도 저탄소 인증 제품을 추가 출시한다는 계획
 - 향후 한화큐셀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22.상반기 주거용 에너지 솔루션 '큐홈코어', '22.하반기 태양광 모듈 '큐피크 듀오 블랙 G10' 등 신제품을 출시하며 현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계획
 - 한편 한화큐셀은 '19.3월 론지 솔라, REC 등 중국 태양광 기업을 상대로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20.6월 1심에서 승소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특허 침해 제품 판매가 금지
 - (LG전자) '21.6월 이탈리아 플라스틱 가공 업체인 테니카플라스트에 태양광 모듈 '네온2(NeON 2)' 약 275장을 공급했으며 고효율 제품을 앞세워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
 - ※ 다만 '15년부터 본격화된 중국 태양광 모듈 업체의 저가 공세 등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LG전자는 '22.6.30일 태양광 관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22.2.23일)

□ 연간 對EU 태양광 모듈 수출은 부진했으나 '22.1월 성장세로 반등하며 회복 기조 관측

- **(누적)**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 및 경쟁 심화 등으로 '19년 이후 3년 연속 두 자릿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반등 가능성도 기대
 - '18년 전년 대비 108.4% 증가한 5억 7,104만 달러를 기록한 對EU 태양광 모듈 수출은 중국 업체 등 현지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부진하면서 '21년 전년 대비 60.4% 감소한 8,797만 달러로 '19년 이후 3년 연속 두 자릿수 하락세를 지속
 - 다만 현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계획에 따른 태양광 모듈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EU 태양광 모듈 수출은 향후 반등 가능성도 기대
- **(월별)** '21년 부진한 실적을 지속했으나 EU의 강화된 친환경 기조 및 국내 업체의 현지 공략 강화 등으로 '22.1월 세 자릿수의 가파른 성장세로 반등하면서 주목
 - 對EU 태양광 모듈 수출은 '21.1월 980만 달러로 2.6%의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중국 업체 등 현지 시장 경쟁 심화 등에 따라 '21.2월 하락세로 반락하면서 '21.12월까지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부진한 실적을 기록
 - 다만 '22.1월에는 전년 대비 107.5% 증가한 2,033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회복세로 반등했으며 국내 태양광 모듈 기업의 EU 공급 확대 및 현지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향후 성장 지속 가능성이 기대

그림 2-4 | 對EU 태양광 모듈 수출 추이



주 : 태양광 제품은 ICT 분류상 전자부품>반도체>광전자>광광성반도체 소자로 분류

자료 : IITP, KTSPI

2 이차전지

□ 전 세계적인 脫탄소 행보로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차전지 시장은 고성장이 예상

-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20년 221GWh를 기록한 데 이어 '30년 3,670GWh(연평균 32.4%↑) 규모로 고성장을 보일 전망
 - 전 세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을 공동 목표로 제시하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전기·수소차 인프라 구축 및 상용 확대, 신재생 에너지 생산능력 확충 등 친환경적인 변화에 적극 동참
 - (전기차용) 각 국의 적극적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 환경 규제 강화, 자율 주행 기술 확대 등으로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이차전지 수요도 급증할 전망. '30년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3,257GWh('20~'30년 기준 연평균 성장률 36.7%↑) 규모에 이를 것으로 관측
 - ※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년 324만 대 → '25년 1,120만 대 → '30년 3,110만 대 규모로 성장할 전망(EV-Volumes)
 - (ESS용) 또한 각 국의 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 능력 제고에 따라 저장장치인 이차전지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30년 302GWh(동 기간 연평균 성장률 31.2%↑)로 큰 폭 성장할 전망
 - 이차전지 시장 성장과 함께 이차전지 에너지 밀도 증가, 수명 연장, 충전 속도 단축,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소재 관련 기술 고도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

그림 2-5 |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전망



자료 : KDB산업은행, SNE리서치



- 각 국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도입 확대, 신재생 에너지 생산력 제고 등의 전략 및 정책을 시행, 이에 따라 이차전지 수요도 늘어날 전망

표 2-3 **각 국별 탄소 중립 및 전기차 관련 정책**

| 국가 | | 주요 내용 |
|-----|---|---|
| 선진국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겠다는 'net zero'를 장기 목표로 제시 - 우선적으로 '30년까지 '05년 탄소 배출량 대비 절반 이하로의 저감을 목표로 75억 달러를 투입. 50만 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마련할 예정이며 '30년 전기차 판매 비중도 50%로 확대할 계획 ※ '21년(1~11월 누적)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49.5만 대(91.2%↑)로 큰 폭 증가하며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 관측 ※ '22년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 7,500달러 지급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일 경우 500달러, 美산 전기차의 경우 4,50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상황 |
| |  E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에 이어 '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Fit For 55' 정책을 발표('21.7월) -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 - 또한 '30년부터 신차의 탄소 배출을 '21년 대비 55% 줄이고 '35년에는 100% 저감할 계획. '25년까지 역내 주요 도로 60km마다 전기차 충전소도 확충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예정 - '50년 이후로는 유럽 내 현존하는 내연기관차를 전면 퇴출하는 강력한 규제도 시행할 계획 |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분야별 그린성장전략을 발표('20.12월) - 에너지 : '40년까지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생산능력 4,500만kW 확충, '50년까지 수소 소비량 2,000만 톤으로 확대 등의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 - 운송·제조 : '35년까지 신차의 50%가량을 전기차로 전환, '50년까지 선박 연료를 수소 등의 대체연료로 전환하는 등의 목표를 제시 - 가정·사무실 : '30년까지 신축주택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 |
| |  한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전전환 등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덧붙인 '2050 탄소중립 3+1 전략'을 발표('20.12월) - 세부적으로는 '30년까지 '18년 탄소 배출량 대비 4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전기차·수소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450만 대를 보급 확대할 계획 - '20년 신차 판매의 12%에 해당하던 친환경차 판매를 '25년 51%, '30년 83%로 확대해 나가며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예정 |
| 신흥국 |  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6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20.9월) - '30년까지는 탄소피크(연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특정 기간 동안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를 '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제시 •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 계획안' 통과('20.10.9일) - '25년까지 신차 중 전기차를 비롯한 신에너지차의 판매 비중을 20%까지 높이며 '35년까지 모든 대중교통 차량을 신에너지차로 대체할 것이라 발표 ※ 한편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21.1~11월 누적 기준 155%↑)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25년 20% 비중 달성 목표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22.12.31일부로 전면 종료될 예정 |
| |  인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시장 육성을 위한 FAME I, FAME II 등의 정책을 시행 - FAME I('15~'19년) : 전기차 채택 촉진 및 제조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기차 관련 기술 개발, 수요 창출,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 - FAME II('19~'22년) : '19.4.1일부터 3년간 전기 및 하이브리드 기술 성장 가속을 목표로 진행. 1,000억 루피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예산을 편성해 전기버스 7,000 대, 전기 삼륜차 50만 대, 전기 승용차(하이브리드 포함) 5.5만 대, 전기 이륜차 100만 대의 제조 및 판매를 지원 ※ (참고) 인도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며 '21.1월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5,910대를 기록(KOTRA)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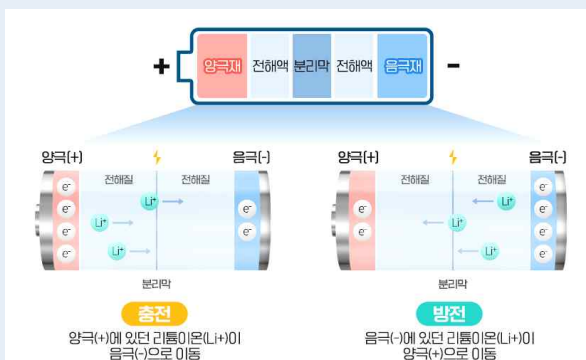
□ 이차전지 주요 소재 가격 급등 속, LFP 배터리 시장이 단기적으로 성장할 전망

- 이차전지 성능을 좌우하는 소재 기술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재사용 기술 개발도 박차
 - 범국가적인 탄소 중립 선언으로 교통수단 친환경화에 대한 큰 격변의 시대가 도래한 현재 이차전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 중심의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포착
 - ※ 한편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리튬은 '21.1.4일 기준 48.5위안/kg이었으나 '22.1.28일 362.5위안/kg으로 매우 가파르게 급등. 동 기간 니켈, 코발트 가격도 두 배가량 상승하며 이차전지 원재료 가격 부담이 증가
 -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NCM 등의 삼원계 배터리 대비 기술적 열위였던 LFP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채택이 늘어나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
 - ※ '21.상반기 전기차 배터리 시장 內 LFP 배터리 점유율은 24.1%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한 가운데 '21.10월 완성차 업체인 테슬라가 모든 스탠다드 라인업에 LFP 배터리 장착을 예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구도 변화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 제기(한국경제, '21.10.22일, 원소스 SNE리서치)
 - 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LFP 배터리의 성장은 단기적인 상황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활성화될 '27년부터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 배터리가 다시 고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의견이 우세
 - ※ NCM 배터리는 kWh당 23달러의 금속 회수가 가능하나 LFP는 4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관측(SNE리서치)

○ (참고) 이차전지(리튬이온배터리) 구성 요소

- 이차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극과 음극을 이동하는 리튬의 이온화 경향에 의한 산화-환원반응으로 전류를 생성
- 양극재에 사용된 소재와 비율 등이 이차전지의 용량, 출력, 안전성 등을 크게 좌우하며 사용된 소재에 따라 이차전지 종류는 NCM(혹은 NMC), LFP, NCA 배터리 등으로 분류
 - ※ 전기차에 쓰이는 대부분의 양극재는 NCM으로 니켈, 코발트, 망간이 주요 소재. LFP는 리튬과 더불어 가격이 저렴한 인산, 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 주요 소재

〈이차전지 구성 및 NCM/LFP 배터리 차이〉



(가) 이차전지 구성

| 구분 | NCM 배터리 | LFP 배터리 |
|--------|----------|---------|
| 안전성 | 다소 높음 | 매우 높음 |
| 주행거리 | 길 | 짧음 |
| 수명 | 보통 수명 | 긴 수명 |
| 제조원가 | 높음 | 낮음 |
| 무게 | 가벼움 | 무거움 |
| 에너지 밀도 | 높음 | 낮음 |
| 용도 | 소형, 중대형 | 중대형 |
| 주요 생산국 | 한국, 일본 등 | 중국 |

(나) NCM과 LFP 배터리 차이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및 정리



- 최근에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니켈 함량을 60~70% → 80~90%로 크게 높인 ‘하이니켈 배터리’가 등장. 니켈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다소 증가하긴 하나 각 업체들의 기술력으로 보완해 NCM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한층 더 높아진 점이 특징
 - ※ 다만 하이니켈 배터리도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향후 차세대 배터리로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구성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을 전망
- 게다가 향후 5년 이후 배터리 대거 교체 주기가 도달함에 따라 업체들은 폐배터리 재활용⁷⁾ 기술을 차세대 기술로 지목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

※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30년 20.2조 원 → '50년 6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한국일보 '21.12월 원소스 SNE리서치)

- 한편 미국·EU 등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이차전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보 지속
 - (미국) ‘Buy America’ 정책을 기반으로 미국산이 아닌 전기차를 미국에 판매할 경우 징벌세(차량 가격의 10%) 부과를 예고. 미국산 전기차의 필수 조건은 배터리 셀 ‘현지 생산’인 점이 특징
 - (EU) ‘유럽 배터리 연합(European Battery Alliance)’을 출범('17.10월)해 아시아에 치중되어 있는 이차전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EU 권역 내 이차전지 공급망 구축에 사활
 - ※ 생산·유통·재활용까지 이차전지 전 주기에 걸친 공급 사슬을 유럽 내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 업체들은 급증하고 있는 이차전지 수요에 대비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잇따라 추진

- 국내 업체는 미국·EU 등의 자국 산업 보호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공장 이차전지 생산라인 증설,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등의 전략을 구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두 유지에 주력
 - (LG에너지솔루션) '22.1.27일 신규 상장을 통해 10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한 동 시는 이를 기반으로 북미·유럽·중국 등지의 글로벌 생산기지 생산 능력 확대를 예고
 - ※ '24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에 각각 5.6조 원, 1.4조 원, 1.2조 원을 투자해 현지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또한 국내 오창 공장에도 '23년까지 6,450억 원을 투자해 EV용 원통형 전지 생산라인을 구축할 예정
 - 먼저 북미 지역에서 GM과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 셀즈’의 제3 공장(美 미시간 주 랜싱) 설립 계획을 발표('22.1.25일). '24.하반기 준공을 목표('25년 1단계 양산 목표)로 총 26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생산 능력 50GWh⁸⁾를 확보할 계획
 - ※ 제3 공장 건설을 공식화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4 합작공장(연간 40GWh로 추정) 건설도 논의 중이라 밝히며 '22.상반기 이내에 구체적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 발표(2.2일)
 - 이로 인해 제1 공장('22년 양산, 35GWh 이상), 제2 공장('23년 양산, 35GWh)에 이어 제3 공장도 추가 설립함에 따라 '25년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지역 생산 능력은 160GWh를 넘어설 전망

7) 폐배터리 재활용 방식은 전기차용 폐배터리 중 잔존 가치가 70~80% 이상일 경우 ESS용 등으로 재사용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일 경우에는 폐배터리를 분해해 리튬, 코발트 등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방식 등으로 재활용

8)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7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

- 유럽 지역은 현재 70GWh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폴란드 공장을 중심으로 총 31억 유로를 투자해 생산 라인을 증설 중인 상황. '25년 생산 능력은 100GWh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유럽 배터리 수요의 60%를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
- 이외에도 중국, 인도네시아 공장 등의 생산 능력도 확대하며 글로벌 5각 생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물류비용 최소화, 현지 시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
- **(삼성SDI)** 헝가리 괴드 지역에 건설 중인 제2 공장을 '22년 내 완공하여 주요 고객사인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 제2 공장 본격 가동 시 동 사의 헝가리 공장 생산 능력은 연간 37~40GWh까지 늘어날 전망
 - ※ 현재 한국(9GWh), 중국(8GWh) 대비 헝가리(24GWh)의 중대형 이차전지 캐파(CAPA)가 세 배가량 큰 것으로 관측
- 최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4위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 설립 및 연간 23GWh 규모의 현지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상황. '25년 본격 양산에 돌입할 예정
- **(SK온)**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동 사는 '포드'와 협력해 美 테네시·켄터키 주에 연간 129GWh 규모의 합작 공장('25~'26년 가동 예정)을 건설할 계획. 이외에도 별도로 조지아 주에 3조 원을 투자해 2개의 공장을 증설하며 글로벌 생산 기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양새
 - ※ 조지아 주에 위치한 제1 공장(9.8GWh)은 '22.1분기에, 제2 공장(11.7GWh)은 '23.상반기에 가동될 예정
- 유럽 지역 주요 해외 공장인 헝가리 코마롬 1공장('19년 가동, 7.5GWh)에 이어 '22.1분기부터는 제2 공장(9.8GWh) 가동도 본격화할 계획. 또한 연간 30GWh의 생산 능력을 갖춘 헝가리 3공장 추가 건설을 위해 23억 달러('28년까지)를 투입할 예정
- 뿐만 아니라 중국 옌청 지역에도 25.3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30GWh의 배터리 4공장 건설을 시작 ('22.1.17일). '24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며 해당 공장 완공 시 동 사가 보유한 중국 내 공장 중 최대 규모일 것으로 관측
 - ※ SK온은 창저우(7GWh), 옌청(10GWh), 후이저우(10GWh) 등 중국 내 3개의 공장을 보유. 창저우는 베이징 자동차와, 옌청과 후이저우는 中 배터리 업체인 EVE에너지와 각각 합작한 공장인 반면 이번 옌청 배터리 4공장은 SK온의 중국 내 단독 생산 공장인 점이 특징

그림 2-6 | LG에너지솔루션 5각 생산체제 및 SK온 현지 공장 위치



(가) LG에너지솔루션 5각 생산체제



(나) SK온 현지 공장 위치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 글로벌 업체도 유럽 등을 중심으로 생산 라인을 확대, 유럽 업체들의 이차전지 시장 진입 행보도 눈길
 - **(CATL)** '21.12.22일 최대 고객사인 테슬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에 총 20억 유로를 투자하여 이차전지 제조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 발표. 또한 동 사의 해외 첫 생산 기지인 독일 에르푸르트 공장(연간 14GWh)을 '22년 가동할 예정
 -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수요 확대와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약 6조 원을 투자해 배터리 재활용 시설도 건설키로 결정
 - ※ (참고) '21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CATL(32.6%, GWh 기준)이 1위, LG에너지솔루션(20.3%) 2위, 파나소닉(12.2%) 3위 등을 차지. 특히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은 30.4%로 전년 대비 4.3%p 감소(조선비즈, '22.2월, 원소스 SNE리서치)
 - **(파나소닉)** 전기차 주행 거리를 20%가량 개선한 신제품 이차전지 양산 계획('23년)을 발표(1.25일). 해당 제품은 테슬라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이후 타 완성차 업체로도 판매 활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
 - 또한 일본 와카야마현에 800억 엔을 투입하여 공장을 증설할 것이라 발표. 연평균 10GW(전기차 1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어 예정
 - **(Northvolt)** 테슬라 배터리의 경쟁사이자 스웨덴 이차전지 제조업체인 동 사는 폭스바겐·BMW 등의 완성차 업체와 총 270억 달러가량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스웨덴 북부 스켈레프테아 공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셀 첫 생산을 시작('21.12.30일)해 이목이 집중
 - 또한 '25년까지 스웨덴 예테보리 지역에 볼보자동차와 함께 배터리 셀 공장을 준공할 것이라 발표('22.2.7일). 연간 최대 50GWh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23년부터 착공할 계획
 - ※ 이외에도 유럽 지역의 프랑스 SAFT, 독일 Varta가 이차전지 시장 진출을 발표했으며 노르웨이 FREYR도 비교적 저렴한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공장을 가동해 '25년까지 43GWh의 이차전지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

□ (수출 동향) '22.1월 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시장 확대, ESS용 배터리 수요 증가 등으로 4개월 연속 오름세

- **(전체)** 탄소 중립을 위한 글로벌 행보로 이차전지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22.1월 수출은 16.0% 증가한 7.3억 달러를 기록
- **(월별)** '21.3월(7.9억 달러, 25.3%↑) 이차전지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돌파하며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 이어 6월(8.1억 달러, 39.4%↑) 수출은 독일(9.8%↑)·폴란드(236.8%↑)·호주(107.4%↑)·베트남(23.4%↑) 등의 이차전지 수요 견조세로 다시 한번 역대 수출치를 경신하며 최대 실적을 재달성해 눈길
 - ※ 축전지 역대 수출액 Top3(IITP, KTSPI, 억 달러) : (1위) ('21.6월) 8.1, (2위) (3월) 7.9, (3위) (7월) 7.9
- '21.9월 수출(7.2억 달러, △2.0%)은 잠시 주춤했으나 바로 성장 전환하며 4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유지

- (연간) '16년(49.7억 달러, 8.7%↑) ESS용 이차전지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 반등을 기록. 이어 5G 및 전기차 시대 개화 등으로 시장이 점차 빠르게 변화하며 이차전지 수요처가 확대됨에 따라 '18년(72.3억 달러, 21.4%↑) 70억 달러대를 첫 돌파해 눈길
- '21년(86.7억 달러, 15.5%↑)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 등으로 내연기관차→전기차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6년 연속 호조세. 향후 범국가적 탄소 중립 행보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이차전지 수출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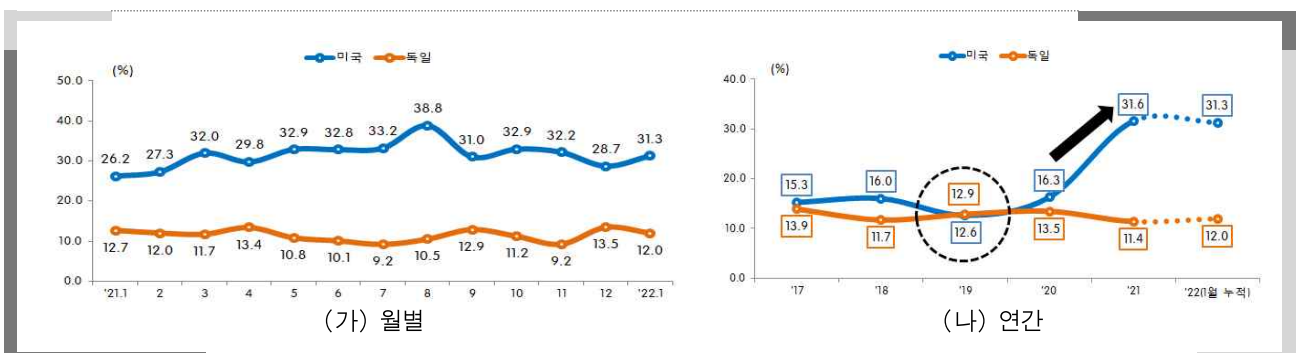
그림 2-7 월별 및 연간 축전지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 (국가별) 이차전지 최대 교역국인 미국·독일 등은 호조세 기록, 한편 미국 수출 비중이 급격한 속도로 확대돼 눈길
- 미국(2.3억 달러, 38.5%↑)은 '20.5월 수출 1위를 탈환한 데 이어 '21.상반기 세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며 '96.2월 이후 기준 '21.8월(2.7억 달러, 146.4%↑) 역대 수출액을 기록. '22.1월 독일과의 점유율 격차도 19.3%p로 크게 벌어지며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점에 주목
- 독일(0.9억 달러, 9.6%↑)은 '19.9월(1.0억 달러, 57.9%↑)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19년(12.9%↑) 수출 1위국을 차지했으나 '20년(5.9%↑)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21년(9.9억 달러, △2.3%) 하락 국면으로 전환. 하지만 '21.12월(1.0억 달러, 22.9%↑) 반등하며 2개월 연속 성장

그림 2-8 주요 국가별 축전지 수출 비중 추이



자료 : IITP, KTSPi



□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1일 국내 정식 발효

- 전 세계 GDP, 인구, 교역 규모의 1/3에 달하는 초대형 경제블록인 RCEP, 참여국 간의 수출 환경 개선이 기대
 - RCEP는 非아세안(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5개국과 아세안(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10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무역 협정
 - ※ 인도는 RCEP 출범('20.11월) 시부터 협상에 참여했으나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해 막바지 탈퇴를 선언
 - 15개국은 호혜주의 원칙에 따른 관세 인하 및 철폐, 원산지 인정 기준 통일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며 특히 수출 규제로 냉기류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의미
 - 한국은 RCEP 가입을 통해 자동차, 철강, 부품 등 기존 수출 주력 제품과 함께 게임, 영화 등의 콘텐츠 측면으로 수출 영역 확대가 기대되며, 한·아세안 간 91.9~94.5%, 한·일 간 83%, 한국과 중국·호주·뉴질랜드 간 91% 등 단계적 관세 철폐 및 인하도 진행될 계획
 - ※ 일본은 수입액 기준 14%, 품목 수 기준 41.7%에 해당하는 한국 수입품에 대해 20년 내로 관세 철폐 및 인하 예정

표 2-4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 주요 내용 | 기대효과 |
|----------------|--|---|
| 최신 무역 규범 확립 | •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지식 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 규범 확보 | • RCEP 역내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 |
| 원활한 무역 기반 마련 | • RCEP 역내 국가 간 다른 원산지 기준 통일 및 원산지 증명 절차 개선 | • 원산지 증명 및 신고 절차 간소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비용 절감 |
| 서비스 및 투자 규범 개선 | • 기존 아세안 등과의 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요소 강화, 투자 자유화·보호규범 확보 | • 핀테크·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 확보 |

자료 : 언론 자료 재인용

□ 美, 지난해 종료된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中의 이행 미흡에 무역법 개정 필요성 제기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은 60% 수준에 그치며 만료, 이에 美 무역대표부는 전략 변화 필요성을 언급해 미·중 무역전쟁 재발이 우려
 - 미·중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2년간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美산 상품·서비스를 추가 구매해야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행률이 60% 수준에 불과
 - 또한 美는 中의 반시장 정책 및 관행인 과도한 보조금 정책, 국영 기업 등의 핵심 문제도 여전히 해결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무역법을 모색하여 대응할 것이라 예고, 무역전쟁 재점화가 우려

□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우크라이나 사태, 2.22일 美는 러의 행위를 ‘침공’이라 규정하며 동맹을 주축으로 본격 제재에 돌입. 마·러 간의 신냉전 구도가 가시화

-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
 - NATO 진영인 유럽과 러시아의 지리적 경계에 위치한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본격 희망함에 따라 러시아 vs 서방 국가 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
 - (러시아) 국가 안보 보안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금지, 서방국의 무기 공급 중단 및 철수, NATO의 동진 금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연합훈련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러시아·미국 간 안전보장 조약안 초안을 美에 전달('21.12.15일)
 - ※ 이에 미국과 NATO는 '22.1.26일 러시아 측에 서면 답변을 보냈으나 러시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군사적 위협을 강화
 - (서방 국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군사적 공격을 실행할 경우 단호한 대응은 물론 對러 경제·금융제재도 도입할 것이라 경고

- 러시아가 군사적 요소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하는 주요 근거
 - (지리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가 아닌 러시아에 속해있는 타 지역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팽배. 또한 유럽 국가로의 천연가스 수출은 우크라이나를 관통하고 있는 수송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원활한 유럽 수출로의 역할도 존재
 - (경제적) 러시아의 주 수입원은 석유, 천연가스로 에너지에 국한되어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유전과 더불어 러시아에 부족한 대규모 식량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어 비상 상황을 대비해 자국 영향 아래에 두고자 함

- '22.2.17일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내전이 발발한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마·러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양국이 원칙적으로 수락하며 일시적인 긴장 완화 흐름
 - **2.15일** 러시아는 '21.11월 이후부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증강해온 병력 일부를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으나 美는 러시아의 주장과 달리 러시아 주력 전투부대 75%가 우크라이나를 여전히 겨냥 배치되어 있다 판단하며 러의 침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 미국 측은 러시아가 침공할 공산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공격 시기로는 2.16일 2.20일을 선정.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는 13~19만 명의 러시아 군이 결집해 있고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군 20만 명, 폴란드에 미군 9,200명, 독일에 미군 34,300명, 발트 3국에 NATO군 4,000명이 배치돼 비상 상황에 대비
 - **2.17일** 친러시아 반군은 우크라이나 루간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박격포, 수류탄 등 네 차례의 선제적인 공격을 가했다 주장하며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 vs 반군 간 교전이 발발
 -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친러 반군이 오히려 공격했으며 대응 공격도 하지 않았다 발표.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 구실을 찾기 위한 위장 작전일 것이라 분석

- 이에 우크라이나 내의 대피 행렬이 지속되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심각하게 조성되는 분위기 속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美 조 바이든 대통령과 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마·러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
 - ※ 2.21일 양측은 이를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2.24일 마·러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불발
-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 독립을 선포하고 러시아군 투입을 단행, 美는 이를 명백한 침공으로 규정하며 제재를 시행해 양국의 갈등은 일촉즉발의 수준으로 격화
- 2.21일 푸틴 대통령은 친러시아 세력이 분포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군대 파견을 공식 지시
- 2.22일 이로 인해 美는 러의 행보를 ‘침공’으로 규정하며 2.24일 예정된 마·러 정상회담도 취소
- 게다가 예고했던 대로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과 방위산업 특수은행인 PSB 및 42개 자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려 서방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였고 이들에 대한 해외 자산도 동결하며 금융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對러 첫 경제 제재를 시행
- EU, 영국 등 서방 국가들도 국제법과 국제적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규탄하며 제재에 동참
 - ※ 독일은 러-독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 중단을 결정하였고, 영국은 러시아 은행 5곳 등을 제재. EU 또한 DPR, LPR 지역과 EU 간 무역 금지, EU 금융 시장에서의 러시아 자금 조달 제한 등을 시행할 것이라 발표
-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도 현재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이 러시아에 대한 첨단 제품 수출 통제 지지 의지를 피력하며 對러 제재에 동참 예정. 국제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 속 향후 귀추가 주목
 - ※ 2.24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특별 군사 작전을 선포하며 공격을 본격 개시. 이에 美는 곧바로 “근거 없는 공격으로 전쟁을 선택한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 전쟁이 현실화되는 양상

그림 2-9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접경지역 및 분쟁 일지



자료 : 언론 자료 재인용 / 언론 자료 정리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의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갈등까지 빚어지며 국내 기업의 수출 타격이 우려, 대응 방안 마련에 촉각
- 우리나라는 러시아·우크라이나로부터 에너지 원자재, 반도체용 희귀광물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어 양국의 갈등으로 제조 원가 상승, 수급 차질 등에 직면할 수 있어 우려



III

부록





III

부록

1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 구 분 | 2020년 | | | 2021년 | | | | | |
|--------------------|-----------|------|-------|---------|------|-------|-----------|------|-------|
| | | | | 11월 당월 | | | 11월 누적 | | |
| | 금액 | 증감률 | 비중 | 금액 | 증감률 | 비중 | 금액 | 증감률 | 비중 |
| ICT 전체 | 4,793,643 | 3.6 | 100.0 | 458,981 | 9.9 | 100.0 | 4,744,324 | 9.2 | 100.0 |
| ○ 정보통신방송기기 | 3,320,840 | 2.9 | 69.3 | 331,684 | 14.8 | 72.3 | 3,348,214 | 11.0 | 70.6 |
| - 전자부품 | 2,046,771 | 2.4 | 42.7 | 208,318 | 17.0 | 45.4 | 2,090,182 | 12.5 | 44.1 |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149,785 | 44.4 | 3.1 | 17,098 | 47.6 | 3.7 | 158,573 | 14.6 | 3.3 |
| - 통신 및 방송기기 | 374,177 | 2.1 | 7.8 | 35,149 | 10.7 | 7.7 | 352,229 | 3.3 | 7.4 |
| - 영상 및 음향기기 | 83,124 | -5.5 | 1.7 | 8,657 | 32.4 | 1.9 | 83,307 | 8.8 | 1.8 |
| - 정보통신응용기기 | 666,983 | -0.4 | 13.9 | 62,462 | 2.4 | 13.6 | 663,924 | 9.9 | 14.0 |
|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808,327 | 3.4 | 16.9 | 68,959 | -0.2 | 15.0 | 775,693 | 5.2 | 16.3 |
| - 통신서비스 | 370,695 | 1.7 | 7.7 | 31,006 | -0.3 | 6.8 | 341,282 | 0.7 | 7.2 |
| · 유선통신서비스 | 101,257 | -0.3 | 2.1 | 8,201 | -1.9 | 1.8 | 91,845 | -0.9 | 1.9 |
| · 무선통신서비스 | 247,970 | 3.0 | 5.2 | 21,021 | 0.4 | 4.6 | 229,889 | 1.4 | 4.8 |
|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 21,469 | -3.8 | 0.4 | 1,784 | -0.1 | 0.4 | 19,548 | -0.7 | 0.4 |
| - 방송서비스 | 196,387 | 2.9 | 4.1 | 16,442 | 0.4 | 3.6 | 185,808 | 3.7 | 3.9 |
| · 지상파방송서비스 | 34,144 | -3.2 | 0.7 | 3,343 | 8.3 | 0.7 | 33,819 | 9.9 | 0.7 |
| · 유료방송서비스 | 69,218 | 7.7 | 1.4 | 5,870 | -0.3 | 1.3 | 65,768 | 3.7 | 1.4 |
|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 92,476 | 1.8 | 1.9 | 7,182 | -2.4 | 1.6 | 85,715 | 1.4 | 1.8 |
| · 기타방송서비스 | 548 | -0.3 | 0.0 | 47 | -6.6 | 0.0 | 506 | 2.7 | 0.0 |
| - 정보서비스 | 241,245 | 6.7 | 5.0 | 21,511 | -0.5 | 4.7 | 248,603 | 13.5 | 5.2 |
| · 정보인프라서비스 | 39,152 | -2.4 | 0.8 | 3,746 | 15.2 | 0.8 | 38,799 | 8.1 | 0.8 |
| ·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 | 202,093 | 8.7 | 4.2 | 17,765 | -3.3 | 3.9 | 209,804 | 14.5 | 4.4 |
| ○ 소프트웨어 | 664,477 | 7.2 | 13.9 | 58,338 | -2.4 | 12.7 | 620,417 | 5.2 | 13.1 |
| - 패키지 소프트웨어 | 131,326 | 7.7 | 2.7 | 11,584 | -1.0 | 2.5 | 122,738 | 8.3 | 2.6 |
| - 게임 소프트웨어 | 141,106 | 17.2 | 2.9 | 11,905 | 4.7 | 2.6 | 127,416 | 1.1 | 2.7 |
| - IT 서비스 | 392,045 | 3.9 | 8.2 | 34,850 | -5.0 | 7.6 | 370,263 | 5.6 | 7.8 |

자료 : KEA, KAIT, 2022.2.

2 2022년 1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 구 분 | 수 출 | | | 수 입 | | | 무역수지 | |
|-------|---------|---------|-------|---------|---------|------|-------|---------|
| | 전체산업 | ICT산업 | 증감률 | 전체산업 | ICT산업 | 증감률 | 전체산업 | ICT산업 |
| | | | | | | | | |
| 2013년 | 5,596.3 | 1,726.8 | 11.2 | 5,155.9 | 818.0 | 4.9 | 440.5 | 908.8 |
| 2014년 | 5,726.6 | 1,762.3 | 2.1 | 5,255.1 | 881.7 | 7.8 | 471.5 | 880.7 |
| 2015년 | 5,267.6 | 1,728.7 | -1.9 | 4,365.0 | 913.3 | 3.6 | 902.6 | 815.4 |
| 2016년 | 4,954.3 | 1,624.6 | -6.0 | 4,061.9 | 898.1 | -1.7 | 892.3 | 726.5 |
| 2017년 | 5,736.9 | 1,975.7 | 21.6 | 4,784.8 | 1,020.7 | 13.7 | 952.2 | 955.0 |
| 2018년 | 6,048.6 | 2,203.4 | 11.5 | 5,352.0 | 1,071.2 | 4.9 | 696.6 | 1,132.2 |
| 2019년 | 5,422.3 | 1,768.6 | -19.7 | 5,033.4 | 1,083.7 | 1.2 | 388.9 | 684.9 |
| 2020년 | 5,125.0 | 1,835.1 | 3.8 | 4,676.3 | 1,126.3 | 3.9 | 448.7 | 708.8 |
| 2021년 | 6,445.4 | 2,276.1 | 24.3 | 6,150.4 | 1,350.1 | 19.7 | 295.0 | 926.0 |
| 1/4분기 | 1,464.2 | 498.6 | 14.1 | 1,365.1 | 312.3 | 19.0 | 99.1 | 186.3 |
| 2/4분기 | 1,567.4 | 548.1 | 30.1 | 1,491.7 | 322.0 | 18.9 | 75.8 | 226.1 |
| 3/4분기 | 1,645.7 | 622.3 | 28.0 | 1,568.7 | 343.6 | 18.8 | 77.0 | 278.7 |
| 4/4분기 | 1,768.1 | 647.7 | 24.8 | 1,725.0 | 384.2 | 21.8 | 43.1 | 263.6 |
| 상반기 | 3,031.6 | 1,046.7 | 22.0 | 2,856.8 | 634.3 | 18.9 | 174.8 | 412.4 |
| 하반기 | 3,413.8 | 1,270.0 | 26.3 | 3,293.7 | 727.8 | 20.4 | 120.1 | 542.3 |
| 1월 | 480.1 | 162.8 | 22.3 | 444.2 | 107.7 | 21.7 | 35.9 | 55.1 |
| 2월 | 447.1 | 152.6 | 11.8 | 423.6 | 92.0 | 19.5 | 23.5 | 60.6 |
| 3월 | 537.0 | 174.1 | 9.2 | 497.3 | 109.5 | 15.9 | 39.7 | 64.6 |
| 4월 | 512.2 | 170.5 | 32.8 | 508.6 | 107.9 | 21.6 | 3.6 | 62.6 |
| 5월 | 507.3 | 177.3 | 28.0 | 478.9 | 105.2 | 17.7 | 28.4 | 72.1 |
| 6월 | 547.9 | 193.0 | 29.6 | 504.2 | 105.8 | 17.6 | 43.7 | 87.1 |
| 7월 | 554.8 | 194.8 | 30.4 | 536.7 | 113.2 | 14.5 | 18.1 | 81.5 |
| 8월 | 531.7 | 202.3 | 33.5 | 515.8 | 113.9 | 23.7 | 15.9 | 88.5 |
| 9월 | 559.2 | 213.3 | 21.2 | 516.2 | 113.7 | 18.6 | 43.0 | 99.6 |
| 10월 | 556.6 | 199.1 | 21.8 | 538.3 | 121.1 | 18.2 | 18.3 | 78.0 |
| 11월 | 604.1 | 214.9 | 29.6 | 573.5 | 127.7 | 23.0 | 30.6 | 87.2 |
| 12월 | 607.4 | 221.4 | 23.0 | 613.2 | 132.4 | 24.0 | -5.8 | 89.0 |
| 2022년 | 553.2 | 196.5 | 20.7 | 602.1 | 123.2 | 14.4 | -48.9 | 73.3 |
| 1월 | 553.2 | 196.5 | 20.7 | 602.1 | 123.2 | 14.4 | -48.9 | 73.3 |

자료 : IITP, KTSPI



표 3-3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 구 분 | 2020년 | | | 2021년 | | | 2022년 1월 |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정보통신방송기기 | 183,509 | 3.8 | 100.0 | 227,608 | 24.0 | 100.0 | 19,637 | 20.6 | 100.0 |
| ○전자부품 | 131,075 | 3.4 | 71.4 | 165,059 | 25.9 | 72.5 | 14,243 | 20.6 | 72.5 |
| - 반도체 | 100,251 | 5.4 | 54.6 | 128,699 | 28.4 | 56.5 | 10,892 | 24.1 | 55.5 |
| · 메모리반도체 | 63,929 | 1.5 | 34.8 | 82,431 | 28.9 | 36.2 | 6,482 | 21.9 | 33.0 |
| · 시스템반도체 | 30,263 | 17.8 | 16.5 | 39,752 | 31.4 | 17.5 | 3,867 | 33.0 | 19.7 |
| - 디스플레이 | 20,713 | -5.1 | 11.3 | 24,657 | 19.0 | 10.8 | 2,350 | 13.3 | 12.0 |
| - 전자관 | 4 | -11.9 | 0.0 | 5 | 17.1 | 0.0 | 0 | -35.5 | 0.0 |
| - 수동부품 | 2,032 | 6.5 | 1.1 | 2,344 | 15.4 | 1.0 | 185 | -7.9 | 0.9 |
| PCB | 5,032 | 4.8 | 2.7 | 5,790 | 15.1 | 2.5 | 506 | 9.7 | 2.6 |
| - 접속부품 | 2,853 | -0.3 | 1.6 | 3,338 | 17.0 | 1.5 | 290 | 3.0 | 1.5 |
| - 기타전자부품 | 132 | -17.0 | 0.1 | 160 | 21.0 | 0.1 | 14 | 4.6 | 0.1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13,907 | 53.0 | 7.6 | 17,386 | 25.0 | 7.6 | 1,532 | 54.3 | 7.8 |
| - 컴퓨터 | 2,061 | 4.2 | 1.1 | 2,293 | 11.3 | 1.0 | 97 | -40.0 | 0.5 |
| - 주변기기 | 11,846 | 66.6 | 6.5 | 15,093 | 27.4 | 6.6 | 1,435 | 72.7 | 7.3 |
| · 디스플레이장치 | 580 | -39.1 | 0.3 | 745 | 28.5 | 0.3 | 126 | 191.8 | 0.6 |
| · 프린터(부분품포함) | 362 | -16.1 | 0.2 | 415 | 14.4 | 0.2 | 37 | 15.5 | 0.2 |
| · 보조기억장치 | 10,107 | 100.0 | 5.5 | 12,954 | 28.2 | 5.7 | 1,206 | 71.2 | 6.1 |
| ○통신 및 방송기기 | 13,677 | -5.3 | 7.5 | 16,741 | 22.4 | 7.4 | 1,399 | 0.8 | 7.1 |
| - 통신기기 | 13,208 | -6.0 | 7.2 | 16,171 | 22.4 | 7.1 | 1,256 | -6.5 | 6.4 |
| · 유선통신기기 | 825 | -1.0 | 0.4 | 957 | 16.0 | 0.4 | 90 | 64.8 | 0.5 |
| · 무선통신기기 | 12,383 | -6.3 | 6.7 | 15,214 | 22.9 | 6.7 | 1,166 | -9.5 | 5.9 |
| 휴대폰(부분품 포함) | 11,228 | -6.3 | 6.1 | 13,994 | 24.6 | 6.1 | 1,038 | -12.9 | 5.3 |
| - 방송용 장비 | 469 | 21.0 | 0.3 | 571 | 21.6 | 0.3 | 142 | 231.4 | 0.7 |
| ○영상 및 음향기기 | 2,627 | -40.8 | 1.4 | 2,367 | -9.9 | 1.0 | 199 | 7.1 | 1.0 |
| - 영상기기 | 1,784 | -48.1 | 1.0 | 1,528 | -14.4 | 0.7 | 120 | 7.4 | 0.6 |
| · TV | 1,474 | -51.8 | 0.8 | 1,065 | -27.7 | 0.5 | 79 | 0.8 | 0.4 |
| LCD TV | 198 | -47.6 | 0.1 | 34 | -82.9 | 0.0 | 4 | 108.5 | 0.0 |
| TV 부분품 | 1,166 | -54.7 | 0.6 | 1,014 | -13.0 | 0.4 | 74 | -2.3 | 0.4 |
| · 셋탑박스 | 13 | -39.0 | 0.0 | 22 | 66.0 | 0.0 | 1 | -47.0 | 0.0 |
| - 음향기기 | 802 | -16.3 | 0.4 | 802 | -0.1 | 0.4 | 76 | 6.3 | 0.4 |
| - 기타 영상음향기기 | 40 | 2.2 | 0.0 | 38 | -6.4 | 0.0 | 3 | 15.7 | 0.0 |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22,222 | 0.5 | 12.1 | 26,055 | 17.3 | 11.4 | 2,265 | 19.2 | 11.5 |
| -가정용전기기기 | 4,197 | 16.5 | 2.3 | 5,709 | 36.0 | 2.5 | 580 | 53.0 | 3.0 |
| -사무용기기 | 341 | 3.9 | 0.2 | 427 | 25.0 | 0.2 | 20 | -24.2 | 0.1 |
| -의료용기기 | 2,041 | -4.3 | 1.1 | 2,564 | 25.6 | 1.1 | 205 | 20.0 | 1.0 |
| -전기 장비 | 10,435 | -0.8 | 5.7 | 11,920 | 14.2 | 5.2 | 1,057 | 20.2 | 5.4 |
| · 일차전지 및 축전지 | 7,614 | 1.0 | 4.1 | 8,775 | 15.2 | 3.9 | 735 | 15.6 | 3.7 |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4 |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 구 분 | 2020년 | | | 2021년 | | | 2022년 1월 |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정보통신방송기기 | 112,628 | 3.9 | 100.0 | 135,024 | 19.9 | 100.0 | 12,319 | 14.3 | 100.0 |
| ○ 전자부품 | 61,644 | 5.6 | 54.7 | 74,610 | 21.0 | 55.3 | 6,966 | 26.5 | 56.5 |
| - 반도체 | 50,627 | 6.8 | 45.0 | 61,719 | 21.9 | 45.7 | 5,774 | 26.5 | 46.9 |
| · 메모리반도체 | 18,887 | -2.2 | 16.8 | 21,579 | 14.2 | 16.0 | 2,155 | 40.5 | 17.5 |
| · 시스템반도체 | 24,650 | 18.7 | 21.9 | 31,479 | 27.7 | 23.3 | 2,862 | 20.1 | 23.2 |
| - 디스플레이 | 3,818 | -8.0 | 3.4 | 3,869 | 1.3 | 2.9 | 430 | 65.0 | 3.5 |
| - 전자관 | 56 | 34.6 | 0.0 | 64 | 14.5 | 0.0 | 7 | 57.2 | 0.1 |
| - 수동부품 | 2,229 | 12.7 | 2.0 | 2,800 | 25.6 | 2.1 | 224 | 8.7 | 1.8 |
| PCB | 2,364 | 4.8 | 2.1 | 3,101 | 31.2 | 2.3 | 279 | 21.0 | 2.3 |
| - 접속부품 | 2,169 | -2.1 | 1.9 | 2,518 | 16.1 | 1.9 | 194 | -4.0 | 1.6 |
| - 기타전자부품 | 287 | 4.6 | 0.3 | 436 | 52.0 | 0.3 | 51 | 62.7 | 0.4 |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13,425 | 16.6 | 11.9 | 16,749 | 24.8 | 12.4 | 1,915 | 20.6 | 15.5 |
| - 컴퓨터 | 7,954 | 14.6 | 7.1 | 10,233 | 28.7 | 7.6 | 1,181 | 13.8 | 9.6 |
| - 주변기기 | 5,472 | 19.5 | 4.9 | 6,516 | 19.1 | 4.8 | 735 | 33.6 | 6.0 |
| · 디스플레이장치 | 877 | 20.1 | 0.8 | 1,090 | 24.4 | 0.8 | 142 | 31.9 | 1.2 |
| · 프린터(부분품포함) | 867 | -1.8 | 0.8 | 963 | 11.1 | 0.7 | 77 | -10.2 | 0.6 |
| · 보조기억장치 | 2,669 | 34.5 | 2.4 | 3,243 | 21.5 | 2.4 | 395 | 63.8 | 3.2 |
| ○ 통신 및 방송기기 | 14,509 | -5.9 | 12.9 | 16,362 | 12.8 | 12.1 | 1,097 | -32.3 | 8.9 |
| - 통신기기 | 14,033 | -6.9 | 12.5 | 15,815 | 12.7 | 11.7 | 1,018 | -35.5 | 8.3 |
| · 유선통신기기 | 1,916 | -10.8 | 1.7 | 2,131 | 11.2 | 1.6 | 143 | -16.1 | 1.2 |
| · 무선통신기기 | 12,117 | -6.2 | 10.8 | 13,684 | 12.9 | 10.1 | 875 | -37.8 | 7.1 |
| 휴대폰(부분품 포함) | 9,067 | -8.8 | 8.1 | 10,176 | 12.2 | 7.5 | 555 | -48.9 | 4.5 |
| - 방송용 장비 | 476 | 35.1 | 0.4 | 547 | 14.8 | 0.4 | 79 | 81.2 | 0.6 |
| ○ 영상 및 음향기기 | 3,378 | -26.0 | 3.0 | 3,915 | 15.9 | 2.9 | 357 | 6.9 | 2.9 |
| - 영상기기 | 2,144 | -33.7 | 1.9 | 2,464 | 14.9 | 1.8 | 235 | 10.1 | 1.9 |
| · TV | 1,600 | -40.5 | 1.4 | 1,891 | 18.2 | 1.4 | 178 | 0.1 | 1.4 |
| LCD TV | 663 | 10.6 | 0.6 | 929 | 40.0 | 0.7 | 89 | -1.0 | 0.7 |
| TV 부분품 | 819 | -59.0 | 0.7 | 575 | -29.7 | 0.4 | 57 | 0.9 | 0.5 |
| · 셋탑박스 | 193 | 17.8 | 0.2 | 214 | 11.0 | 0.2 | 15 | 37.5 | 0.1 |
| - 음향기기 | 1,004 | -6.1 | 0.9 | 1,099 | 9.5 | 0.8 | 94 | 2.3 | 0.8 |
| - 기타 영상음향기기 | 231 | -12.9 | 0.2 | 353 | 52.8 | 0.3 | 28 | -1.9 | 0.2 |
|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19,672 | 6.5 | 17.5 | 23,388 | 18.9 | 17.3 | 1,985 | 14.9 | 16.1 |
| -가정용전기기기 | 3,945 | 9.5 | 3.5 | 4,560 | 15.6 | 3.4 | 402 | 22.1 | 3.3 |
| -사무용기기 | 32 | -28.5 | 0.0 | 33 | 2.5 | 0.0 | 3 | -8.2 | 0.0 |
| -의료용기기 | 2,183 | 4.2 | 1.9 | 2,287 | 4.8 | 1.7 | 195 | 14.1 | 1.6 |
| -전기 장비 | 5,905 | 10.9 | 5.2 | 8,256 | 39.8 | 6.1 | 790 | 32.7 | 6.4 |
| · 일차전지 및 축전지 | 2,524 | 12.1 | 2.2 | 4,191 | 66.1 | 3.1 | 430 | 87.8 | 3.5 |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5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 구 분 | 2020년 | | | 2021년 | | | 2022년 1월 | | |
|--------------|---------|---------|--------|---------|---------|--------|----------|--------|--------|
| | 수출 | 수입 | 수지 | 수출 | 수입 | 수지 | 수출 | 수입 | 수지 |
| 정보통신방송기기 | 183,509 | 112,628 | 70,881 | 227,608 | 135,024 | 92,584 | 19,637 | 12,319 | 7,318 |
| ○전자부품 | 131,075 | 61,644 | 69,432 | 165,059 | 74,610 | 90,448 | 14,243 | 6,966 | 7,277 |
| - 반도체 | 100,251 | 50,627 | 49,624 | 128,699 | 61,719 | 66,980 | 10,892 | 5,774 | 5,117 |
| · 메모리반도체 | 63,929 | 18,887 | 45,041 | 82,431 | 21,579 | 60,852 | 6,482 | 2,155 | 4,327 |
| · 시스템반도체 | 30,263 | 24,650 | 5,613 | 39,752 | 31,479 | 8,273 | 3,867 | 2,862 | 1,005 |
| - 디스플레이 | 20,713 | 3,818 | 16,895 | 24,657 | 3,869 | 20,788 | 2,350 | 430 | 1,919 |
| - 전자관 | 4 | 56 | -52 | 5 | 64 | -59 | 0 | 7 | -6 |
| - 수동부품 | 2,032 | 2,229 | -198 | 2,344 | 2,800 | -456 | 185 | 224 | -39 |
| PCB | 5,032 | 2,364 | 2,669 | 5,790 | 3,101 | 2,689 | 506 | 279 | 227 |
| - 접속부품 | 2,853 | 2,169 | 684 | 3,338 | 2,518 | 820 | 290 | 194 | 96 |
| - 기타전자부품 | 132 | 287 | -154 | 160 | 436 | -276 | 14 | 51 | -37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13,907 | 13,425 | 482 | 17,386 | 16,749 | 637 | 1,532 | 1,915 | -383 |
| - 컴퓨터 | 2,061 | 7,954 | -5,893 | 2,293 | 10,233 | -7,940 | 97 | 1,181 | -1,083 |
| - 주변기기 | 11,846 | 5,472 | 6,375 | 15,093 | 6,516 | 8,577 | 1,435 | 735 | 701 |
| · 디스플레이장치 | 580 | 877 | -297 | 745 | 1,090 | -345 | 126 | 142 | -16 |
| · 프린터(부분품포함) | 362 | 867 | -504 | 415 | 963 | -548 | 37 | 77 | -41 |
| · 보조기억장치 | 10,107 | 2,669 | 7,438 | 12,954 | 3,243 | 9,711 | 1,206 | 395 | 811 |
| ○통신 및 방송기기 | 13,677 | 14,509 | -831 | 16,741 | 16,362 | 380 | 1,399 | 1,097 | 302 |
| - 통신기기 | 13,208 | 14,033 | -824 | 16,171 | 15,815 | 356 | 1,256 | 1,018 | 238 |
| · 유선통신기기 | 825 | 1,916 | -1,091 | 957 | 2,131 | -1,174 | 90 | 143 | -53 |
| · 무선통신기기 | 12,383 | 12,117 | 267 | 15,214 | 13,684 | 1,530 | 1,166 | 875 | 291 |
| 휴대폰(부분품 포함) | 11,228 | 9,067 | 2,161 | 13,994 | 10,176 | 3,818 | 1,038 | 555 | 483 |
| - 방송용 장비 | 469 | 476 | -7 | 571 | 547 | 24 | 142 | 79 | 63 |
| ○영상 및 음향기기 | 2,627 | 3,378 | -751 | 2,367 | 3,915 | -1,548 | 199 | 357 | -158 |
| - 영상기기 | 1,784 | 2,144 | -359 | 1,528 | 2,464 | -936 | 120 | 235 | -115 |
| · TV | 1,474 | 1,600 | -126 | 1,065 | 1,891 | -826 | 79 | 178 | -99 |
| LCD TV | 198 | 663 | -465 | 34 | 929 | -895 | 4 | 89 | -85 |
| TV 부분품 | 1,166 | 819 | 347 | 1,014 | 575 | 439 | 74 | 57 | 17 |
| · 셋탑박스 | 13 | 193 | -179 | 22 | 214 | -192 | 1 | 15 | -13 |
| - 음향기기 | 802 | 1,004 | -201 | 802 | 1,099 | -297 | 76 | 94 | -19 |
| - 기타 영상음향기기 | 40 | 231 | -190 | 38 | 353 | -315 | 3 | 28 | -25 |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22,222 | 19,672 | 2,550 | 26,055 | 23,388 | 2,667 | 2,265 | 1,985 | 280 |
| -가정용전기기기 | 4,197 | 3,945 | 253 | 5,709 | 4,560 | 1,149 | 580 | 402 | 179 |
| -사무용기기 | 341 | 32 | 310 | 427 | 33 | 394 | 20 | 3 | 17 |
| -의료용기기 | 2,041 | 2,183 | -142 | 2,564 | 2,287 | 277 | 205 | 195 | 10 |
| -전기 장비 | 10,435 | 5,905 | 4,530 | 11,920 | 8,256 | 3,664 | 1,057 | 790 | 267 |
| · 일차전지 및 축전지 | 7,614 | 2,524 | 5,090 | 8,775 | 4,191 | 4,583 | 735 | 430 | 305 |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6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 구 분 | 2020년 | | | 2021년 | | | 2022년 1월 |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전세계 | 183,509 | 3.8 | 100.0 | 227,608 | 24.0 | 100.0 | 19,637 | 20.6 | 100.0 |
| ○ 아시아 | 141,680 | 3.2 | 77.2 | 176,605 | 24.7 | 77.6 | 15,715 | 23.4 | 80.0 |
| - 중국(홍콩 포함) | 86,872 | 0.1 | 47.3 | 107,525 | 23.8 | 47.2 | 9,203 | 24.3 | 46.9 |
| - 일 본 | 3,899 | -5.2 | 2.1 | 4,314 | 10.7 | 1.9 | 343 | 1.5 | 1.7 |
| - ASEAN | 40,512 | 7.9 | 22.1 | 49,033 | 21.0 | 21.5 | 4,701 | 22.2 | 23.9 |
| · 싱가포르 | 3,231 | 12.6 | 1.8 | 4,775 | 47.8 | 2.1 | 512 | 92.8 | 2.6 |
| · 인 니 | 779 | -9.2 | 0.4 | 893 | 14.7 | 0.4 | 91 | 36.6 | 0.5 |
| · 말 련 | 2,101 | 3.2 | 1.1 | 2,507 | 19.3 | 1.1 | 215 | 16.2 | 1.1 |
| · 태 국 | 1,130 | 1.3 | 0.6 | 1,354 | 19.8 | 0.6 | 153 | 49.7 | 0.8 |
| · 베트남 | 29,763 | 9.6 | 16.2 | 35,133 | 18.0 | 15.4 | 3,316 | 12.4 | 16.9 |
| - 대 만 | 7,937 | 40.2 | 4.3 | 12,671 | 59.6 | 5.6 | 1,112 | 26.9 | 5.7 |
| - 인 도 | 2,221 | -20.9 | 1.2 | 2,781 | 25.2 | 1.2 | 338 | 35.3 | 1.7 |
| ○ 북미 | 22,771 | 18.3 | 12.4 | 28,776 | 26.4 | 12.6 | 2,153 | 10.2 | 11.0 |
| - 미 국 | 22,085 | 20.2 | 12.0 | 27,947 | 26.5 | 12.3 | 2,062 | 8.6 | 10.5 |
| - 캐나다 | 589 | -24.9 | 0.3 | 714 | 21.2 | 0.3 | 80 | 77.9 | 0.4 |
| ○ 유럽 | 12,566 | 4.7 | 6.8 | 15,286 | 21.6 | 6.7 | 1,211 | 16.1 | 6.2 |
| - 유럽연합 | 10,402 | 2.3 | 5.7 | 12,771 | 22.8 | 5.6 | 1,046 | 16.1 | 5.3 |
| · 독 일 | 2,890 | 3.0 | 1.6 | 3,522 | 21.9 | 1.5 | 251 | -7.5 | 1.3 |
| · 프랑스 | 595 | -29.0 | 0.3 | 844 | 41.9 | 0.4 | 71 | 54.5 | 0.4 |
| · 이탈리아 | 328 | 14.2 | 0.2 | 469 | 43.0 | 0.2 | 39 | 27.9 | 0.2 |
| - 영 국 | 846 | 48.0 | 0.5 | 1,044 | 23.5 | 0.5 | 43 | -11.2 | 0.2 |
| - 러시아 | 725 | 4.5 | 0.4 | 791 | 9.1 | 0.3 | 69 | 37.4 | 0.4 |
| ○ 중동 | 1,681 | -13.7 | 0.9 | 1,593 | -5.2 | 0.7 | 132 | 3.9 | 0.7 |
| - 사우디 | 238 | 2.0 | 0.1 | 228 | -4.0 | 0.1 | 21 | 14.1 | 0.1 |
| - UAE | 569 | 14.4 | 0.3 | 493 | -13.4 | 0.2 | 45 | 25.2 | 0.2 |
| ○ 중남미 | 3,807 | -28.3 | 2.1 | 4,304 | 13.1 | 1.9 | 339 | -4.0 | 1.7 |
| - 브라질 | 1,449 | -16.7 | 0.8 | 1,457 | 0.5 | 0.6 | 123 | -14.5 | 0.6 |
| - 멕시코 | 2,103 | -24.4 | 1.1 | 2,511 | 19.4 | 1.1 | 191 | 3.5 | 1.0 |
| - 칠 레 | 80 | -1.3 | 0.0 | 120 | 49.5 | 0.1 | 8 | 5.3 | 0.0 |
| ○ 대양주 | 711 | -4.8 | 0.4 | 721 | 1.4 | 0.3 | 66 | 32.8 | 0.3 |
| - 호 주 | 634 | -5.2 | 0.3 | 618 | -2.5 | 0.3 | 58 | 34.7 | 0.3 |
| ○ 아프리카 | 281 | -20.2 | 0.2 | 309 | 10.1 | 0.1 | 21 | 8.0 | 0.1 |
| ※ 브릭스 | 67,226 | 0.6 | 36.6 | 82,033 | 22.0 | 36.0 | 7,704 | 29.5 | 39.2 |

자료 : IITP, KTSPI



표 3-7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 구 분 | 2020년 | | | 2021년 | | | 2022년 1월 |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전세계 | 112,628 | 3.9 | 100.0 | 135,024 | 19.9 | 100.0 | 12,319 | 14.3 | 100.0 |
| ○ 아시아 | 92,815 | 5.2 | 82.4 | 112,900 | 21.6 | 83.6 | 10,340 | 14.9 | 83.9 |
| - 중국(홍콩 포함) | 48,230 | 3.0 | 42.8 | 59,700 | 23.8 | 44.2 | 5,620 | 16.2 | 45.6 |
| - 일 본 | 10,428 | 3.9 | 9.3 | 11,978 | 14.9 | 8.9 | 989 | 5.6 | 8.0 |
| - ASEAN | 20,561 | 2.9 | 18.3 | 23,339 | 13.5 | 17.3 | 2,129 | 11.6 | 17.3 |
| · 싱가포르 | 3,942 | 33.9 | 3.5 | 4,079 | 3.5 | 3.0 | 384 | 37.9 | 3.1 |
| · 인 니 | 475 | 11.8 | 0.4 | 925 | 94.8 | 0.7 | 75 | 5.7 | 0.6 |
| · 말 련 | 3,277 | 2.0 | 2.9 | 3,601 | 9.9 | 2.7 | 293 | 14.0 | 2.4 |
| · 태 국 | 1,545 | 14.2 | 1.4 | 2,007 | 29.9 | 1.5 | 156 | -0.8 | 1.3 |
| · 베트남 | 9,747 | -1.0 | 8.7 | 11,177 | 14.7 | 8.3 | 1,093 | 6.8 | 8.9 |
| - 대 만 | 13,507 | 19.9 | 12.0 | 17,770 | 31.6 | 13.2 | 1,593 | 21.1 | 12.9 |
| - 인 도 | 80 | -17.4 | 0.1 | 105 | 31.8 | 0.1 | 9 | 63.6 | 0.1 |
| ○ 북미 | 8,368 | -7.0 | 7.4 | 9,087 | 8.6 | 6.7 | 656 | -18.0 | 5.3 |
| - 미 국 | 8,033 | -7.3 | 7.1 | 8,720 | 8.5 | 6.5 | 627 | -18.6 | 5.1 |
| - 캐나다 | 236 | 5.3 | 0.2 | 246 | 4.3 | 0.2 | 15 | -22.9 | 0.1 |
| ○ 유럽 | 7,027 | -5.3 | 6.2 | 7,925 | 12.8 | 5.9 | 613 | 16.7 | 5.0 |
| - 유럽연합 | 6,095 | -5.7 | 5.4 | 6,880 | 12.9 | 5.1 | 534 | 16.0 | 4.3 |
| · 독 일 | 2,948 | 6.3 | 2.6 | 3,283 | 11.4 | 2.4 | 253 | 12.0 | 2.1 |
| · 프랑스 | 750 | -2.8 | 0.7 | 929 | 24.0 | 0.7 | 81 | 81.7 | 0.7 |
| · 이탈리아 | 351 | 4.2 | 0.3 | 356 | 1.4 | 0.3 | 25 | -19.8 | 0.2 |
| - 영 국 | 514 | -3.1 | 0.5 | 562 | 9.3 | 0.4 | 39 | 15.2 | 0.3 |
| - 러시아 | 21 | 18.5 | 0.0 | 25 | 18.0 | 0.0 | 3 | 131.0 | 0.0 |
| ○ 중동 | 552 | 22.7 | 0.5 | 655 | 18.6 | 0.5 | 76 | -25.7 | 0.6 |
| - 사우디 | 2 | 309.4 | 0.0 | 2 | 53.2 | 0.0 | 0 | -85.2 | 0.0 |
| - UAE | 73 | 1.4 | 0.1 | 43 | -41.5 | 0.0 | 1 | -87.3 | 0.0 |
| ○ 중남미 | 889 | -1.4 | 0.8 | 985 | 10.7 | 0.7 | 72 | -6.5 | 0.6 |
| - 브라질 | 11 | 24.4 | 0.0 | 16 | 42.8 | 0.0 | 1 | 81.0 | 0.0 |
| - 멕시코 | 868 | -1.5 | 0.8 | 965 | 11.2 | 0.7 | 71 | -7.3 | 0.6 |
| - 칠 레 | 1 | -59.4 | 0.0 | 1 | -25.0 | 0.0 | 0 | 1447.4 | 0.0 |
| ○ 대양주 | 91 | -35.4 | 0.1 | 115 | 26.1 | 0.1 | 8 | 14.6 | 0.1 |
| - 호 주 | 62 | -37.4 | 0.1 | 79 | 28.4 | 0.1 | 6 | 11.3 | 0.0 |
| ○ 아프리카 | 54 | -9.6 | 0.0 | 18 | -66.0 | 0.0 | 4 | 8.1 | 0.0 |
| ※ 브릭스 | 47,389 | 3.8 | 42.1 | 58,620 | 23.7 | 43.4 | 5,508 | 15.7 | 44.7 |

자료 : IITP, KTSPI

표 3-8 |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 구 분 | 2020년 | | | 2021년 | | | 2022년 1월 | | |
|-------------|---------|---------|--------|---------|---------|--------|----------|--------|-------|
| | 수출 | 수입 | 수지 | 수출 | 수입 | 수지 | 수출 | 수입 | 수지 |
| 전세계 | 183,509 | 112,628 | 70,881 | 227,608 | 135,024 | 92,584 | 19,637 | 12,319 | 7,318 |
| ○ 아시아 | 141,680 | 92,815 | 48,865 | 176,605 | 112,900 | 63,705 | 15,715 | 10,340 | 5,375 |
| - 중국(홍콩 포함) | 86,872 | 48,230 | 38,642 | 107,525 | 59,700 | 47,825 | 9,203 | 5,620 | 3,584 |
| - 일 본 | 3,899 | 10,428 | -6,530 | 4,314 | 11,978 | -7,664 | 343 | 989 | -646 |
| - ASEAN | 40,512 | 20,561 | 19,951 | 49,033 | 23,339 | 25,694 | 4,701 | 2,129 | 2,572 |
| · 싱가포르 | 3,231 | 3,942 | -711 | 4,775 | 4,079 | 696 | 512 | 384 | 129 |
| · 인 니 | 779 | 475 | 304 | 893 | 925 | -33 | 91 | 75 | 16 |
| · 말 련 | 2,101 | 3,277 | -1,176 | 2,507 | 3,601 | -1,094 | 215 | 293 | -78 |
| · 태 국 | 1,130 | 1,545 | -415 | 1,354 | 2,007 | -653 | 153 | 156 | -3 |
| · 베트남 | 29,763 | 9,747 | 20,016 | 35,133 | 11,177 | 23,956 | 3,316 | 1,093 | 2,223 |
| - 대 만 | 7,937 | 13,507 | -5,570 | 12,671 | 17,770 | -5,099 | 1,112 | 1,593 | -481 |
| - 인 도 | 2,221 | 80 | 2,141 | 2,781 | 105 | 2,676 | 338 | 9 | 329 |
| ○ 북미 | 22,771 | 8,368 | 14,403 | 28,776 | 9,087 | 19,689 | 2,153 | 656 | 1,497 |
| - 미 국 | 22,085 | 8,033 | 14,052 | 27,947 | 8,720 | 19,228 | 2,062 | 627 | 1,435 |
| - 캐나다 | 589 | 236 | 353 | 714 | 246 | 468 | 80 | 15 | 66 |
| ○ 유럽 | 12,566 | 7,027 | 5,539 | 15,286 | 7,925 | 7,360 | 1,211 | 613 | 599 |
| - 유럽연합 | 10,402 | 6,095 | 4,307 | 12,771 | 6,880 | 5,891 | 1,046 | 534 | 512 |
| · 독 일 | 2,890 | 2,948 | -58 | 3,522 | 3,283 | 238 | 251 | 253 | -3 |
| · 프랑스 | 595 | 750 | -155 | 844 | 929 | -85 | 71 | 81 | -11 |
| · 이탈리아 | 328 | 351 | -23 | 469 | 356 | 113 | 39 | 25 | 15 |
| - 영 국 | 846 | 514 | 331 | 1,044 | 562 | 482 | 43 | 39 | 4 |
| - 러시아 | 725 | 21 | 704 | 791 | 25 | 766 | 69 | 3 | 65 |
| ○ 중동 | 1,681 | 552 | 1,129 | 1,593 | 655 | 939 | 132 | 76 | 56 |
| - 사우디 | 238 | 2 | 236 | 228 | 2 | 226 | 21 | 0 | 21 |
| - UAE | 569 | 73 | 496 | 493 | 43 | 450 | 45 | 1 | 45 |
| ○ 중남미 | 3,807 | 889 | 2,917 | 4,304 | 985 | 3,320 | 339 | 72 | 267 |
| - 브라질 | 1,449 | 11 | 1,438 | 1,457 | 16 | 1,441 | 123 | 1 | 122 |
| - 멕시코 | 2,103 | 868 | 1,236 | 2,511 | 965 | 1,546 | 191 | 71 | 120 |
| - 칠 레 | 80 | 1 | 79 | 120 | 1 | 119 | 8 | 0 | 8 |
| ○ 대양주 | 711 | 91 | 620 | 721 | 115 | 607 | 66 | 8 | 58 |
| - 호 주 | 634 | 62 | 572 | 618 | 79 | 538 | 58 | 6 | 52 |
| ○ 아프리카 | 281 | 54 | 227 | 309 | 18 | 291 | 21 | 4 | 17 |
| ※ 브릭스 | 67,226 | 47,389 | 19,837 | 82,033 | 58,620 | 23,413 | 7,704 | 5,508 | 2,196 |

자료 : IITP, KTSPI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 구 분 | 2020년 | | | 2021년 | | | |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12월 당월 | | | 연간 | | |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ICT 전체 | 10,100 | 8.1 | 100.0 | 1,308 | 16.3 | 100.0 | 12,494 | 1.5 | 100.0 |
| ○ 전자부품 | 2,609 | 7.7 | 25.8 | 355 | 21.1 | 27.2 | 3,468 | 1.8 | 27.8 |
| - 반도체 | 1,877 | 9.0 | 18.6 | 260 | 28.0 | 19.9 | 2,463 | 2.4 | 19.7 |
| - 디스플레이 패널 | 244 | -5.1 | 2.4 | 25 | -1.9 | 1.9 | 327 | -0.1 | 2.6 |
| - 전자관 | 1 | -17.1 | 0.0 | 0 | 19.7 | 0.0 | 1 | 1.5 | 0.0 |
| - 수동부품 | 115 | 38.9 | 1.1 | 22 | -7.9 | 1.7 | 173 | -1.1 | 1.4 |
| - PCB | 151 | 3.1 | 1.5 | 19 | 19.1 | 1.5 | 209 | 1.5 | 1.7 |
| - 접속부품 | 197 | 4.0 | 1.9 | 25 | 14.3 | 1.9 | 258 | 1.2 | 2.1 |
| - 기타 전자부품 | 24 | -2.1 | 0.2 | 4 | 50.1 | 0.3 | 36 | 3.7 | 0.3 |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2,024 | 10.4 | 20.0 | 258 | 18.8 | 19.7 | 2,437 | 1.7 | 19.5 |
| - 컴퓨터 | 1,385 | 15.4 | 13.7 | 180 | 20.8 | 13.8 | 1,681 | 1.9 | 13.5 |
| - 주변기기 | 639 | 1.0 | 6.3 | 78 | 14.4 | 6.0 | 755 | 1.3 | 6.0 |
| · 디스플레이장치 | 162 | 2.7 | 1.6 | 24 | 39.8 | 1.8 | 216 | 3.3 | 1.7 |
| · 프린터(부품포함) | 128 | -18.4 | 1.3 | 14 | 4.4 | 1.1 | 142 | 0.4 | 1.1 |
| · 보조기억장치 | 174 | 0.4 | 1.7 | 17 | 0.3 | 1.3 | 184 | 0.0 | 1.5 |
| · 저장 매체 | 32 | -6.2 | 0.3 | 4 | 22.3 | 0.3 | 34 | 2.3 | 0.3 |
|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 144 | 29.4 | 1.4 | 18 | 9.6 | 1.4 | 180 | 0.9 | 1.4 |
| ○ 통신 및 방송기기 | 2,373 | 0.1 | 23.5 | 327 | 22.2 | 25.0 | 2,744 | 2.2 | 22.0 |
| - 통신기기 | 2,265 | -0.4 | 22.4 | 314 | 23.9 | 24.0 | 2,611 | 2.4 | 20.9 |
| · 유선통신기기 | 498 | 3.0 | 4.9 | 62 | 16.9 | 4.8 | 538 | 1.7 | 4.3 |
| · 무선통신기기 | 1,766 | -1.3 | 17.5 | 252 | 25.8 | 19.2 | 2,073 | 2.5 | 16.6 |
| - 방송국용 기기 | 108 | 10.8 | 1.1 | 13 | -9.2 | 1.0 | 132 | -1.0 | 1.1 |
| ○ 영상 및 음향기기 | 689 | 7.8 | 6.8 | 71 | -10.0 | 5.5 | 836 | -0.9 | 6.7 |
| - 영상기기 | 338 | 4.5 | 3.3 | 34 | -2.6 | 2.6 | 402 | -0.2 | 3.2 |
| - 음향기기 | 234 | 12.1 | 2.3 | 24 | -16.1 | 1.9 | 269 | -1.7 | 2.2 |
| - 기타 영상음향기기 | 116 | 9.7 | 1.2 | 13 | -15.6 | 1.0 | 165 | -1.4 | 1.3 |
|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2,405 | 15.8 | 23.8 | 296 | 11.0 | 22.7 | 3,010 | 1.0 | 24.1 |
| - 가정용 기기 | 909 | 18.2 | 9.0 | 105 | 7.3 | 8.0 | 1,127 | 0.6 | 9.0 |
| - 사무용 기기 | 40 | -9.3 | 0.4 | 6 | 30.0 | 0.4 | 49 | 2.7 | 0.4 |
| - 의료용 기기 | 162 | 43.3 | 1.6 | 17 | 14.0 | 1.3 | 182 | 1.1 | 1.5 |
| - 측정 제어 분석기기 | 243 | 23.3 | 2.4 | 26 | -9.9 | 2.0 | 268 | -1.0 | 2.1 |
| - 전기 장비 | 1,052 | 10.2 | 10.4 | 143 | 17.9 | 11.0 | 1,384 | 1.6 | 11.1 |
| · 건전지 및 축전지 | 241 | 17.1 | 2.4 | 45 | 61.6 | 3.4 | 362 | 4.9 | 2.9 |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 구 분 | 2020년 | | | 2021년 | | | | | |
|--------------|-------|-------|-------|--------|-------|-------|-------|------|-------|
| | | | | 12월 당월 | | | 연간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ICT 전체 | 6,742 | 9.0 | 100.0 | 798 | 13.7 | 100.0 | 8,165 | 1.2 | 100.0 |
| ○전자부품 | 4,772 | 11.1 | 70.8 | 582 | 21.2 | 72.9 | 5,857 | 1.8 | 71.7 |
| - 반도체 | 4,001 | 13.2 | 59.3 | 506 | 27.6 | 63.4 | 4,977 | 2.2 | 61.0 |
| - 디스플레이 패널 | 296 | -6.6 | 4.4 | 26 | -11.0 | 3.2 | 314 | -1.0 | 3.8 |
| - 전자관 | 2 | 3.6 | 0.0 | 0 | -22.9 | 0.0 | 2 | -2.5 | 0.0 |
| - 수동부품 | 179 | 22.9 | 2.7 | 19 | -22.7 | 2.4 | 223 | -2.5 | 2.7 |
| - PCB | 109 | -3.3 | 1.6 | 12 | 10.4 | 1.5 | 123 | 0.9 | 1.5 |
| - 접속부품 | 181 | 1.1 | 2.7 | 18 | 1.5 | 2.3 | 212 | 0.1 | 2.6 |
| - 기타 전자부품 | 4 | -9.8 | 0.1 | 0 | 18.5 | 0.1 | 5 | 1.6 | 0.1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450 | 6.8 | 6.7 | 47 | 7.2 | 5.9 | 531 | 0.6 | 6.5 |
| - 컴퓨터 | 29 | -11.1 | 0.4 | 5 | 61.5 | 0.6 | 43 | 4.5 | 0.5 |
| - 주변기기 | 422 | 8.3 | 6.3 | 42 | 3.2 | 5.3 | 488 | 0.3 | 6.0 |
| · 디스플레이장치 | 8 | 7.9 | 0.1 | 0 | -55.9 | 0.0 | 5 | -6.7 | 0.1 |
| · 프린터(부품포함) | 56 | -14.7 | 0.8 | 5 | -8.4 | 0.7 | 63 | -0.8 | 0.8 |
| · 보조기억장치 | 257 | 12.6 | 3.8 | 25 | 6.6 | 3.2 | 292 | 0.5 | 3.6 |
| · 저장 매체 | 47 | 9.2 | 0.7 | 5 | -19.1 | 0.6 | 48 | -2.3 | 0.6 |
|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 54 | 19.2 | 0.8 | 7 | 36.9 | 0.8 | 80 | 2.3 | 1.0 |
| ○통신 및 방송기기 | 473 | -0.1 | 7.0 | 60 | -5.3 | 7.5 | 603 | -0.6 | 7.4 |
| - 통신기기 | 448 | 1.9 | 6.6 | 58 | -3.4 | 7.2 | 575 | -0.4 | 7.0 |
| · 유선통신기기 | 69 | 5.1 | 1.0 | 8 | -1.9 | 1.0 | 93 | -0.2 | 1.1 |
| · 무선통신기기 | 378 | 1.4 | 5.6 | 50 | -3.6 | 6.3 | 482 | -0.4 | 5.9 |
| - 방송국용 기기 | 25 | -26.0 | 0.4 | 2 | -36.8 | 0.3 | 27 | -4.6 | 0.3 |
| ○영상 및 음향기기 | 196 | 12.0 | 2.9 | 26 | 18.7 | 3.3 | 233 | 1.8 | 2.9 |
| - 영상기기 | 148 | 23.9 | 2.2 | 22 | 20.9 | 2.7 | 186 | 2.1 | 2.3 |
| - 음향기기 | 43 | -13.3 | 0.6 | 3 | -1.3 | 0.4 | 38 | -0.1 | 0.5 |
| - 기타 영상음향기기 | 5 | -15.4 | 0.1 | 1 | 78.1 | 0.1 | 8 | 5.3 | 0.1 |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850 | 4.2 | 12.6 | 83 | -10.8 | 10.4 | 942 | -1.0 | 11.5 |
| - 가정용 기기 | 180 | -0.6 | 2.7 | 17 | -1.2 | 2.2 | 202 | -0.1 | 2.5 |
| - 사무용 기기 | 5 | -14.0 | 0.1 | 0 | -6.9 | 0.1 | 4 | -0.7 | 0.1 |
| - 의료용 기기 | 113 | 6.2 | 1.7 | 13 | -10.1 | 1.6 | 136 | -1.1 | 1.7 |
| - 측정 제어 분석기기 | 364 | 7.8 | 5.4 | 34 | -17.1 | 4.3 | 394 | -1.8 | 4.8 |
| - 전기 장비 | 188 | 1.5 | 2.8 | 18 | -6.3 | 2.2 | 205 | -0.6 | 2.5 |
| · 건전지 및 축전지 | 71 | 3.8 | 1.0 | 6 | -5.2 | 0.8 | 74 | -0.5 | 0.9 |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 구 분 | 2020년 | | | 2021년 | | | | | |
|---------------|-------|-------|-------|--------|-------|-------|-------|------|-------|
| | | | | 12월 당월 | | | 연간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ICT 전체 | 2,486 | -6.6 | 100.0 | 252 | 8.7 | 100.0 | 2,796 | 0.7 | 100.0 |
| ○ 전자부품 | 848 | -2.4 | 34.1 | 90 | 17.1 | 35.5 | 1,013 | 1.3 | 36.2 |
| - 반도체 | 643 | -0.3 | 25.9 | 69 | 18.5 | 27.4 | 776 | 1.4 | 27.7 |
| - 디스플레이 패널 | 31 | -0.3 | 1.3 | 3 | 8.5 | 1.3 | 35 | 0.8 | 1.3 |
| - 전자관 | 3 | -1.0 | 0.1 | 0 | 9.7 | 0.1 | 3 | 1.0 | 0.1 |
| - 수동부품 | 31 | -0.5 | 1.2 | 3 | 21.2 | 1.3 | 38 | 1.5 | 1.3 |
| - PCB | 12 | -4.0 | 0.5 | 1 | -24.9 | 0.4 | 12 | -2.6 | 0.4 |
| - 접속부품 | 125 | -12.4 | 5.0 | 12 | 17.0 | 4.9 | 146 | 1.2 | 5.2 |
| - 기타 전자부품 | 2 | -18.3 | 0.1 | 0 | 1.2 | 0.1 | 2 | 0.1 | 0.1 |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357 | -2.3 | 14.4 | 36 | 4.3 | 14.1 | 390 | 0.4 | 13.9 |
| - 컴퓨터 | 153 | -1.7 | 6.1 | 16 | 7.8 | 6.4 | 167 | 0.7 | 6.0 |
| - 주변기기 | 204 | -2.8 | 8.2 | 19 | 1.5 | 7.6 | 222 | 0.1 | 7.9 |
| · 디스플레이장치 | 15 | -16.8 | 0.6 | 1 | -0.8 | 0.5 | 15 | -0.1 | 0.5 |
| · 프린터(부품포함) | 33 | -22.5 | 1.3 | 3 | -13.4 | 1.1 | 35 | -1.3 | 1.2 |
| · 보조기억장치 | 51 | -4.2 | 2.0 | 4 | -6.8 | 1.5 | 52 | -0.5 | 1.8 |
| · 저장 매체 | 61 | 31.3 | 2.4 | 7 | 11.9 | 2.6 | 72 | 1.0 | 2.6 |
|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 44 | -10.6 | 1.8 | 5 | 6.9 | 1.9 | 49 | 0.6 | 1.8 |
| ○ 통신 및 방송기기 | 334 | -12.1 | 13.5 | 36 | -3.6 | 14.1 | 375 | -0.4 | 13.4 |
| - 통신기기 | 310 | -11.5 | 12.5 | 33 | -4.1 | 13.1 | 347 | -0.4 | 12.4 |
| · 유선통신기기 | 161 | -10.1 | 6.5 | 15 | -1.7 | 5.8 | 169 | -0.1 | 6.0 |
| · 무선통신기기 | 149 | -12.9 | 6.0 | 18 | -6.0 | 7.3 | 178 | -0.7 | 6.3 |
| - 방송국용 기기 | 25 | -19.1 | 1.0 | 2 | 3.5 | 1.0 | 28 | 0.3 | 1.0 |
| ○ 영상 및 음향기기 | 84 | -16.1 | 3.4 | 8 | -0.6 | 3.0 | 85 | -0.1 | 3.1 |
| - 영상기기 | 33 | -27.7 | 1.3 | 3 | 0.7 | 1.2 | 33 | 0.1 | 1.2 |
| - 음향기기 | 37 | -8.9 | 1.5 | 3 | -5.4 | 1.2 | 36 | -0.5 | 1.3 |
| - 기타 영상음향기기 | 14 | 2.1 | 0.6 | 2 | 6.6 | 0.7 | 16 | 0.6 | 0.6 |
|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862 | -9.0 | 34.7 | 84 | 9.1 | 33.2 | 934 | 0.8 | 33.4 |
| - 가정용 기기 | 120 | -8.4 | 4.8 | 12 | 10.9 | 4.6 | 132 | 0.9 | 4.7 |
| - 사무용 기기 | 9 | -18.4 | 0.3 | 1 | 40.2 | 0.3 | 9 | 2.7 | 0.3 |
| - 의료용 기기 | 262 | -1.7 | 10.5 | 24 | 4.1 | 9.7 | 278 | 0.3 | 9.9 |
| - 측정 제어 분석기기 | 277 | -8.8 | 11.1 | 27 | 7.3 | 10.8 | 297 | 0.6 | 10.6 |
| - 전기 장비 | 194 | -17.4 | 7.8 | 20 | 16.5 | 7.7 | 217 | 1.3 | 7.8 |
| · 건전지 및 축전지 | 49 | -9.9 | 2.0 | 5 | 12.1 | 1.9 | 52 | 1.0 | 1.8 |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 구 분 | 2020년 | | | 2021년 | | | |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12월 당월 | | | 연간 | | |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ICT 전체 | 5,218 | 1.4 | 100.0 | 609 | 21.4 | 100.0 | 6,245 | 1.8 | 100.0 |
| ○ 전자부품 | 893 | 3.1 | 17.1 | 106 | 24.2 | 17.3 | 1,110 | 1.9 | 17.8 |
| - 반도체 | 695 | 7.4 | 13.3 | 83 | 25.0 | 13.6 | 860 | 2.0 | 13.8 |
| - 디스플레이 패널 | 30 | 0.5 | 0.6 | 3 | 6.5 | 0.5 | 36 | 0.6 | 0.6 |
| - 전자관 | 3 | -7.8 | 0.0 | 0 | 19.0 | 0.0 | 3 | 1.8 | 0.0 |
| - 수동부품 | 30 | -11.5 | 0.6 | 4 | 32.2 | 0.7 | 42 | 2.4 | 0.7 |
| - PCB | 17 | -6.5 | 0.3 | 2 | 41.1 | 0.4 | 23 | 2.9 | 0.4 |
| - 접속부품 | 113 | -11.3 | 2.2 | 12 | 17.6 | 2.0 | 139 | 1.3 | 2.2 |
| - 기타 전자부품 | 5 | -20.3 | 0.1 | 1 | 67.8 | 0.1 | 7 | 4.1 | 0.1 |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1,376 | 10.5 | 26.4 | 148 | 12.2 | 24.2 | 1,570 | 1.0 | 25.1 |
| - 컴퓨터 | 879 | 14.9 | 16.8 | 91 | 4.3 | 15.0 | 983 | 0.4 | 15.7 |
| - 주변기기 | 497 | 3.5 | 9.5 | 56 | 27.7 | 9.3 | 587 | 2.1 | 9.4 |
| · 디스플레이장치 | 78 | -13.7 | 1.5 | 11 | 40.1 | 1.7 | 101 | 3.1 | 1.6 |
| · 프린터(부품포함) | 117 | -18.9 | 2.2 | 12 | 1.9 | 1.9 | 140 | 0.2 | 2.2 |
| · 보조기억장치 | 85 | 19.7 | 1.6 | 10 | 56.0 | 1.6 | 104 | 3.5 | 1.7 |
| · 저장 매체 | 145 | 32.4 | 2.8 | 17 | 37.5 | 2.7 | 162 | 2.9 | 2.6 |
|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 72 | 10.6 | 1.4 | 8 | 13.7 | 1.3 | 80 | 1.2 | 1.3 |
| ○ 통신 및 방송기기 | 1,082 | -7.0 | 20.7 | 150 | 40.5 | 24.7 | 1,257 | 3.6 | 20.1 |
| - 통신기기 | 974 | -7.6 | 18.7 | 139 | 43.9 | 22.8 | 1,139 | 3.9 | 18.2 |
| · 유선통신기기 | 404 | -2.3 | 7.7 | 46 | 23.3 | 7.6 | 443 | 2.0 | 7.1 |
| · 무선통신기기 | 570 | -11.0 | 10.9 | 93 | 57.1 | 15.2 | 696 | 5.1 | 11.1 |
| - 방송국용 기기 | 108 | -1.5 | 2.1 | 11 | 7.9 | 1.8 | 117 | 0.7 | 1.9 |
| ○ 영상 및 음향기기 | 357 | 10.5 | 6.8 | 41 | 11.9 | 6.8 | 462 | 1.0 | 7.4 |
| - 영상기기 | 161 | -5.9 | 3.1 | 14 | 22.1 | 2.3 | 187 | 1.4 | 3.0 |
| - 음향기기 | 122 | 19.9 | 2.3 | 16 | 12.0 | 2.7 | 164 | 1.1 | 2.6 |
| - 기타 영상음향기기 | 73 | 47.8 | 1.4 | 11 | 1.0 | 1.8 | 111 | 0.1 | 1.8 |
|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1,510 | -2.5 | 28.9 | 164 | 16.4 | 27.0 | 1,846 | 1.3 | 29.6 |
| - 가정용 기기 | 401 | 4.5 | 7.7 | 46 | 17.6 | 7.5 | 505 | 1.4 | 8.1 |
| - 사무용 기기 | 24 | -14.6 | 0.5 | 2 | 6.3 | 0.4 | 28 | 0.5 | 0.4 |
| - 의료용 기기 | 311 | 1.7 | 6.0 | 32 | 15.2 | 5.3 | 363 | 1.2 | 5.8 |
| - 측정 제어 분석기기 | 268 | -7.2 | 5.1 | 28 | 10.2 | 4.6 | 300 | 0.9 | 4.8 |
| - 전기 장비 | 506 | -6.7 | 9.7 | 56 | 20.0 | 9.2 | 651 | 1.5 | 10.4 |
| · 건전지 및 축전지 | 105 | 14.5 | 2.0 | 15 | 46.1 | 2.5 | 161 | 3.1 | 2.6 |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 구 분 | 2020년 | | | 2021년 | | | | | |
|---------------|---------|-------|-------|--------|------|-------|---------|------|-------|
| | | | | 12월 당월 | | | 연간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ICT 전체 | 147,160 | -3.5 | 100.0 | 16,372 | 16.1 | 100.0 | 172,204 | 1.3 | 100.0 |
| ○ 전자부품 | 77,039 | -0.2 | 52.4 | 8,823 | 21.7 | 53.9 | 90,410 | 1.8 | 52.5 |
| - 반도체 | 46,414 | 1.9 | 31.5 | 5,468 | 29.5 | 33.4 | 54,546 | 2.3 | 31.7 |
| - 디스플레이 패널 | 7,314 | -7.1 | 5.0 | 744 | 9.5 | 4.5 | 7,618 | 0.9 | 4.4 |
| - 전자관 | 261 | -4.1 | 0.2 | 32 | 30.2 | 0.2 | 287 | 2.6 | 0.2 |
| - 수동부품 | 9,385 | 6.8 | 6.4 | 1,070 | 15.1 | 6.5 | 11,593 | 1.2 | 6.7 |
| - PCB | 2,987 | -0.8 | 2.0 | 329 | 8.4 | 2.0 | 3,336 | 0.8 | 1.9 |
| - 접속부품 | 10,158 | -8.5 | 6.9 | 1,098 | 5.6 | 6.7 | 12,240 | 0.5 | 7.1 |
| - 기타 전자부품 | 520 | -18.6 | 0.4 | 82 | 66.3 | 0.5 | 789 | 4.3 | 0.5 |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12,449 | -12.3 | 8.5 | 1,241 | 4.6 | 7.6 | 14,224 | 0.4 | 8.3 |
| - 컴퓨터 | 993 | 2.1 | 0.7 | 100 | 6.8 | 0.6 | 1,040 | 0.6 | 0.6 |
| - 주변기기 | 11,456 | -13.4 | 7.8 | 1,141 | 4.4 | 7.0 | 13,184 | 0.4 | 7.7 |
| · 디스플레이장치 | 1,154 | -1.7 | 0.8 | 100 | -7.3 | 0.6 | 1,339 | -0.6 | 0.8 |
| · 프린터(부품포함) | 8,070 | -15.9 | 5.5 | 810 | 4.5 | 4.9 | 9,404 | 0.4 | 5.5 |
| · 보조기억장치 | 184 | -41.6 | 0.1 | 14 | -3.4 | 0.1 | 177 | -0.3 | 0.1 |
| · 저장 매체 | 1,535 | -2.5 | 1.0 | 165 | 13.1 | 1.0 | 1,699 | 1.1 | 1.0 |
|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 514 | -8.9 | 0.3 | 52 | 5.4 | 0.3 | 566 | 0.5 | 0.3 |
| ○ 통신 및 방송기기 | 6,326 | -15.0 | 4.3 | 667 | 2.2 | 4.1 | 7,033 | 0.2 | 4.1 |
| - 통신기기 | 3,765 | -15.7 | 2.6 | 395 | 10.0 | 2.4 | 4,131 | 0.9 | 2.4 |
| · 유선통신기기 | 1,093 | -14.4 | 0.7 | 105 | 3.4 | 0.6 | 1,071 | 0.3 | 0.6 |
| · 무선통신기기 | 2,673 | -16.2 | 1.8 | 291 | 12.6 | 1.8 | 3,060 | 1.1 | 1.8 |
| - 방송국용 기기 | 2,561 | -14.1 | 1.7 | 272 | -7.5 | 1.7 | 2,902 | -0.8 | 1.7 |
| ○ 영상 및 음향기기 | 5,297 | 1.7 | 3.6 | 534 | 21.2 | 3.3 | 6,029 | 1.6 | 3.5 |
| - 영상기기 | 1,933 | -18.9 | 1.3 | 189 | 0.4 | 1.2 | 2,379 | 0.0 | 1.4 |
| - 음향기기 | 447 | -10.6 | 0.3 | 44 | 5.6 | 0.3 | 483 | 0.5 | 0.3 |
| - 기타 영상음향기기 | 2,917 | 25.4 | 2.0 | 300 | 43.0 | 1.8 | 3,167 | 2.9 | 1.8 |
|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46,048 | -5.0 | 31.3 | 5,107 | 11.8 | 31.2 | 54,508 | 1.0 | 31.7 |
| - 가정용 기기 | 9,231 | -5.6 | 6.3 | 981 | 12.1 | 6.0 | 10,785 | 1.0 | 6.3 |
| - 사무용 기기 | 369 | -14.4 | 0.3 | 43 | 36.0 | 0.3 | 416 | 2.8 | 0.2 |
| - 의료용 기기 | 5,959 | -1.0 | 4.0 | 657 | 4.8 | 4.0 | 6,656 | 0.5 | 3.9 |
| - 측정 제어 분석기기 | 18,067 | -7.4 | 12.3 | 2,021 | 12.7 | 12.3 | 22,045 | 1.0 | 12.8 |
| - 전기 장비 | 12,422 | -2.3 | 8.4 | 1,405 | 13.1 | 8.6 | 14,605 | 1.1 | 8.5 |
| · 건전지 및 축전지 | 6,201 | -3.2 | 4.2 | 751 | 22.8 | 4.6 | 7,746 | 1.8 | 4.5 |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 구 분 | 2020년 | | | 2021년 | | | |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12월 당월 | | | 연간 | | |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ICT 전체 | 148,819 | -2.9 | 100.0 | 16,441 | 21.8 | 100.0 | 171,606 | 1.7 | 100.0 |
| ○ 전자부품 | 36,602 | -5.7 | 24.6 | 4,846 | 59.5 | 29.5 | 47,567 | 4.0 | 27.7 |
| - 반도체 | 28,333 | -5.5 | 19.0 | 3,915 | 67.5 | 23.8 | 37,305 | 4.4 | 21.7 |
| - 디스플레이 패널 | 1,684 | 0.3 | 1.1 | 175 | 21.2 | 1.1 | 1,904 | 1.6 | 1.1 |
| - 전자관 | 120 | 19.3 | 0.1 | 13 | -26.6 | 0.1 | 127 | -3.5 | 0.1 |
| - 수동부품 | 1,106 | -11.5 | 0.7 | 129 | 43.3 | 0.8 | 1,413 | 2.8 | 0.8 |
| - PCB | 1,302 | -2.7 | 0.9 | 148 | 37.0 | 0.9 | 1,620 | 2.5 | 0.9 |
| - 접속부품 | 3,596 | -9.4 | 2.4 | 398 | 34.0 | 2.4 | 4,505 | 2.3 | 2.6 |
| - 기타 전자부품 | 462 | -6.1 | 0.3 | 68 | 56.6 | 0.4 | 692 | 3.7 | 0.4 |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27,890 | 7.9 | 18.7 | 2,470 | -0.8 | 15.0 | 28,054 | -0.1 | 16.3 |
| - 컴퓨터 | 16,943 | 16.0 | 11.4 | 1,421 | -8.3 | 8.6 | 16,259 | -0.8 | 9.5 |
| - 주변기기 | 10,947 | -2.6 | 7.4 | 1,049 | 11.3 | 6.4 | 11,795 | 0.9 | 6.9 |
| · 디스플레이장치 | 1,554 | 37.6 | 1.0 | 194 | 46.0 | 1.2 | 1,897 | 3.3 | 1.1 |
| · 프린터(부품포함) | 3,794 | -11.7 | 2.5 | 365 | 10.5 | 2.2 | 3,880 | 0.9 | 2.3 |
| · 보조기억장치 | 2,249 | -16.2 | 1.5 | 192 | 20.1 | 1.2 | 2,450 | 1.3 | 1.4 |
| · 저장 매체 | 1,578 | -0.1 | 1.1 | 127 | -2.1 | 0.8 | 1,570 | -0.2 | 0.9 |
|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 1,773 | 14.2 | 1.2 | 171 | -9.7 | 1.0 | 1,998 | -0.9 | 1.2 |
| ○ 통신 및 방송기기 | 31,277 | -0.7 | 21.0 | 3,610 | 14.2 | 22.0 | 36,267 | 1.3 | 21.1 |
| - 통신기기 | 28,805 | -0.1 | 19.4 | 3,306 | 13.5 | 20.1 | 33,546 | 1.2 | 19.5 |
| · 유선통신기기 | 7,704 | 7.7 | 5.2 | 806 | 19.2 | 4.9 | 8,387 | 1.6 | 4.9 |
| · 무선통신기기 | 21,101 | -2.6 | 14.2 | 2,500 | 11.8 | 15.2 | 25,158 | 1.1 | 14.7 |
| - 방송국용 기기 | 2,472 | -8.0 | 1.7 | 304 | 21.7 | 1.8 | 2,721 | 2.0 | 1.6 |
| ○ 영상 및 음향기기 | 11,380 | -3.8 | 7.6 | 1,292 | 17.3 | 7.9 | 12,284 | 1.6 | 7.2 |
| - 영상기기 | 6,316 | -5.2 | 4.2 | 634 | 3.9 | 3.9 | 6,839 | 0.4 | 4.0 |
| - 음향기기 | 3,160 | -6.4 | 2.1 | 301 | 1.1 | 1.8 | 3,276 | 0.1 | 1.9 |
| - 기타 영상음향기기 | 1,904 | 6.7 | 1.3 | 357 | 84.2 | 2.2 | 2,169 | 8.1 | 1.3 |
|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41,669 | -7.8 | 28.0 | 4,224 | 13.9 | 25.7 | 47,433 | 1.1 | 27.6 |
| - 가정용 기기 | 12,735 | -1.6 | 8.6 | 1,209 | 4.8 | 7.4 | 14,108 | 0.4 | 8.2 |
| - 사무용 기기 | 726 | -15.7 | 0.5 | 59 | 7.2 | 0.4 | 726 | 0.5 | 0.4 |
| - 의료용 기기 | 6,570 | -12.3 | 4.4 | 672 | 21.0 | 4.1 | 7,468 | 1.6 | 4.4 |
| - 측정 제어 분석기기 | 8,690 | -11.6 | 5.8 | 862 | 12.5 | 5.2 | 9,850 | 1.0 | 5.7 |
| - 전기 장비 | 12,948 | -7.9 | 8.7 | 1,421 | 20.8 | 8.6 | 15,280 | 1.6 | 8.9 |
| · 건전지 및 축전지 | 2,293 | -3.8 | 1.5 | 283 | 27.0 | 1.7 | 2,857 | 2.1 | 1.7 |

자료 : Uncomtrade, KITA



4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5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 구분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 가전·전자·통신기기 | | 소프트웨어 | |
|--------------|----------|------------|--------|------------|--------|--------|--------|
| | | 금액 | 전년 동기비 | 금액 | 전년 동기비 | 금액 | 전년 동기비 |
| 직접판매 (수출) | 2019 | 15,237 | -15.0 | 93,826 | -5.4 | 909 | -32.4 |
| | 2020 | 19,255 | 26.4 | 55,017 | -41.4 | 1,061 | 16.7 |
| | 2021p | 15,751 | -18.2 | 51,933 | -5.6 | 968 | -8.8 |
| | 2019.1/4 | 3,702 | -29.3 | 21,429 | -16.4 | 150 | -38.5 |
| | 2/4 | 4,038 | 4.8 | 22,798 | -19.0 | 228 | -39.8 |
| | 3/4 | 3,670 | -15.0 | 25,419 | -7.1 | 144 | -54.0 |
| | 4/4 | 3,827 | -15.2 | 24,180 | 33.8 | 387 | -5.1 |
| | 2020.1/4 | 4,142 | 11.9 | 12,866 | -40.0 | 183 | 22.0 |
| | 2/4 | 3,814 | -5.5 | 14,052 | -38.4 | 230 | 0.9 |
| | 3/4 | 7,716 | 110.2 | 14,963 | -41.1 | 254 | 76.4 |
| | 4/4 | 3,583 | -6.4 | 13,136 | -45.7 | 394 | 1.8 |
| | 2021.1/4 | 4,235 | 2.2 | 10,755 | -16.4 | 208 | 13.7 |
| | 2/4 | 4,448 | 16.6 | 17,115 | 21.8 | 219 | -4.8 |
| | 3/4 | 3,589 | -53.5 | 12,732 | -14.9 | 244 | -3.9 |
| | 4/4p | 3,468 | -3.2 | 11,330 | -13.7 | 313 | -20.6 |
| 직접구매 (수입) | 2019 | 50,136 | -6.4 | 463,017 | 2.6 | 12,892 | 14.7 |
| | 2020 | 52,136 | 4.0 | 338,031 | -27.0 | 15,106 | 17.2 |
| | 2021p | 63,075 | 21.0 | 361,553 | 7.0 | 20,421 | 35.2 |
| | 2019.1/4 | 13,180 | 5.2 | 141,787 | 38.8 | 3,107 | 8.5 |
| | 2/4 | 10,493 | -16.3 | 111,914 | 13.6 | 2,975 | 11.6 |
| | 3/4 | 9,408 | -16.9 | 97,834 | -0.9 | 3,324 | 24.7 |
| | 4/4 | 17,055 | -0.8 | 111,482 | -26.6 | 3,486 | 14.5 |
| | 2020.1/4 | 12,348 | -6.3 | 90,812 | -36.0 | 3,191 | 2.7 |
| | 2/4 | 11,167 | 6.4 | 73,828 | -34.0 | 3,572 | 20.1 |
| | 3/4 | 9,492 | 0.9 | 59,015 | -39.7 | 3,763 | 13.2 |
| | 4/4 | 19,129 | 12.2 | 114,376 | 2.6 | 4,580 | 31.4 |
| | 2021.1/4 | 18,962 | 53.6 | 132,807 | 46.2 | 6,873 | 115.4 |
| | 2/4 | 12,122 | 8.6 | 65,035 | -11.9 | 4,170 | 16.7 |
| | 3/4 | 11,425 | 20.4 | 56,231 | -4.7 | 3,841 | 2.1 |
| | 4/4p | 20,566 | 7.5 | 107,480 | -6.0 | 5,537 | 20.9 |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5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6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 구 분 | 반도체 | | 전자표시장치 | | 기타전자부품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 | 정밀기기 | |
|-------|-------|-------|--------|-------|--------|-------|------------|-------|-------------------|-------|-------|-------|
| | 금액 지수 | 물량 지수 | 금액 지수 | 물량 지수 | 금액 지수 | 물량 지수 | 금액 지수 | 물량 지수 | 금액 지수 | 물량 지수 | 금액 지수 | 물량 지수 |
| 2005 | 47.2 | 10.6 | 51.3 | 14.9 | 45.5 | 40.3 | 121.3 | 36.1 | 106.4 | 34.5 | 61.3 | 49.7 |
| 2006 | 52.5 | 14.2 | 76.1 | 29.1 | 55.9 | 48.5 | 110.5 | 43.0 | 104.4 | 40.8 | 55.1 | 45.6 |
| 2007 | 62.6 | 22.2 | 93.6 | 48.3 | 53.3 | 47.4 | 108.6 | 49.1 | 111.1 | 50.2 | 70.3 | 58.4 |
| 2008 | 52.6 | 23.8 | 89.4 | 51.1 | 63.1 | 59.2 | 95.7 | 50.8 | 124.5 | 62.8 | 91.6 | 78.4 |
| 2009 | 50.1 | 24.1 | 112.9 | 78.9 | 65.1 | 62.2 | 79.4 | 57.5 | 99.1 | 58.9 | 53.0 | 46.9 |
| 2010 | 81.3 | 38.3 | 144.2 | 100.5 | 85.3 | 81.3 | 94.5 | 69.1 | 92.3 | 60.3 | 69.9 | 62.9 |
| 2011 | 80.2 | 62.9 | 132.3 | 110.8 | 98.2 | 93.0 | 99.2 | 81.7 | 92.3 | 66.9 | 79.2 | 72.1 |
| 2012 | 79.7 | 87.7 | 125.0 | 108.9 | 118.5 | 113.2 | 105.3 | 88.5 | 77.6 | 63.8 | 89.8 | 80.6 |
| 2013 | 90.3 | 83.8 | 119.4 | 107.3 | 136.1 | 130.7 | 102.0 | 91.6 | 91.4 | 80.0 | 95.0 | 85.9 |
| 2014 | 99.4 | 89.8 | 116.1 | 111.9 | 116.5 | 112.2 | 95.3 | 89.5 | 96.8 | 86.6 | 100.4 | 92.9 |
| 2015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2016 | 99.1 | 115.7 | 75.5 | 83.8 | 91.6 | 99.2 | 103.7 | 108.2 | 91.8 | 92.4 | 104.2 | 110.0 |
| 2017 | 156.8 | 146.9 | 93.9 | 88.5 | 113.0 | 126.4 | 142.0 | 150.5 | 71.1 | 73.5 | 124.9 | 139.2 |
| 2018 | 203.6 | 177.6 | 75.8 | 86.6 | 106.5 | 112.5 | 137.4 | 153.5 | 61.5 | 67.7 | 137.8 | 154.7 |
| 2019 | 156.2 | 200.1 | 29.8 | 40.3 | 101.8 | 110.4 | 51.4 | 64.4 | 73.4 | 85.2 | 135.5 | 156.3 |
| 2020 | 171.8 | 240.4 | 23.7 | 33.6 | 105.7 | 117.8 | 46.8 | 59.3 | 70.9 | 82.9 | 135.4 | 165.6 |
| 20.1월 | 149.9 | 215.4 | 23.0 | 34.4 | 100.6 | 111.3 | 33.9 | 43.2 | 59.2 | 73.4 | 119.5 | 145.8 |
| 2월 | 156.3 | 221.8 | 20.3 | 30.1 | 93.3 | 103.1 | 36.7 | 45.8 | 60.2 | 74.5 | 119.1 | 144.5 |
| 3월 | 182.4 | 253.4 | 26.0 | 37.6 | 103.1 | 115.3 | 41.9 | 52.3 | 70.2 | 85.7 | 140.4 | 170.8 |
| 4월 | 151.5 | 201.2 | 17.8 | 26.1 | 89.3 | 99.9 | 40.7 | 49.1 | 48.4 | 57.4 | 112.1 | 136.0 |
| 5월 | 170.6 | 226.2 | 22.0 | 34.5 | 89.5 | 100.6 | 43.9 | 53.6 | 49.0 | 57.3 | 107.1 | 131.0 |
| 6월 | 173.6 | 229.8 | 24.6 | 38.3 | 101.6 | 114.7 | 47.4 | 58.2 | 59.9 | 70.2 | 126.1 | 155.3 |
| 7월 | 164.2 | 227.2 | 25.1 | 37.5 | 115.8 | 129.9 | 51.9 | 64.3 | 62.9 | 70.7 | 135.6 | 167.2 |
| 8월 | 173.8 | 242.8 | 25.4 | 36.9 | 109.8 | 122.8 | 51.7 | 65.3 | 63.4 | 72.0 | 133.1 | 164.3 |
| 9월 | 196.3 | 276.2 | 25.5 | 35.4 | 122.6 | 136.3 | 54.2 | 69.3 | 85.0 | 96.4 | 158.7 | 194.9 |
| 10월 | 175.6 | 256.7 | 24.3 | 32.0 | 113.6 | 126.4 | 47.7 | 63.8 | 92.4 | 104.8 | 146.3 | 179.2 |
| 11월 | 174.9 | 256.8 | 24.2 | 30.0 | 113.4 | 125.4 | 54.5 | 72.8 | 97.0 | 111.8 | 158.6 | 193.5 |
| 12월 | 192.8 | 284.4 | 25.9 | 31.3 | 115.5 | 127.6 | 57.3 | 76.5 | 102.8 | 117.9 | 168.7 | 205.5 |
| 21.1월 | 177.5 | 257.0 | 24.4 | 29.3 | 118.2 | 129.9 | 45.2 | 61.0 | 88.7 | 100.9 | 148.0 | 183.8 |
| 2월 | 172.0 | 248.5 | 20.6 | 24.9 | 103.4 | 113.7 | 43.2 | 58.4 | 70.9 | 81.5 | 142.2 | 175.5 |
| 3월 | 195.4 | 281.9 | 21.0 | 24.6 | 119.3 | 131.3 | 50.6 | 68.3 | 75.5 | 90.6 | 170.4 | 209.0 |
| 4월 | 189.4 | 242.9 | 22.1 | 25.4 | 113.9 | 125.8 | 50.3 | 67.0 | 79.5 | 95.6 | 155.4 | 190.7 |
| 5월 | 207.5 | 264.9 | 23.4 | 26.6 | 112.8 | 124.4 | 54.1 | 71.6 | 74.3 | 89.7 | 147.1 | 181.3 |
| 6월 | 231.7 | 292.9 | 22.1 | 24.3 | 121.6 | 133.7 | 50.9 | 66.9 | 76.0 | 92.7 | 160.8 | 199.3 |
| 7월 | 228.0 | 273.7 | 25.3 | 27.8 | 132.7 | 146.3 | 51.7 | 66.2 | 83.4 | 101.8 | 151.1 | 180.8 |
| 8월 | 244.9 | 293.1 | 25.1 | 28.7 | 131.4 | 131.2 | 48.7 | 62.4 | 93.9 | 114.4 | 150.7 | 180.6 |
| 9월 | 256.8 | 308.7 | 23.6 | 28.9 | 128.2 | 128.3 | 56.7 | 72.5 | 104.8 | 130.7 | 167.8 | 201.0 |
| 10월 | 230.0 | 288.9 | 22.3 | 29.6 | 127.8 | 127.9 | 52.3 | 66.7 | 104.9 | 129.2 | 162.6 | 189.8 |
| 11월 | 251.3 | 316.8 | 22.7 | 31.1 | 127.2 | 108.0 | 56.7 | 72.4 | 112.3 | 132.5 | 168.8 | 198.1 |
| 12월 | 261.8 | 330.2 | 25.6 | 35.8 | 130.8 | 112.1 | 65.2 | 83.1 | 107.3 | 126.6 | 178.5 | 210.1 |

자료 : 한국은행



표 3-17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 구 분 | 반도체 | | 전자표시장치 | | 기타전자부품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 | 정밀기기 | |
|-------|-------|-------|--------|-------|--------|-------|------------|-------|-------------------|-------|-------|-------|
| | 금액 지수 | 물량 지수 | 금액 지수 | 물량 지수 | 금액 지수 | 물량 지수 | 금액 지수 | 물량 지수 | 금액 지수 | 물량 지수 | 금액 지수 | 물량 지수 |
| 2005 | 65.7 | 26.7 | 50.9 | 22.2 | 89.9 | 50.9 | 69.1 | 42.9 | 45.3 | 31.5 | 64.5 | 56.6 |
| 2006 | 67.7 | 33.2 | 51.5 | 21.9 | 98.1 | 59.9 | 80.9 | 56.7 | 52.9 | 40.0 | 71.1 | 66.0 |
| 2007 | 79.2 | 44.0 | 55.5 | 24.2 | 103.1 | 67.6 | 88.8 | 66.4 | 54.5 | 43.6 | 71.7 | 66.3 |
| 2008 | 83.4 | 52.9 | 68.9 | 31.1 | 110.5 | 76.8 | 84.3 | 68.8 | 60.6 | 49.4 | 72.4 | 67.7 |
| 2009 | 70.0 | 49.3 | 56.2 | 33.7 | 105.5 | 79.1 | 74.5 | 67.5 | 47.4 | 40.9 | 60.4 | 56.5 |
| 2010 | 81.8 | 60.4 | 84.2 | 53.6 | 118.8 | 86.3 | 100.4 | 94.8 | 59.6 | 53.6 | 82.4 | 79.1 |
| 2011 | 85.9 | 68.8 | 83.8 | 61.8 | 121.9 | 97.8 | 101.1 | 95.1 | 75.1 | 68.8 | 93.0 | 85.8 |
| 2012 | 83.9 | 74.4 | 90.0 | 71.9 | 122.0 | 108.3 | 96.2 | 88.8 | 49.7 | 46.2 | 103.0 | 97.0 |
| 2013 | 90.3 | 82.5 | 80.9 | 72.0 | 133.5 | 120.7 | 98.0 | 95.7 | 54.7 | 52.4 | 97.2 | 92.5 |
| 2014 | 94.9 | 92.0 | 97.9 | 89.8 | 123.6 | 117.9 | 103.7 | 101.3 | 80.2 | 78.7 | 99.7 | 94.5 |
| 2015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2016 | 95.2 | 96.7 | 76.2 | 83.9 | 86.5 | 91.5 | 109.9 | 111.1 | 106.3 | 108.9 | 100.8 | 100.0 |
| 2017 | 107.4 | 109.9 | 95.2 | 104.1 | 100.0 | 110.3 | 130.4 | 134.2 | 115.5 | 125.3 | 119.7 | 118.3 |
| 2018 | 115.3 | 119.7 | 105.5 | 134.1 | 96.1 | 105.2 | 140.6 | 143.7 | 114.5 | 130.1 | 124.6 | 121.6 |
| 2019 | 123.2 | 154.0 | 34.0 | 41.6 | 94.0 | 103.8 | 122.1 | 127.4 | 139.4 | 158.3 | 117.4 | 115.8 |
| 2020 | 135.9 | 184.8 | 29.3 | 34.5 | 100.4 | 111.7 | 136.0 | 140.9 | 127.2 | 152.4 | 122.8 | 121.8 |
| 20.1월 | 121.2 | 166.0 | 34.4 | 45.2 | 90.3 | 101.0 | 148.7 | 152.7 | 130.8 | 149.3 | 108.6 | 108.3 |
| 2월 | 126.5 | 172.8 | 20.5 | 26.6 | 76.8 | 85.9 | 89.9 | 92.9 | 92.3 | 105.3 | 109.5 | 109.0 |
| 3월 | 132.7 | 180.3 | 31.1 | 38.8 | 99.4 | 111.6 | 144.1 | 148.9 | 135.4 | 155.0 | 128.6 | 128.6 |
| 4월 | 116.4 | 152.6 | 35.3 | 44.8 | 95.3 | 106.8 | 145.5 | 150.1 | 128.9 | 154.6 | 117.2 | 117.3 |
| 5월 | 125.9 | 165.5 | 26.3 | 34.8 | 88.1 | 97.9 | 137.7 | 143.3 | 130.1 | 155.6 | 98.6 | 98.6 |
| 6월 | 125.1 | 164.4 | 37.5 | 49.3 | 88.8 | 98.5 | 129.0 | 133.0 | 117.2 | 141.3 | 124.0 | 124.1 |
| 7월 | 145.2 | 196.7 | 33.3 | 41.3 | 101.4 | 112.9 | 128.9 | 133.1 | 128.7 | 161.0 | 131.4 | 131.0 |
| 8월 | 143.7 | 195.1 | 33.6 | 40.3 | 105.8 | 117.9 | 121.2 | 125.5 | 104.1 | 129.3 | 120.8 | 119.7 |
| 9월 | 145.3 | 197.2 | 23.3 | 26.2 | 107.1 | 119.1 | 135.9 | 141.1 | 111.3 | 138.4 | 126.4 | 124.4 |
| 10월 | 152.0 | 213.9 | 23.9 | 25.1 | 113.3 | 125.2 | 133.9 | 139.7 | 138.2 | 168.4 | 132.1 | 129.9 |
| 11월 | 148.0 | 208.2 | 25.8 | 25.2 | 117.8 | 130.1 | 147.0 | 153.1 | 159.8 | 192.8 | 128.5 | 125.8 |
| 12월 | 148.9 | 209.5 | 26.7 | 25.1 | 120.8 | 133.2 | 170.6 | 177.3 | 149.5 | 179.8 | 148.0 | 143.9 |
| 21.1월 | 148.2 | 207.5 | 33.5 | 30.9 | 119.9 | 131.6 | 206.0 | 213.9 | 161.8 | 190.0 | 148.3 | 142.3 |
| 2월 | 133.3 | 186.6 | 26.7 | 23.0 | 101.7 | 111.0 | 155.4 | 160.4 | 112.3 | 131.9 | 136.6 | 132.1 |
| 3월 | 151.5 | 212.2 | 30.8 | 25.3 | 130.5 | 141.5 | 198.6 | 206.3 | 134.1 | 157.4 | 162.7 | 157.0 |
| 4월 | 151.7 | 206.4 | 28.9 | 22.3 | 123.6 | 131.1 | 167.4 | 173.8 | 149.2 | 175.8 | 135.7 | 131.1 |
| 5월 | 152.8 | 210.3 | 26.6 | 20.3 | 132.7 | 137.3 | 169.2 | 177.3 | 120.7 | 142.3 | 136.8 | 132.0 |
| 6월 | 157.6 | 216.8 | 29.9 | 21.7 | 132.5 | 136.2 | 147.1 | 149.5 | 109.6 | 130.2 | 140.1 | 135.1 |
| 7월 | 174.9 | 234.7 | 25.5 | 18.4 | 134.7 | 139.5 | 154.4 | 156.3 | 130.5 | 159.6 | 139.2 | 134.5 |
| 8월 | 174.1 | 233.7 | 25.3 | 19.4 | 139.1 | 144.5 | 157.4 | 159.4 | 140.3 | 171.4 | 131.2 | 126.1 |
| 9월 | 178.4 | 239.4 | 29.8 | 24.9 | 138.2 | 143.6 | 160.0 | 161.5 | 130.8 | 162.3 | 126.2 | 120.9 |
| 10월 | 176.2 | 239.1 | 29.9 | 28.8 | 141.2 | 145.9 | 144.9 | 146.8 | 201.1 | 239.4 | 135.6 | 131.1 |
| 11월 | 196.9 | 269.8 | 37.0 | 37.4 | 155.6 | 160.5 | 159.5 | 161.8 | 169.9 | 202.2 | 146.7 | 142.1 |
| 12월 | 205.5 | 281.5 | 26.3 | 27.7 | 146.0 | 150.0 | 189.7 | 192.3 | 157.4 | 187.4 | 165.7 | 161.7 |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 ⊙ 사업 책임자 : 문형돈
- ⊙ 과제 책임자 : 강은숙
- ⊙ 참여 연구원 : 조성선, 홍수표, 최동렬, 임승호, 반치호, 박찬선, 장예지, 김채리
- ⊙ 위촉 연구원 : 최경석, 김은비, 이유리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전화 : (042) 612-8250, 팩스 : (042) 612-8209